

경기다문화뉴스

The Gyeonggi Multicultural Family News

Danuri Helpline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경기수원

이주여성·다문화가족을 위한 긴급지원·상담 및 생활정보 제공
13개 언어로 서비스됩니다.



031-257-1841

제184호 2020년 11월 01일 (격주간) 발행인 겸 편집인 송하성 등록번호 경기 다 50340 전화 031-8001-0211, 328-0211 수원사무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21번길 5 3층(영화동) 인쇄인 장용호 부천사무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춘의테크노파크 2차 209호 danews1@daum.net 후원계좌 110-408-662725 신한은행 <2쇄>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제9차 정기회의



시흥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도시 선출!

시흥시가 전국 27개 다문화도시들의 협의체인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도시로 선출됐다. 시흥시는 10월 16일 오후 구로청년공간 청년이룸에서 열린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제9차 정기회의에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신규 회장도시로 선출됐다. 이날 신규 회장도시로 선출된 임병택 시흥시장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핵심가치는 협력과 소통이 될 것”이라면서 “이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회원도시간, 또 중앙과 지방간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의 모델로 자리매김해 외국인과 다문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이진찬 안산시 부시장, 정한울 익산시장, 이성규 구로구청장, 임병택 시흥시장,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관련기사> 16면 송하성 기자

경기도 외국인주민 아동도 누리과정 보육료와 교육비 지원받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더불어민주당·안산5)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다문화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34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로써 경기도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가정의 자녀 중 취학 전 누리과정에 있는 만 3~5세의 아동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육료와 교육비를 지원받게 됐다.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앞서 성준모 의원은 소관 상임위 심사 제안설명을 통해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가정 및 다문화

가족의 자녀도 보편적 교육제도 안에서 만큼은 소외되지 않고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어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한 우리나라는 부모의 신분과 상관없이 아동의 체류권과 교육권, 보호권 등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하며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똑같이 세금을 부과하면서 국가수준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 비용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개정조례안은 경기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 대상에 외국인 가정 아동까지 확대했다. 현행 누리과정에 있는 내국인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은 월 24만원을, 공립유치원은 월 4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경기도교육청 다문화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다문화 교육 진흥을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 사업,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지원 사업을 통해 글로벌시대를 살아가는 도민들의 다문화에 대한 감성과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성준모 의원은 “이 조례개정을 통한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은 국내 최대 외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인 경기도에서 의정 활동을 수행하는 의원으로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숙원 과제였다”며 “본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내·외국인 구분없이 도민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성숙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

했다.

다문화가족과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교육 지원을 위한 성준모 의원의 관심과 노력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성 의원은 경기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경기교육의 철학과 가치는 다문화 학생들과 공유돼야 진정한 경기교육이 이뤄진다. 다문화 학생들이 내국인 아이들과 함께 어울릴 때 교육적 효과는 배가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성준모 의원의 이러한 노력은 해마다 빛을 발해 지난 6월 개최된 제3회 한국이주인권상에서 지역정책 분야 본상을 수상한 바 있다.(중국어 4면, 베트남어 25면, 러시아어 18면, 일본어 27면)

송하성 기자



지자체별
지면 안내

헤드라인 1 경기도 2 고양 3~7 안산 8~15 시흥 16~21 부천 22~27 오산 28~29 파주 30~32 군포 33~35 광명 35~37 김포 38~40 과천 41 안양 42~43 화성 44~48



언어별
지면 안내

중국어(Chinese) 中文 4, 11, 23, 25, 34, 35, 43 베트남어(Vietnamese) Tiếng Việt 13, 25, 46, 48 일본어(Japanese) 日本語 21, 22, 27 태국어(Thai) ภาษาไทย 19, 33 러시아어(Russian) Русский 6, 11, 14, 19, 24, 29, 35, 36, 43 스리랑카어(Sri Lankan language) 5 네팔어(Nepali) नेपाली 26



섹션별
지면 안내

정책 Policy 2, 16, 40 생활정보 Information 6, 14, 20, 23, 26, 30, 35, 39, 43 코로나19 Corona19 14 보건 Health 21 취업 Job 11, 23, 32 복지 Welfare 10, 32, 44, 47 금융 Finance 19 인권 Human Rights 5 이주배경청소년 10, 12 도서관 Library 38 기고 Column 11, 13 비자 Visa 29, 45 한국어 Korean 21 부동산 Real State 13, 18, 22, 33, 35 경기도 24, 25 46 여가 Leisure 16, 21, 34, 36, 48 축제 Festival 8, 9 육아 Child Care 1, 4, 18, 25, 27, 30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내실화 어떻게 추진할까?

박창순 위원장,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눈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회장 박창순 위원장)는 지난 10월 22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 위 회의실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는 성평등 및 여성분야, 가족, 아동청소년, 보육 및 다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연구를 비롯해 최근 4차 산업혁명과 인구 고령화로 인해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경기도민의 평생교육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된 연구단체이다.

이번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자를 맡은 김성종 교수(단국대학교)는 착수보고회에서 “이번 연구의 목적은 민주시

민교육을 지방자치 발전 및 자치역량 강화 차원에서 정의하고 교육의 목표를 구체화하며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설계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창순 회장은 “지방자치는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적합한 정책과 행정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도민 스스로 ‘내가 우리 지역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회장인 박창순(더민주, 성남2) 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

원회 김성수(더민주, 안양1), 김용성(더민주, 비례) 부위원장, 김미리(더민주, 남양주1), 송치용(정의당, 비례), 신정현(더민주, 고양3), 유영호(더민주, 용인6), 이진연(더민주, 부천7), 장태환(더민주, 의왕2), 조성환(더민주, 파주1) 의원과 경기도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박준호 과장, 연구 용역을 맡은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성종 교수가 참석했다.

이번 민주시민교육 연구용역은 3개월의 연구용역 기간 동안 민주시민교육과 지방자치 발전의 이론적 관계 정립 및 관련성을 분석하고 민주시민교육과 자치역량 강화의 연계를 위한 정책 제안 등의 연구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송하성 기자

“다문화가족과 자녀의 경기도 생활, 한국어와 이중언어로 즐겁게 발표해요”

경기도, ‘제11회 전국 다문화가족 말하기 대회’ 팜뉴뉴 씨와 설동진 학생 최우수상 수상



경기도가 지난 24일 개최한 ‘제11회 전국 다문화가족 말하기’ 본선대회에서 안성시의 팜뉴뉴가 한국어 부문, 시흥시의 설동진 학생이 이중언어 부문에서 각각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열린 이

번 대회는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말하기 대회’와 다문화가족 자녀가 한국어와 부모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두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본선에는 지난 1월에 실시한 예선을 통과한 부문별 10명씩 총 20명이 참가해 한국생활 적응기, 기본소득 등 다양한 주제로 자신의 실력을 겨뤘다.

먼저 진행된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에서는 중국, 러시아, 태국, 일본, 베트남, 몽골 등 다문화가정 자녀 10명이 한국어와 부모나라 언어로 각각 1분 30초씩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는 참가자 10명이 한국어로 2분씩 발표했다.

최우수상 수상자인 안성시 팜뉴뉴는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민자로 ‘아빠같은 남편’이라는 제목으로, 시흥시

의 설동진 학생은 ‘시흥, 내 고향 사랑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한국어와 중국어로 각각 발표했다.

이 밖에도 우수상과 장려상은 부문별로 2명씩 총 4명이, 입상은 이중언어 부문 5명과 한국어 부문 5명이 각각 선정됐다.

이순능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대회가 다문화가족들에게 한국생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넓히고 잊혀지지 않는 추억이 되길 바란다”며 “다문화가족의 한국어 소통능력 향상을 유도하고 한국과 더욱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다문화가족 말하기 대회’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자녀의 한국어 학습 동기 부여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경기도가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주최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



국내 다문화가정 영유아 놀이키트 지원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로부터 전달 받아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임유진)는 최근 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이사장 최흥열, 이하 KIDC)로부터 'KIDC-WFK NGO봉사단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하나로 총 100개 수량의 놀이키트 세트를 전달받았다.

KIDC는 최근 코로나19로 각 해외파견지에서 귀국한 NGO봉사단원들과 함께 국내 다문화가정 4~7세 영유아들을 위한 놀이키트 100세트를 제작해 발송하는 비대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바깥 활동이 제한되어 놀 권리를 박탈당한 아이들과 일가정생활의 이중고에 치진 부모들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놀이도구인 한글 도미노 게임,

떡 만들기, 고래비누 만들기, 액자 만들기 등의 물품을 포함했다.

사전에 봉사 참여를 희망하는 NGO봉사단원을 모집해 총 3회에 걸친 온라인 회의를 통해 놀이키트 대상자 구체화, 놀이키트 구성품을 선정했으며 프로젝트 소개와 놀이키트 설명서가 포함된 책자를 제작 발송 단계를 거쳐 전달했다.

놀이키트는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각 가정으로 전달됐다.

센터 관계자는 "놀이키트 세트는 다문화가정 미취학 아동과 그 가족들에게 뜻 깊은 선물이 되었다"며 "KIDC와 봉사단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놀이키트 세트는 개발협력 대표수행기관인 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와 KOICA의 협력을 통해 전달받을 수 있었다.

한편 KIDC는 한국의 개발협력 역량강화를 위해 2010년 5월 1일에 설립됐다. 2011년부터 해외봉사단 파견사업과 봉사단원 양성 교육 및 다수 연수사업을 수행했으며 라오스, 탄자니아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을 완료했다. 현재 NGO 봉사단 파견사업(동티모르, 몽골, 탄자니아), 몽골 프로젝트 봉사단파견사업을 진행 중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전국 최초 해외진출기업 복귀 조례 고은정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 9)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월 22일 제34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우수 해외 진출 기업의 경기도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은정 의원은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팽창하고 있고, 각국이 글로벌 분업화의 취약점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관점을 둔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려고 고민하고 있다. 기업들이 경기도로 복귀를 희망하고 있지만, 수도권 규제정책 등 지역적 특성상 어려움이 있다."라며 "그런데도 경기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기업 복귀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만들어서 다른 지역과의 비교우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고, 우수한 복귀기업 유치를 통해 도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해외진출기업의 경기도 내 복귀 유도와 정착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을 도지사의 책무로 하였으며, 도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정책으로 ▲금융 및 재정 지원, ▲산업단지 우선 공급, ▲기업의 인력수급을 위한 지원, ▲해외사업장의 청산 지원, ▲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도지사의 책무로 해외진출기업의 도내 복귀를 유도하고 복귀기업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토록 했으며, '경기도 복귀기업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것을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했다. 김영의 기자

11월 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명	사업일정	장소	내용	대상	담당자
도서관 활동가 심화교육	11월 1일~15일	센터 교육실	독서지도방법, 강의안 제작 등	결혼이주여성 10명	정수정
취업교육지원-이중언어교육강사 양성과정	11월 1일~25일	센터 교육실	이중언어교육의 필요성, 강의안 작성 등 (온라인+오프라인 통합)	결혼이주여성 26명	정수정
다잇다 멘토링 발대식, 오리엔테이션	11월 4일	센터 교육실	다잇다 발대식 및 사업소개	멘토링 참여 20가정	장경순
학령기 입학 및 입시정보	11월 7일, 10일	온라인교육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입학 및 입시관련 정보제공 등	다문화가정 예비학부모 30명	정소영
소비자경제교육	11월 9일	센터 교육실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 실생활에서의 소비자 피해사례 공유 등	결혼이민자 10명	박기숙
자조모임 배우자 '훈남들의 토크'	11월 14일	파주 퍼스트 가든	두레 신희과 함께하는 식생활개선 교육 친목모임, 소통의 시간 등	결혼이주민 배우자 및 가족 10가정	박기숙
인권감수성 향상교육-아는 것이 힘이다'	11월 20일	센터 교육실	스마트폰 속 발생하는 사이버범죄의 이해 및 예방, 인권침해 사례를 통한 예방법 등	다문화가족 20명	박기숙
취업소양교육	11월 25일	센터 교육실	직장 에티켓 및 구직 등록 등	이중언어 강사 양성과정 수료자 10명	정수정
다잇다 멘토링	11월~21년 4월	대상자 가정	맞춤형 학습, 멘토링(자녀의 심리, 정서지원), 부모상담	다문화자녀 및 중도입국 자녀 21명	장경순
결혼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11월 12일, 19일	센터 교육실	한국사회 기초 법질서, 부부상호이해 등	결혼이민자부부 5가정	조은미
다함께 프로그램	11월 12일, 19일	센터 교육실	결혼이주여성과 배우자, 상호이해 강화	결혼이민자부부 5가정	정수정
자조모임-에이핑크	매주 금요일	센터 교육실	베트남 전통춤 연습	결혼이민자 9명	팜투후연
청소년교육지원 '꿈나무 역사놀이터	매주 토요일	온라인	역사는술지도,역사문화탐방,역사전래놀이	다문화자녀 15명	박기숙

문의 031-938-9801



고양시, '제4회 세계스마트시티 기구 어워즈(WeGO Awards)' 수상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제4회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어워즈(WeGO Awards)'에서 6개 분야 중 효율적인 정부 분야에서 금상, 안전한 도시 분야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18개국 52개 프로젝트가 참여한 2020년 제4회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어워즈(WeGO Awards)는, 세계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각 도시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전자정부,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사위원단은 국외 ICT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두 차례의 심사를 통해 6개 분야에서 각 3개 도시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김영의 기자

통번역지원사와 이중언어코치 열악한 처우, 이제라도 개선 나서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4개 기관, 이주여성 처우개선 대책모임 제안하며 본격 활동



다문화가족과 그 자녀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통번역 지원사와 이중언어코치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내국인 직원들에 비해 저임금을 받고 있어 개선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일부 인식해온 일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들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문제 제기는 여전하다. (사진은 지난 2017년 7월, 1천여명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들이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모습)

지난 10월 26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민주노총, 이주노동희망센터, 원곡법률사무소는 ‘공공기관 상담·통번역 근무 이주여성 처우개선 대책모임’을 제안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4개 기관은 제안서를 통해 “이른바 ‘기본사업’을 하는 내국인 직원들은 호봉도 적용받고 승진도 할 수 있지만 ‘특성화사업’을 담당하는 통번역사와 이중언어코치는 경우에 따라 1년 미만 쪼개기 계약을 하며 항상 최저임금에 머물고 있다”며 “이주여성들은 전문자격을 갖추고 공개채용되며 주 40시간을 일하는 무기 계약직이지만 경력에 따른 보수체계가 없어 급여수준이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제안서는 또 “이 직종의 이주여성들은 다문화

가족 지원 업무에서 핵심을 담당하고 있어 차별적인 대우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이러한 상황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다누리콜센터, 노동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외국인력상담센터, 법무부 1345콜센터 등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사실은 국회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제출받은 자료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2020년 기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별 평균임금 현황에 따르면, 호봉 및 경력이 인정되는 행정직원은 연봉이 34,284,000원인데 반해, 특성화인력 군으로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충당하는 △언어발달지원지원사는 32,030,000원 △사례관리사는 28,650,000원 △통번역지원사는 25,612,000원 △이중언어코치는 26,325,000원을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상시근로직군이며, 특성화인력 내에서도 결혼이민자 인력의 평균임금이 훨씬 낮은 상황이다.

특성화인력군 중 ‘통번역지원사’와 ‘이중언어코치’는 결혼이민자만 지원할 수 있는 직종이다. 통번역지원사는 결혼이민자로 한국어와 출신국 언어로 통번역이 가능하며,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해야 지원 자격이 있다.

이중언어코치는 결혼이민자로 한국거주기간 2년 이상,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대졸 이상의 학력 등 4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권인숙 의원은 “한 직장에서 임금체계를 내국인 중심의 센터직원과 결혼이주여성 중심의 특성화인력 간의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특히 국내 통번역 및 이중언어코치 직군과 비교할 때 경력 산정도 없이 최저임금 수준의 평균 임금을 10년째 지급하고 있

는 것은 갑질에 해당한다”면서 “결혼이민자 출신의 통번역사와 이중언어코치를 통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시혜적 차원이 아닌 공동체 유지를 위한 필수사업으로 인식한다면 임금차별구조는 즉각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4개 기관 역시 이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대책위 구성을 제안하며 ▲이주여성의 처우 실태에 대한 공동 설문조사 ▲대정부 대사회 문제제기와 공론화 ▲이주여성 당사자들의 주체적 참여 모아내기 ▲국가인권위 진정, 정부 관련 부처 면담 ▲실질적 처우개선 실현 등을 활동 방향으로 제시했다.

4개 기관은 앞으로 11월 3일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대책위 구성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설문조사와 기자회견, 정부 부처 면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일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큰 틀에서 4개 기관의 처우개선 요구에 동의하면서도 여가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급여체계가 이주여성이기 때문에 이들을 차별했다기 보다는 사업비와 급여를 구별하지 않고 통으로 내려주는 특성화 사업이 가진 한계로 인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러한 급여 차이를 인식하고 통번역지원사들에게도 호봉제를 도입한 센터들이 적지 않다. 사례관리사는 내국인이 주로 일하지만 급여가 통번역지원사보다 오히려 낮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통번역지원사 외에도 사례관리사, 언어발달지도사 등 특성화사업 전반에 호봉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거기에 맞는 업무태도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하성 기자

京畿道外国居民儿童也能得到保育过程的保育费和教育费支援

京畿道议员代表成俊模(音译)发起的条例案,京畿道议会总会最终表决。

京畿道议会教育行政委员会成俊模(音, 共同民主党, 安山5)议员代表发起的《京畿道外国居民支援条例部分修订条例》和《京畿道教育厅多文化教育振兴条例部分修订条例》22日在第347届京畿道议会临时会第2次全体会议上最终表决通过。

因此,在京畿道合法滞留的外国家庭子女中,入学前在保育过程的3至5周岁儿童,也将获得与本国相同的保育费和教育费支援。这在17个广域自治团体中尚属首次。

此前,成俊模议员通过管辖常务委员会审查提案说明提案理由称:“对于合法滞留在韩国的外国人、家庭及多文化家庭的子女,也应该在普遍教育制度内,使其不受排斥,不受歧视地成长。”

接着,他主张:“批准联合国儿童权利相关协议的韩

国,不论父母身份如何,都有义务保障儿童的滞留权、教育权、保护权等”,“向外国人也征收与本国一样的税金,但却被排除在国家水平共同教育课程‘保育过程’费用支援对象之外”。

两个修订条例案把外国人、家庭儿童也扩大到了京畿道内的儿童之家和幼儿园保育过程的支援对象。现行保育过程中的韩国人儿童,幼儿园和私立幼儿园每月支援24万韩元,公立幼儿园每月支援4万5000韩元。

此外,在《京畿道教育厅多文化教育振兴条例部分修订条例》中,为了多文化教育的振兴,通过多文化理解教育事业、多文化家庭学生教育支援事业,来提高生活在全球化时代的道民对多文化生活的感性和理解。

成俊模议员表示:“通过该条例的修订,外国人居民支

援事业是作为韩国国内最大外国人居住地区的京畿道议政活动议员必须解决的夙愿”,“希望本条例的施行,能够成长为不分内国人、外国人,与全体岛民一起生活的成熟的社会成员”。

为支援多文化家庭和移民背景青少年教育,成俊模议员的关心和努力不是一天两天的事情。

去年成议员通过京畿道议会的5分钟发言表示:“京畿教育的哲学和价值只有与多文化学生共享才能实现真正的京畿教育。多文化学生和本国孩子在一起时,教育效果会成倍增加。” <한글 기사 1면>

成俊模议员的这些努力每年都在发光发亮,在今年6月举行的第三届韩国移民人权奖上获得了地区政策领域的本赏。 왕그나 경기외국인SNS기자단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справочники для русскоязычных иностранцев

더 많은 정보 습득에 도움이 되는 러시아어 사용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안내서 소개



Сегодня в Корее очень много работы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чтобы помочь в адаптации и максимальной информатизации о жизни в Корее. Есть переводчики, консультанты, а также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центры и справочники н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ах.

Еще лет 10 назад иностранцам в Корее, не знающим язык, было очень сложно. Приходилось по крупицам собирать информацию, параллельно изучая язык, культуру, и по себе могу сказать, что это был очень долгий и сложный процесс. Но и сегодня, несмотря на обилие информации, многие иностранцы, и русскоязычные в том числе, испытывают трудности доступа к ней.

Итак, представляю Вам справочники-путеводители в различных сферах, которые мне лично тоже очень помогли и помогают до сих пор.

1. Об этом путеводителе я уже писала, на сайте Данури есть последняя версия Путеводителя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который составлен Министерством гендерного равенства и Институтом здоровой семьи, на 13 языках, включая русский язык. Здесь собрана вся общая информация, необходимая для жизни в Корее: культура, образование, здоровье,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Электронную версию можно скачать на сайте Данури www.liveinkorea.kr. Бумажный вариант можно найти в центрах поддержки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либо же в организациях, работающих с иностранцами.

2. Мой страж здоровья- это справочник о самом важном для каждого человека: здоровье. Он составлен Корейским международным фондом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медицины, на 14 языках, включая русский язык.

Мой страж здоровья - 4 справочника, посвященные отдельным разделам медицины: терапия/семейная медицина; ортопедия(скелетно-мышечные расстройства); гинекология(дерматология/детское ожирение); психиатрия. Найти их можно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Корейск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фонд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медицины www.kofih.org (электронный вариант) либо же в центрах поддержки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или в организациях, работающих с иностранцами (бумажный вариант).

3. Справочник потребителя банковских услуг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 это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справочник, составленный Службой финансового надзора на 8 языках, включая русский язык.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основные положения о финансах и страховании, а также финансовом мошенничестве и другие темы. Найти

его можно на сайте Центра финансов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при Службе финансового надзора www.fss.or.kr/edu

4. Справочник в вопросах-ответах для русскоязыч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Миграционные, трудовые и другие насущные вопросы собраны в данном справочнике, составленном центром взаимопомощи Номо, специально для русскоязыч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роживающих в Корее. Найти данный справочник можно, обратившись в данный центр в Кёнгидо г.Ансан.

Уверена, Вы не пожалеете о времени, потраченном на изучение этих книг.

Будьте всегда максимально информированы с репортером иностранных соцсетей по Кёнгидо, Елена Ким.

최근 한국에서는 외국인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정보습득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통역사, 상담사, 정보센터가 있고 외국어로 된 참고 안내서도 있습니다.

10년 전까지도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들은 매우 힘

들었습니다. 조금씩 정보를 수집하고, 언어와 문화를 병행하여 공부해야했고, 그 과정이 제 경험으로는 매우 길고 힘들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보다 많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포함한 많은 외국인들이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여전히 도움이 되는 안내서를 소개합니다.

1. 이 안내서에 대해 이미 쓴 적이 있었습니다. 다니리 웹 사이트에는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지원하여 러시아어를 포함한 13개 언어로 편집한 최신 버전의 외국인용 안내서가 있습니다. 이 안내서는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 (문화, 교육, 건강, 법률 등)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자 버전은 다니리 홈페이지 www.liveinkorea.kr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책자 버전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외국인과 협력하는 기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 내건강지킴이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즉 건강에 대한 안내서입니다. 한국국제 보건의료재단에서 러시아어를 포함한 14개 언어로 편찬했습니다.

내건강지킴이는 별도의 의학 분야에 집중하는 4권의 참고서입니다. : 내과/가정의학과; 정형외과 (근골격계질환); 산부인과 (피부과/소아비만 등); 정신건강의학과-. 국제보건의료재단 공식 홈페이지 www.kofih.org (전자 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 관련 단체(종이판)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3. 외국인을 위한 금융생활 안내서는 금융감독원이 러시아어를 포함한 8개 언어로 편찬한 정보 안내서입니다. 금융 및 보험에 대한 기본 사항은 물론 금융사기 및 기타 주제를 포함합니다.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웹사이트 www.fss.or.kr/edu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4.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동포들을 위한 Q&A. 이주, 노동 및 기타 긴급한 문제를 한국에 거주하는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동포를 위해 제공합니다. 이 안내서는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고려인지원단체 사단법인 너머에 연락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 책들을 공부하는데 보낸 시간을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경기외국인SNS기자단을 검색하세요)

김엘레나 경기외국인SNS기자단



고양시청 031-909-9000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938-9801 고양시민자통합센터 031-970-3000 누리다문화학교 031-919-4025 (사)밝은미래 경기도지부 031-925-0400 고양교육지원청 031-900-2800 고양파주여성민우회 031-907-1003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031-912-8555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920-3937 범죄신고 112 고양경찰서 031-974-4311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대학생. 다문화청년이 만들어가는 원당골목학교

이민자통합센터, 다문화-비다문화가정 골목학교 운영



이민자통합센터(센터장 김세영)는 다문화가정 자녀와 비다문화가정 자녀 대상으로 학습향상과 이중언어 장려를 위한 원당골목학교 개교식을 지난 10월 17일에 개최했다.

이날 개교식에서는 원당골목학교장 위촉식과 강사 위촉식이 진행됐으며, 학교장으로 위촉된 조영곤 교장은 “원당골목학교를 통해 추억을 만들고 꿈과 희망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원당골목학교는 다문화가정과 비다문화가정 그리고 청년들의 고민을 한꺼번에 해결하고자 기획된 학교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걱정과 한숨이 깊어졌고, 부모들과 자녀 모두에게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것을 보고 이를 해결하고자 시작하게 된 다문화가정과 비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이용하는 통합형 학교이



다. 강사는 한국장학재단 연합생활관 소속 청년들과 다문화 강사로 활동하는 다문화 청년들이 활동하게 된다.

원당골목학교는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 고양시다문화청년네트워크, 고양경찰서가 후원하고 이민자통합센터가 주최하며 12월 26일까지 진행한 후 겨울방학에 들어간다.

매주 토요일 실시되는 원당골목학교는 국어 3개반, 수학 3개 반이 운영되며 이중언어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각각 2개 반씩 운영된다.

김세영 센터장은 “다문화와 비다문화 아동, 청년들이 함께하고 각각의 장점을 살려 연합하고 협력하는 통합형 마을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이며 지역사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의 가을 나들이, 해설사 함께하는 도보 관광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걸으며 덕양과 일산의 관광명소를 탐방하는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도보관광투어’ 프로그램을 오는 11월 14일까지 시범 운영한다.

고양시는 지난 3개월간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현장을 답사하며 고양시의 매력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코스를 집중적으로 개발했다.

시범 운영 중인 고양시 도보관광투어는 5개 코스에서 매일 두 차례,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시작한다.

▲고양관광정보센터에서 출발하는 ‘일산이야기’ ▲백마역에서 출발하는 ‘경의철길 옛이야기’ ▲행주산성에서 출발하는 ‘행주이야기’ ▲필리핀 참전비에서 출발하는 ‘고양 옛이야기’ ▲일산호수공원을 돌아보는 ‘힐링코스’ 등 5개 코스가 준비되어 있다.

도보관광투어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답사일 최소 3일 전까지 고양시청 문화유산관광과(031-8075-3410)로 참가 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고양시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5개 코스에 대한 참가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3~4개 코스를 최종 선정해 ‘문화해설사와 함께하는 도보관광투어’를 오는 12월부터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다문화가족도 해설사와 함께하는 도보 관광에 나서 보자. 이지는 기자

자녀의 학습을 위한
찾아가는 다문화 '(多)다있다' 멘토링

다문화가정 자녀 및 중도입국 자녀의 학습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학습격차 해소, 자녀들의 학습 자신감 UP

○ 교육기간 : 2020년 11월 ~ 2021년 4월 (6개월)
○ 내 용 :

맞춤형 학습 (전과목)	아이스크림 흥린 콘텐츠 사용 - https://youtu.be/Fo0Z1G7P8C0 1:1 개인별 학습관리 (부진학습 관리), 학교별 학교진도 보완, AI 학습분석
부모상담 (월 1회)	전문가의 학습상담 및 자녀 양육상담
멘토링 활동 (주 1회)	멘토를 통한 자녀의 심리·정서 상담 및 학습동기 부여

○ 모집대상 : 21명 (초등학교 1학년 ~ 중학교 2학년)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자녀 및 중도입국자녀

○ 신청방법 : 전화 신청
○ 신청기간 : 2020.10.30.~2020.11.03. (선착순 마감)
○ 문의전화 : 장경순 사회복지사 (☎ 031-938-9801)

고양시 평화의 새바다 미래의 꿈 고양

2021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접수기간	2020. 10.29. (목) ~ 2020. 11.6. (금) ※토·일요일 제외
사업기간	2021. 1. 4.(월) ~ 2021. 4. 20.(화)
신청방법	신청자 본인 직접 방문접수(대리신청 불가)
접수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모집인원	약 400명 - 미취업자 청년층(만18세이상 ~ 만34세이하) 30%이내 우선 배치 - 만65세 이상자는 15% 내외 선발
근로조건	주 25시간 5일 근무(단 65세 이상 주 15시간 3일)
일 급	월급(인건비 8,720원 / 시간, 부대경비, 주휴·월차·유급휴일수당 지급)

신청대상
사업개시일 현재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주민등록상 만 18세 이상 구직등록을 한 고양시민으로서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세대주 재산 2억 원 이하 및 세대 기준중위 소득 65% 이하인 자

신청서류

- 공공근로사업 신청서(동행정복지센터 비치)
- 구직신청서 또는 구직등록확인증(동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상 세대원 도장(지참필수 - 정보제공동의용)
- 건강보험납부확인서(동 담당자 - 행정정보공공이용 발급)
- 자격·가점 증빙서류(해당자)

사업분야 및 제외대상은 모집안내문 참조

참여자 선발확정 2020. 12. 29.(화)
* 선발자는 배치부서에서 직접연락
* 미선발자는 개별연락이 불가하며, 대기순위 및 미선발사유 등은 공개하지 않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고양시 민원콜센터 ☎ 031-909-9000, 일자리정책과 ☎ 8075-3716,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동주민센터) 고양시



안산시 '상호문화도시 지정 축하' 제13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국내 최초, 아시아 두 번째로 유럽평의회가 주관하는 상호문화도시(Intercultural City-ICC)로 지정된 것을 축하하고 제13회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지난 10월 18일 화랑유원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 윤화섭 안산시장은 “오늘 행사는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이 이해,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세계인의 날 행사다. 안산은 외국인이 안전하고 각국 문화를 존중하며 외국인주민들의

잠재력을 키워 안산시 성장 동력이 되도록 선도적 정책을 펼쳐왔다.”라며 “이해와 포용으로 내,외국인이 화합해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을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따라 참석 인원을 300명으로 제한한 가운데 좌석 간 거리를 2m로 유지하는 한편, 발열 체크 및 명단 작성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

행됐다. 안산시는 매년 5월 20일인 세계인의 날을 맞아 세계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하반기로 연기했다.

세계인의 날 행사는 전국 최고의 다문화도시 안산에서 살아가는 100여 개 국가 출신 세계인들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자리이다.

올해는 특히 안산시가 지난 2월 상호문화도시로 선정된 것을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됐는데, 안산시는 전 세계 주요

26개 상호문화도시 가운데 ‘상호문화도시 지수’ 평가에서 최상위권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날 행사에는 동티모르, 라트비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대사 등 7개국 17명의 각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각국 대사들은 축사를 통해 안산시의 상호문화도시 선정을 축하하며 안산시와의 우호 협력을 다짐했다.

〈9면에서 계속〉

김영의 기자



〈8면에서 이어짐〉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장이인 고영인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안산시가 구별과 차별되지 않고 협력, 연대할 수 있는 상호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상호문화도시로 가고 있는 것 같다”며 상호문화도시 지정을 축하했다. 또 “안산시는 외국인과 이주민이 함께하면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우려와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제는 상생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다문화가 부담이 아니라 안산의 자람이 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인도네시아 전통공연과 한국의 대북공연으로 문을 연 기념식에서는 상호문화도시 주제 영상 관람에 이어 지구촌합창단이 안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순으로 선정한 20개국의 국기 입장 퍼포먼스가 이뤄졌다. 또 율화섭 시장이 내외 주요 인사들과 전국 최초 상호문화도시 안산 선언식도 진행됐다.



차별 없이 협력하는 상호문화도시 당당히 상생의 시대로 나아가는 안산

다문화는 부담이 아닌 안산의 자랑

이날 행사에서 안산시의 발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한 제12회 다문화시민대상을 5명을 시상했다. 부문별로 ▲결혼이민자 부문 정위렌 ▲외국인근로자 서계옥 ▲다문화사회통합 최엘레나 ▲문화 부문 전유리 ▲지역경제 부문 황은화 등이 각각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행사 후반 특별 퍼포먼스로 진행된 세계의상 페스티벌에는 내외국인주민과 서울예대 대학동아리 청년, 외국인단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해 각국의 전통의상을 선보였으며, 율화섭 시장과 동티모르 대사가 함께 참여해 피날레를 장식해 행사를 빛냈다.

안산시는 행사에 참여할 수 없는 내외국인 주민을 위해 안산시 공식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다.

김영의 기자

사진으로 만나는 고려인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한국생활과 일상'

(사)너머 제1회 고려인 청소년 사진축전 개최, 전시회&온라인 전시

고려인지원단체 (사)너머(이사장 신은철)는 경기도 고려인 동포 인식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제1회 고려인 청소년 사진 축전'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제1회 고려인 청소년 사진축전'(이하 고려인 청소년 사진전)은 고려인 동포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목표로 국내에서 성장하고 있는 고려인 청소년들이 직접 이야기하는 한국에서의 삶을 보여주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국내 처음으로 진행되는 사진전에는 전국 각지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청소년들의 열띤 참여가 이어졌다.

(사)너머는 사진전문가와 대한고려인협회에서 추천하여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출품된 약 190여 편 중 총 5편의 작품을 선정했다.

수상작은 ▲대상(경기도지사상, 사진 맨왼쪽)-이데니스(안산디자인문화고 1), ▲금상(경기테크노파크 원장상, 사진 가운데)-최니나(옥포성지중 3), ▲은상(사단법인 너머 이사장상, 사진 오른쪽)-한알리나(봉명중 3), ▲동상(대한고려인협회 회장상)-김아나스타샤(가경중 2), ▲우수상(대한고려인협회 안산지부장상)-이야나(안산고잔고 1)이다.

(사)너머 신은철 이사장은 10월 18일 시상식 축사를 통해 "고려인 청소년들이 한국생활 속에서 느끼는 진솔한 감정과 이야기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동포들과 함께 추구해야 할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앞으로도 고려인 동포, 그리고 청소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다 많은 시민이 고려인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도록 경기도 관내 기관과 단체 중 전시를 희망하는 곳에 순회전시를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고려인 청소년사진전'에 출품된 작품들은 10월 18일부터 31일 안산시고려인문화센터 고려인 이주역사 전시관 내에 전시됐으며, 11월부터는 사진전 홈페이지(<https://jamir150.wixsite.com/jamir>)와 제4회 고려아리랑 홈페이지(jamir150.modoo.at)에 온라인 전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진전은 경기도와 (사)너머가 주최하고 (사)너머, 대한고려인협회, 안산시고려인문화센터가 주관했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 경제적인 어려움 안산시의 다양한 지원으로 이겨내요"

안산시 위기가구, 저소득층, 대학생 등 지원 ... 다문화가족에도 도움될 듯



힘들고 막막할 때 누군가 내민 작은 손길이 큰 희망이 될 수 있다.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이라면 안산시(시장 윤화섭)의 다양한 지원제도로 도움을 받아보자.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사업

안산시는 지난달 12일부터 신청 받는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사업'을 오는 11월 6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한다.

온라인은 복지포(www.bokjiro.go.kr)를 통해 세대주가 본인인증절차를 걸쳐 신청가능하고, 현장 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급금액은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 정보에 등록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며, 조사결정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 신청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될(1회)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기존 소득감소 25% 이상에서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가 추가됐으며, 신청서류도 간소화됐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포(129)에 문의하면 된다.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안산시는 11월 30일까지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2학기 신청을 받는다.

2학기 지원대상은 ▲다자녀가정의 첫째, 둘째를 포함한 모든 자녀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 대학생이며, 만 29세 이하 학생 본인과 가구원(본인 기준 조부모, 외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1인 이상이 함께 공고일 및 지원일 현재 안산시에 3년 이상 계속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국가장학금 및 타 장학금을 제외한 본인부담 등록금의 절반(학기별 100만원 한도)이며, 1학기 반값등록금을 신청했던 학생들도 국가장학금을 사전에 신청하고 접수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접수는 11월 30일까지 온라인(안산시청 또는 재단법인 안산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또는 우편(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39 재단법인 안산인재육성재단)으로 하면 된다.

소득층 대상 생활안정자금 용자

안산시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한 생활안정자금 용자 신청을 11월 6일까지 받는다.

생활안정자금은 용자신청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자금, 전세자금, 학자금 등 조례로 정해진 용도에 한해 융자하는 사업이다.

생활안정자금은 1가구당 1천만 원 이하며, 학자금은 가구당 500만 원 이하다. 융자 조건은 일반 대여금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 연이율 1% 및 연체이율 연 4%이며, 학자금 융자금은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 연이율 면제 및 연체이율 연 4%의 조건으로 융자한다.

용자는 신청 후 심사를 거쳐 11월 중순 실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정책과 기초자활팀(031-481-3241)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기고> ‘别样2020中秋’ 세대를 넘어선 특별한 2020년 추석에 대해

코로나로 모두 힘든 오늘, 75세 노가수의 힘찬 몸짓이 젊은이들을 응원한다



每逢佳节倍思亲特别是身在异乡，不能和父母一起共度中秋佳节是今年很多人的遗憾。不光我们外国人在韩国，也有很多韩国人身在异乡，他国。按照中国的习俗，都会和家人一起吃团圆饭，收看节日晚会节目。可今年身在韩国中秋，第一回陪同婆婆在韩国电视上看了一回“罗勋儿线上演唱会”的直播。

以往年龄的差异，通常会各自看各自喜欢的节目。交集很少，但是今年却被这场特殊的演唱会打动了。也被这位老前辈打动了！

最让我感动与震撼的是，歌手开演唱会都是为了经济收益，但这位老前辈却是整场演唱会所有开销所需费用，自掏腰包。为了鼓舞因此次新冠疫情深受其害的国民，给予异乡无法回祖国，祭祖陪伴家人的游子以慰藉。特别是考虑到人员聚集，会对疫情防控带来不好的影响，采用观众们在线收看的方式。看着屏幕中一个个身在各地的很多是全家的歌迷们的应援，确实让人动容！听到的不仅仅是一首首歌曲，也是博大的家国情怀！

在此之前 我是对这位老前辈是完全不知晓，但是婆婆和爱人向我介绍，在韩国没有人不知晓나훈아，在韩国被誉为歌皇/歌王”生于1947年现年73岁高龄的歌手。一场演唱会下来，载歌载舞，精力丝毫不逊于年轻人，各种风格全部驾驭！确实让年轻人都暗自惭愧，如果没有严格的自律生活，绝对达不到如此的状态。

那天安安静静地陪同婆婆看完整场，或许无法完全理解歌词中饱含的深情与意义，但我相信音乐是相通无国界的。对家乡，对亲人的思念从不消失，对未来的期待也一直都在。一位73岁的老前辈如此努力，热爱生活。活在当下的我们年轻人不是更应该动力满满的迎接每一天！2020的别样中秋如此难忘！像前辈说的“要相信”。我们相信所有的困难都能克服，相信明天会美好！都为自己打气加油！

명절이 오면 사람들은 가족이 더 그리워진다. 특히, 올해는 타향에 있어서 부모님과 가족이 함께 추석 명절을 보내지 못하는 것이 많은 이들의 아쉬움을 자아낸다. 외국인이 한국에 사는 것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도 꽤 많다. 명절 때 중국에서는 보통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명절 프로그램을 같이 시청한다.

필자는 올해 추석에 시어머니와 함께 TV에서 ‘나훈아 온라인 콘서트’ 생중계를 봤다. 나이 차이로 각자 본인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기 때문에 평소엔 시어머니와 함께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적은 편이다. 하지만 올해는 나훈아 가수의 특별한 공연에 모두가 큰 감동을 받았다!

필자가 가장 큰 감동을 받게 된 이유는 보통 가수가 콘서트를 여는 것은 모두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다. 하지만 이번 콘서트는 나훈아 씨가 한 푼도 받지 않고 무료로 콘서트를 진행했다는 점이 특별하다.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타향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가족 그리고 나그네 신세가 된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관람객이 몰릴 경우 코로나 사태 방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시청자들이 온라인으로 시

청하는 방식을 택했다. 스크린에 얼굴을 비친 팬들의 모습은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 응원하는 것이었다. 큰 감동이 아닐 수 없다. 말 그대로 단순히 노래를 듣는 것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의 이웃 사랑과 나라 사랑에 대한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

필자는 사실 예전에는 나훈아 씨에 대해 전혀 몰랐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한국에는 나훈아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그는 1947년에 태어났고 현재 나이가 75세이며 한국에서 ‘가왕’으로 불린다고 한다. 콘서트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원로가수의 힘찬 몸짓은 젊은이들 못지않았고, 넘치는 끼와 재능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평소 엄격하고 규칙적인 자기생활에 대한 관리가 없었다면 결코 이런 상태에 이르지 못 했을 것이다. 아직 젊은 층에 속하는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까지 들 정도였다.

그날 시어머니가 콘서트를 바라보는 모습을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면서 필자는 비록 가사에 담긴 깊은 정과 뜻을 완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음악은 국경이 없다’는 것만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사라지지 않았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불확실하다. 그러나 73세의 대선배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우리 젊은이들도 더욱더 활기차게 하루하루를 맞이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2020년의 색다른 추석은 정말 잊을 수가 없다! 선배의 말대로 믿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을 응원하자!

조양 경기외국인SNS기자단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е семья попробуйте свои силы в решении задачи занятости и стабильности, а также улучшении трудоспособности. Фонд занятости Кёнгидо предлагае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конкурсе «Женский ИТ портфолио» с общим призовым фондом в 14,6 млн. вон.

Фонд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Кёнгидо проводит «Конкурс женских ИТ-портфолио», в целях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 занятости и стабильности, а также улучшения трудоспособности по Кёнгидо.

Этот конкурс, посвященный теме «ИТ-портфолио, подготовка к трудоустройству или начала бизнеса», разделен на две области: Интернет / мобильная связь, публикация, 3D, иллюстрация, смайлы и т. д.; Дизайн и видеоконтент, такой как музыкальные клипы, короткометражные фильмы, рекламные ролики и пародия.

Кандидаты - женщины в возрасте от 15 лет и старше, проживающие в Кёнгидо, женщины, которые учились или закончили школу в Кёнгидо. В качестве альтернативы, ученицы, женщины с дипломом или женщины, которые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работают в Кёнгидо. Заявку могут подать как отдельное лицо, так и команда до 5 человек. В конкурсе также могу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е семьи.

Срок приема до 15:00 13 ноября. Вы можете загрузи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документы, такие как форму заявл

ения на участие в конкурсе, из Интернета, заполнить и опубликовать работу и руководство по работе вместе.

После отбора фонд выберет в каждой области по одному победителю высшей степени, по одному первой степени, шесть за выдающиеся достижения и 20 на поощрительный приз,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30 человек, призовой фонд составит от 300.000 до 1,5 млн. вон.

Женщинам-брачным мигрантам для поиска работы прежде всего следует приложить усилия для повышения

уровня владения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Независимо от того, насколько вы умелы, сложно найти хорошую работу, если вы не достаточно владеете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Для получения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информации посетите веб-сайт фонда (www.gjf.or.kr), онлайн-службу поддержки по трудоустройству Дрим нальге(крылья мечты) (www.dream.go.kr) или обратитесь в фонд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1й отдел (031-270-9772 ~ 3)


<한글 기사 23면>

장울가 경기외국인SNS기자단

양육코칭에 묻다.

양육코칭은?

Ansan Global Youth Center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김민영 관리 코치 (아동 담당)

저는 가족코치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고 '다양한 가족의 건강과 행복증진에 도움이 되자' 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민가족은 그동안 신문으로만 접했어요. 난민가족은 소수의 특별한 코칭의 대상자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국제코치훈련원 황현호 소장님을 통해 난민가정양육코칭사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사명감과 맞닿아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난민가정양육코칭은 어떻게 진행 되나요?

조이아동이 생각나요. 이 아동은 다른 사람을 만나면 쭈뼛거리며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말도 거의 안했습니다. 근데 조이아동의 말에 의하면 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는 말을 하고 표현을 한다고해요. 근데 왜 누군가 오면 말을 안한다고 해요.


"이것이 어떠한 문제일까요?"를 고민했어요.

어느날 선택적함구증 관련 비디오를 보게됐는데 조이와 비슷한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이도 선택적함구증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코칭을 하면서 조이와 점점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제가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아도 조이 먼저 말을 꺼내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됐죠. 코칭을 통해 이렇게 변화된 조이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정아 코치-

코칭의 여원을 말씀드리면 코칭은 옛날 헝가리 지역 '복스'에서 처음 생긴 것으로 마차에서 유래 됐는데요. 그래서 처음엔 마차를 kocsi szeker (코치의 차)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어원적으로 보면 코칭은 마차에 탄 사람을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마부의 역할을 하며 동행하는 것입니다. 마부가 서두르다보면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끄는 상황이 됩니다. 코칭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코칭에서는 함께 춤추기를 강조합니다. 제가 만나는 가장 중 아이라한데 함께 춤을 추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코칭을 받는 도중 신나서 같이 춤추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데, 이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김민영 코치-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2020년 저희센터는 난민아동의 온전한 양육 및 발달환경 조성의 목적을 가지고 세이브더칠드런과 협력하여 난민가정양육코칭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10월 '이슈&인물'은 난민가정양육사업에서 코치로 활약하고 있는 김민영 코치, 이정아 코치를 만나보았습니다.



어머님을 담당하는 진행코치, 아동을 담당하는 관리코치 이렇게 2인 1조로 총 16회, 가정을 방문하여 주 1회, 90분동안 진행 하고 있습니다. 진행코치는 어머니가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관리코치는 아동과 특별한 관계 형성을 하며 관찰하고 코칭 주제에 맞게 질문을 합니다. 양육 코칭 콘텐츠는 각 가정마다 다른 데, 필요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바리 아동의 사례로 이야기 하자면 바리는 6세 아동으로 열정적이고 호기심이 많아요.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을 못하면서 장난이 심해지고 산만해졌어요.

이 모습에 어머니는 큰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바리와 놀이터에 나가 코칭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지역에 있는 아이들과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이처럼 상황에 따라 양육코칭을 하게 된 덕분에 바리의 집중도가 과거에 비해 항상 오히려 눈길을 끌 수 있는 지금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참여 당사자 대부분 이 사업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 당사자 아이들의 말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주변 난민 엄마들이 감정코칭을 배웠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난민 엄마들에게 좋은 것을 나눠주고 싶다고 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양육코칭을 배워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아 코치-

코칭이 끝난 이후에도 코칭 효과가 지속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코칭 경험을 바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바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코치님,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변했어요."라고 말하는 것과 "코칭 당시에는 코치님이 이야기했던게 중요하게 생각 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중요하고 도움이 된다는걸 알게 됐어요" 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김민영 코치-

난민가정양육코칭사업에 도움을 주신 국제코치훈련원 황현호소장님,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부 안정호과장님, 이정아코치님, 김민영코치님, 김태숙코치님, 조영숙코치님, 박현정코치님, 나윤숙코치님

감사합니다

김민영 관리 코치 (아동 담당)
이정아 진행 코치 (부모 담당)

난민가정양육코칭사업은?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와 세이브더칠드런이 함께하는 사업으로 올바른 아동 양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난민 부모 중 3세~7세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동 양육 방법을 지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국내거주 난민아동의 온전한 양육 및 발달환경 조성과 난민 부모의 양육효능감 향상 및 난민 아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변화입니다.

코칭에서 중요한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발견하고 키워주는것입니다. 난민가정 특성상 가정에서는 부모의 문화를 배우고 어린이집에서는 한국의 문화를 배워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하였을 때 큰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어머니에게 알려드리고 아이들이 현재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보통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을 TCK(Third Culture Kids)라고 합니다. 이는 영유아시기부터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기 전인 청소년기에 부모의 문화와는 다른 문화권에서 성장한 아이들을 말합니다. 정체감의 혼란이나 갈등으로 이 아이들을 정의내릴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말 그대로 제3의 문화적 정체감을 자신의 강점으로 만들 수 있는 아이로 바라봅니다. 파란불감과 노란불감이 섞이면 흐린 파랗거나 짙은 노랑이 아니라 초록이라는 또 하나의 색이 되는 것처럼요. 실제로 양육코칭에서 색 창출으로 이런 활동을 합니다. 엄마들에게 고유성을 가진 존재로 아이를 바라보게 하지요.


난민가정양육코칭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난민가족 대부분이 한국에서의 삶을 잘 알지 못하고 비자 등의 문제로 긴장을 많이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긴장감을 가진 상태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에너지를 온전히 아이들에게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난민가족을 보면 1960~70년대 한국의 가정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집안살림을 하기 싫어 하는 남편의 가부장적인 모습, 잘못 된건 체벌을 통해 다스리는 모습, 아이들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대리 실현하려는 모습 등 이런 것들이 많아요. 양육코칭을 통해 정서적, 정신적, 신체적인 삶의 기반을 잘 형성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10월 '이슈&인물' 인터뷰는 2020년 9월 23일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인터뷰: 이준(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홍보기획 담당 주임)
-사. 직: 박현정(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난민사업 사례관리자)




이정아 진행 코치 (부모 담당)

난민가정양육코칭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서 한국 아동 대상으로 양육코칭을 하는건 기존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난민가족을 만난다는 것이 특별하다고 느껴졌어요. 저는 영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태국, 베트남 등 외국에서 17년을 살면서 아이를 실제로 키워왔기 때문에 엄마들이 외국에서 아이를 키울 때의 어려움을 이해 할 수 있었어요. 난민가족이 한국에서 균형을 잘 잡고 아이를 키우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죠.

난민가정양육코칭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난민가정양육코칭은 올해 처음 진행된 사업이라 사업을 하는 중에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해서 계속 논의해야 했고 큰들의 방향도 수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도 없이 회의를 해야했던 게 어려움이라면 어려움이었지만 논의과정에서 많은 다른 코치님들의 경험과 버전을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양육코칭 중 어려웠던 점은 아무래도 언어문제였는데요. 저희 코치들이 영어로는 의사소통이 가능한데 불어는 어렵거든요. 근데 난민들 중에 불어를 사용하는 가정은 소수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불어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난민가정양육코칭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구분 시행

확산 정도에 따라 전환

최소 1m

- 1단계 소규모 유행
 - 통상적인 의료체계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
 - 소규모의 산발적 유행이 확산을 반복하는 상황
- 2단계 지역사회 확산
 - 통상적인 의료체계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
 -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상황
- 3단계 대규모 유행
 - 지역사회에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
 -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대규모 유행 상황

Những người lần đầu tiên trong đời mua nhà, hãy đăng ký giảm tiền thuế chuyển đổi

Tỉnh Gyeong gi do đã có quyết định giảm tiền thuế chuyển đổi cho những người mua nhà lần đầu trong đời, bắt đầu tiếp nhận đăng ký của người dân tỉnh Gyeong gi do. Biện pháp này là một trong những biện pháp đối phó của "biện pháp an ninh và ổn định thị trường nhà ở" do chính phủ công bố nhằm giảm bớt gánh nặng thuế cho nhân dân là mục đích cuối cùng.

Khi mua nhà thì số tiền thuế chuyển đổi phải nộp là nếu là 1 căn nhà mà có giá trị dưới 6 tỷ won thì mức thuế là 1% của giá trị căn nhà, trên 6 tỷ và dưới 9 tỷ won thì mức thuế là 2%, nếu trên 9 tỷ won thì mức thuế là 3%, đây là mức thuế đang được áp dụng chung

Nếu bạn mua nhà có giá trị 6 tỷ won thì phải trả 6 triệu won tiền thuế, mua nhà có giá trị 10 tỷ won thì phải trả 30 triệu won tiền thuế, đây là con số không hề nhỏ.

Nếu đọc kỹ nội dung chủ yếu của bản nội dung thay đổi thì nếu là người mua nhà đầu tiên trong đời thì không xét đến độ tuổi, không xét là người đã kết hôn hay chưa thì đều có thể nhận được giảm giá.

Trước đó thì nếu là vợ chồng mới cưới mà chưa từng sở hữu nhà ở thì tính từ ngày bắt đầu hôn nhân, trong vòng 5 năm nếu mua nhà có mức dưới 4 triệu won thì được giảm 50% mức thuế tài sản.

Nếu là công dân tỉnh Gyeong gi do thì theo mức giảm của giá trị căn nhà là nếu mức tiền nhà lúc mua là 1 tỷ 500 triệu won thì được miễn, nếu nhà có giá trị trên 1 tỷ 500 triệu won và dưới 4 tỷ won thì được giảm 50% mức thuế chuyển đổi.

Giới hạn về diện tích, vốn chỉ có diện tích nhỏ hơn 60m², cũng đã biến mất, mở rộng sự lựa chọn về khu dân cư. Ngoài ra, trong trường hợp giảm miễn trừ cho các cặp vợ chồng mới cưới, các yêu cầu về thu nhập được nói lỏng và bất kể là thu nhập đơn hay thu nhập kép, họ đều có thể nhận trợ cấp nếu tổng thu nhập của họ từ 70 triệu won trở xuống.

Đăng ký giảm trước tiền thuế có thể đăng ký đến ngày 2021.12.31. và có thể đăng ký cùng lúc khi khai báo . nộp thuế tại những văn phòng thuế trực thuộc nơi lưu trú.

Cùng với đó, Kể từ sau khi ngày 10 tháng 7 vừa qua đã có chính sách bất động sản của chính phủ được phát biểu thì những trường hợp đã mua nhà (theo tiêu chuẩn ngày thanh toán số dư), người thỏa mãn điều kiện nhận ưu đãi thì có thể viết đơn đăng ký và có thể nhận lại số tiền thuế chuyển đổi đã nộp

(중략.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경기외국인SNS 기자단을 검색하세요)

2020년 다양한 가족 성장지원 공모사업

‘다양한 가족 행복사례 발굴 공모전’ 대상

〈동경 憧憬〉 흥예원

겨우 스물이 되었다. 독립의 문턱은 홀로 모든 시간을 견뎌내게 했다. 그럼에도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안정감이 드는 건 왜일까. 이집 저집을 옮겨 다니며 삶의 이유에 대해 고민했던 적이 있었다. 몇 번이고 유서를 썼었다. 우여곡절이 참 많았다. 이야기하자면 하룻밤도 모자란 나날들이었다.

이혼을 달고 다니는 아이, 라는 말을 꼬리표처럼 붙이고 다녔다. 어린아이들의 유치한 장난이라기에는 너무도 지독했다. 각 부모의 입을 거쳐 나에게까지 넘어온 말들이었다. 나는 고작 여덟 살이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외가, 친가 조부모들의 이혼과 재혼.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혼 실랑이가 나를 옥죄었다. 아빠와 어머니의 부재 속에서 나는 자랐다.

아빠가 떠난 후 어머니는 술독에 빠진 망나니처럼 굴었다. 애인들과의 끊임없는 술자리, 불분명한 일터, 지갑 속 가득한 현금들까지. 나이가 들수록 이해가지 않는 것들 투성이었다. 그맘때쯤 어머니의 레퍼토리는 아빠의 외도였다. 얼굴도 모르는 여자를 읊어대는 모양새가 어린 나에게도 무척이나 끔찍했다. 아빠는 없는 셈 치자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찼다. 매달 들어오는 양육비는 나의 성장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어머니의 옷장은 계절이 바뀔수록 점점 빈 구석을 잃어갔다.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 계속 올라가는 월세에 허덕거렸다. 방을 빼는 일도 여러 번. 개중 몇 번 보증금도 날려 먹고, 지인의 탈을 쓴 이들에게 사기도 두어 번 당했다. 저렴한 곳에서 더 저렴한 곳, 그보다 더 저렴한 곳. 그곳을 찾다보니 외국인들이 모여 사는 이주민 단지에 발을 담게 되었다.

옆집에는 인도 출신의 가족들이 살았다. 나는 엄마가 나간 밤이면 그 집에 놀러가 다섯 살, 일곱 살 난 아이들과 놀아주었다. 그러면 꼭 아주머니가 저녁을 챙겨주었다. 나의 어머니보다 한국 음식 더 잘했다. 고마움의 표시로 약간의 용돈을 받았다. 텅 빈 집에서 나는 외로움에 친구들을 끝없이 불러들였다. 온전한 집이 있었는데도 내내 가출한 아이처럼 굴었다. 아지트가 되어버린 집에서 일탈들이 쌓여갔다. 어머니가 돌아오는 새벽녘에 해산을 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수도가 끊겼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학교를 마치고 휴대폰을 보니 해지가 되어 있었다. TV가 나오지 않았다. 이러한 일들이 몇 번이고 반복되었다. 한여름이고 한겨울이고 가릴 것 없었다. 어머니는 종종 공과금 납부일을 잊었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돈이 없다는 말을 더 많이 들었다. 전부가 도어락을 설치해놓은 빌라에 아무도 찾지 않는 열쇠가 된 기분이었다.

오후 여섯 시부터 새벽 여섯 시까지의 열두 시간 업무. 어머니를 데리러 오는 회색 승합차와 수많은

이모들. 비밀로 부쳐졌던 직종은 이제 궁금한 마음조차 없어졌다. 금발의 사기컷, 초록색 아이새도우에 보라색 립스틱, 미니스커트와 무릎까지 올라오는 갈색의 가죽 부츠. 학기초 공개수업에 나를 보러 온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일말의 조소를 띠며 친구들은 말했다.

“너희 엄마, 되게 젊으시다.”

우러러보는 투도 잠시, 이내 자잘한 관심마저 사그라 들었다. 나는 부끄러운 기분을 감출 수 없었다. 열셋이었다. 일찍 접한 사춘기가 뼈저리게 후회될 만큼 교실 밖을 뛰쳐나가고 싶었다. 아침드라마를 챙겨보느라 지각을 밥 먹듯이 하던 나를 향해 답임은 매번 반 친구들 앞에서 조롱했다. 혼자 열심히 일하시는 어머니가 불쌍하지도 않니? 껍이나. 혼자 있는 날이 늘어갈수록 두려움도 증식했다.

그날도 같았다. 어머니는 늦잠 자는 나를 깨워주는 하였다. 시간은 아홉 시를 향해갔고, 여전히 방에는 잠든 나 혼자였다. 술에 음광 취한 어머니가 간신히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다. 진한 향수 냄새가 자욱했다. 비틀거리는 몸이 벽을 부딪치면서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나는 그제야 잠에서 깨어나 안경도 쓰지 않은 채 어머니를 잡았다. 내 손을 뿌리친 어머니는 누가 쫓아올 세라 서둘러 침대로 향했다.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나의 안경이었다. 나는 울면서 어머니를 애써 나무랐다. 맨 정신도 아니면서 칭얼거리는 나에게 어머니는 사랑 하나 물려주는 것처럼 말을 툭 던졌다.

“일단 있어 봐.”

학교를 가지 않았다.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시야에 영영 우는 일밖에 하지 않았다. 술이 다 깨어버린 어머니는 답임의 전화를 거둬 피했다. 이제 나는 너랑 못살겠다,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그럴 거면 아빠한테 가서 살아. 한바탕 욕을 뱉던 어머니와 새로운 안경을 맞추러 갔다. 통화를 하던 어머니는 아빠에게 이간질이라도 하는지 연신 나의 눈치만 봤다. 간간히 들렸던 아빠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집에 나를 찾아왔다.

그래놓고 하는 말이, “아빠랑 살래?” 였다. 연속된 어머니와의 감정 소비로 인해 몸도 마음도 지쳐가던 터였다. 무엇보다도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사치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어머니는 마감이 촉박한 과제를 내야할 때처럼 나를 보낼 채비를 서둘렀다. 귀찮다고 집안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까먹었다고 공과금조차 제때 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다음 호에 계속>

이 글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아시아문화연구원이 진행한 2020년 다양한 가족 성장지원 공모사업 ‘다양한 가족 행복사례 발굴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글입니다.

Уровень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онирования опущен до 1!

방역모범국가 한국, 1단계로 낮아졌지만 모든 사람 전 분야에서 신중하고 조심해야

Начиная с середины августа многие жители Кореи насторожились из-за поступающих новостей. С каждым днем число заболевших становилось все больше и больше. Невольно стали появляться мысли, что неужели началась вторая волна заражений и опять повторится история как и в начале весны. Поэтому в течение нескольких недель все жители были настроены и следили за последними новостями. Однако, благодаря своевременным действиям властей Кореи удалось в достаточно короткие сроки локализовать очаги инфекции не только в столичном районе, но и в провинциях. Также большую роль сыграли и ответственное отношение граждан не только к своему здоровью, но и к здоровью окружающих, которое определялось посредством постоянного ношения масок и обращения в больницы при наличии симптомов Ковид 19.

Исходя из сложившейся благоприятной 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ой обстановки,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Кореи было решено ослабить карантинные меры. Так, с 12 октября уровень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онирования был опущен со второго по первый. Однако это не означает отмену всех ограничений. До сих пор рекомендуется жителям возде

ржаться от посещения обществен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собрания, выставки, ярмарки, концерты и т.д.), но это не отменяет их проведения. В этом случае существует ограничение на количе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при условии, что один человек на 4 м². Для спортив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заполняемость стадиона не должна превышать 30% от его вместимости.

Кроме этого начнут работу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и общественные объекты. Так, открывают свои двер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музеи. Временно закрытые социальные центры, дома престарелых, центры для инвалидов и областные детские центры смогут продолжить свою работу при соблюдени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карантинных мер. Также самое касается развлекательных заведений (караоке, клубы, бары), которые смогут продолжать свою деятельность при условии ограничения количества посетителей и соблюдении всех необходимых карантинных мер.

Также ослаблены ограничения на посещение детских садов, начальных и средних школ. Напомним, что ранее только 1/3 учеников разрешалось посещать вышеперечисленные учебные заведения. Однако сейчас ограничения были ослаблены в пользу разрешения 2/3 ученикам.

Ограничения могут дополнены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в каждом отдельном регионе. Возможно, именно такими небольшими шагами Корея сможет как первая страна в мире освободиться от всех карантинных ограничений.

Корона и 관련해 8월 중순 이후 많은 외국인주민과 내국인들이 뉴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확진자수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두 번째 감염의 물결이 실제로 시작되었고 봄에 시작될 때와 마찬가지로 역사가 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몇 주 동안 모든 주민들은 경고를 듣고 최신 뉴스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당국의 시의적절한 조치 덕분에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감염의 확산을 상당히 짧은 시간에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책임감 있는 태도는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마스크를 썼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때는 바로 진료소로 갔습니다.

현재의 긍정적인 역학 상황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는 방역 조치를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가 2단계에서 1단계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제한이 제거되는 것을 의

미하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은 계속 공공 행사(회의, 전시회, 박람회, 콘서트 등)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그 행사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4제곱미터 당 1명이 참가할 경우 참가자 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스포츠 행사의 경우 경기장 점유율은 수용 인원의 3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공공시설이 운영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국립 박물관은 문을 엽니다.

임시 폐쇄된 사회복지관, 요양원, 장애인센터 및 지역아동센터는 적절한 방역조치에 따라 운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장소(노래방, 클럽, 바)도 동일하게 운영되며, 방문자 수가 제한되고 필요한 모든 방역조치를 준수하면 운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등교 제한도 완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3분의 1의 학생만이 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한이 완화되어 3분의 2의 학생이 등교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역학 상황에 따라 제한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작은 걸음이 한국이 세계 최초의 방역모범국가로 모든 검역 제한에서 자유롭게 되는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경기외국인 SNS기자단을 검색하세요)

울리아 경기외국인SNS기자단

«Иностранные рабочие получите верхнюю одежду бесплатно» Должностные лица Кенгидо в рамках «Фестиваля раздачи зимней верхней одежды» подарили 280 комплектов .

Должностные лица Кенгидо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Фестивале раздачи верхней одежды»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роживающих в Корею, и собрали около 280 зимних пальто.

«Фестиваль раздачи зимней верхней одежды» - это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спонсируемое частным образом,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го собирают «спящую» в шкафах верхнюю одежду и раздают их иностранным работникам и соседям из стран где нет зимы, таких как Юго-Восточная Азия.

В рамках эт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в Кён

гидо было передано более 280 зимних курток, в том числе джемпера и пальто, собранны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чиновниками из пяти городов, в том числе Кёнгидо Коян, Соннам, Кимпхо, Почхон и Паджу.

В частности, отдел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и семейного мультикультур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Кёнги установил ящики для пожертвований зимней верхней одежды на 4-м этаже пристройки северного здания и на первом этаже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здания библиотеки юж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го здания

в которых были собраны пожертвования.

Зимнюю верхнюю одежду, подаренную провинцией Кёнгидо, стирают, проходит химчистку, а организатор регистрирует и размещает их на веб-сайте www.lovecoat.co.kr

Иностранные жители могут после 12 октября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а получение до двух единиц верхней одежды, выбрав понравившиеся на сайте.

Верхняя одежда - это джемпера, пальто и пуховики, они разнообразны как для мужчин так и для женщин, дл

я взрослых и детей.

Ким Гю Сик, глава отдела труда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 сказал: «Я надеюсь, что это поможет иностранным соседям в сложной ситуации связанной с Corona 19. В будущем я буду активно принимать участие в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сти и буду стараться для обездоленных и рабочих».

Пожертвованная верхняя одежда будет выстирана и доставлена иностранным гражданам из расчета две единицы на человека через веб-сайт (www.lovecoat.co.kr). <한글 기사 지번호 2면>

“결혼이민자에게 다양한 음식 배우며 소통해요”

안산다가, 지역주민 대상 다가온 ‘다런치타임’ 운영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문숙현)는 다문화 가족 교류·소통공간 다가온에서 지역주민과 결혼이민자들이 함께하는 ‘다런치타임’(사진)을 진행한다.

‘다런치타임’은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음식을 소개하고, 센터를 알리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23일부터 시작됐다.

센터 관계자는 “결혼이민자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고, 음식문화에 대해 설명하며 지역주민들이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12월 초까지 운영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결혼이민자-주민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다가온에서는 그 외에 바느질 자조모임, 예뻐맘씨(양재수업) 등 결혼이민자 및 지역주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0월 19일과 26일에는 임신부 대상 애착인형 만

들기 프로그램으로 ‘안녕, 아가야 널 위해 준비했어’가 다가온에서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원격화상 교육(ZOOM)으로 진행됐다.

‘안녕, 아가야 널 위해 준비했어’는 임신부 다문화가정 10명, 지역주민 임신부 2명을 대상으로 1회기인 10월 19일에는 ‘애착인형 키트 만들기’, 10월 26일에는 완성된 키트를 온라인을 통해 공유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안산다가는 10월 28일부터 11월 19일까지 ‘바느질 자조모임’도 운영하고 있다.

국가별 결혼이주여성과 지역주민 바느질 자조모임으로 화~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1층 꿈나눔 카페에서 진행되고 있다.

홈패션 강사의 지도로 핸드폰 가방 만들기가 진행되며 자부담 5000원을 내야 한다. 참가자는 마스크 착용해야 한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도 참여해요, ‘행복한 가족사진 공모전’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가족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출산 인식개선을 통한 시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행복한 가족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가족사진 공모전은 11월 20일까지 실시되며 대상 주제별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사랑스런 아이의 출생 및 성장 ▲육아하는 다양한 아빠 ▲다자녀·다세대·온가족이 함께 하는 행복한 가족사진 ▲출산장려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등이다.

공모전에는 다문화가족을 비롯해 안산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출품작품은 가족당 2점 이내로 제한한다.

참가신청서와 사진 파일 등의 신청서는 안산시 여성가족과 가족사진 공모전 담당자 메일(gsosopia@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4개 부문 각 7점을 선정하며 수상작은 상금(10만원)을 부문별 구분 없이 균등하게 지급한다.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중 수상작을 발표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별도의 시상식은 하지 않는다. 선정된 작품은 저출산 인식개선과 가족친화사업 및 출산장려 홍보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외국인주민 안산문화체험 #3 「명 때리며, 가을 걷기」 참여 대상자 모집

-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로감 누적 및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색다른 걷기 행사를 통해 외국인주민에게 쉼 기회 제공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명 때리기 란?

‘아무 생각 없이 명하니 있다’는 속어로 이를 통해 현대인들은 뇌에게 휴식을 제공하며, 극심한 스트레스 속 기존 정보와 경험을 정리하고, 새로운 생각을 채울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짐.

◆ 사업개요

- 사업명 : 외국인주민 안산문화체험 #3 「명 때리며, 가을 걷기」
- 모집기간 : 2020. 10. 26. ~ 11. 11.(수)
- 모집인원 : 30명(각 기수 15명씩)
※ 선착순 모집으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 체험기간 : (1차) 2020. 11. 15.(일) / (2차) 11. 22.(일)
- 체험비 : ※ 무료
- 체험장소 : (1차) 노적봉 ~ 성호박물관 / (2차) 갈대습지공원
- 대 상 : 가을을 함께 걷고 싶은 20세 이상의 안산 거주 외국인주민
- 신청방법(비대면 신청) : 우편 또는 이메일
- 외국인주민이 개인 신청을 원칙으로 함.
- 아래 첨부한 ‘참가신청서’ [붙임 1]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
- 이메일 : ses5025@korea.kr
- 메일 확인후 신청인에게 통보(전화, 문자메시지)

◆ 기타사항

-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 취소 또는 연기될 수 있음.
- 문의사항 : 외국인주민지원과 지구촌문화팀 ☎ 031-481-3740

국가별 결혼이주여성·지역주민 바느질 자조모임

- 중국, 베트남, 일본, 캄보디아, 대한민국, 필리핀
- 태국, 몽골, 러시아, 네팔, 우즈베크, 인도네시아
- 미얀마, 카자흐스탄, 북한, 싱가포르, 기타 국가



바느질 자조모임

위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일시** 2020년 10월28일(수)~ 11월19일(목) 화요일~목요일 10:00 ~ 12:00 운영
- 장소** 1층 꿈나눔 카페
- 대상** 국가별 결혼이주여성·지역주민 회기 별(3~4명) 총 40명
- 내용** 1) 팀 별 신청서 작성(3~4명 구성)
*일주일 전 꼭 방문신청, * 1일 1팀 선착순 받음
• 핸드폰가방 만들기
2)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 강사** 송민희(홈패션 강사)
- 자부담** 5,000원
- 문의** 전화 유선: 지민주(031-599-1708)

마스크 착용은 필수 체온 37.5도 이상 일시 제한 될 수 있음.

시흥시 전국 27개 다문화도시들의 모임,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도시 선출!

외국인주민 5만 5103명으로 전체 인구의 10.1% ... 중앙정부와 협력체계 구축할 것

시흥시가 전국 27개 다문화도시들의 협의체인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의 회장도시로 선출됐다.

시흥시는 10월 16일 오후 구로청년공간 청년이룸에서 열린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제9차 정기회의에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신규 회장도시로 선출됐다.

이날 회의는 전국 27개 회원도시 단체장이 함께 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기존 회장도시인 안산시와 신규 회장도시 후보인 시흥시, 신규 회원 도시인 익산시, 서울시 임원 후보인 영등포구만 직접 참석하고, 나머지 회원 도시는 영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당초 어느 도시가 회장도시가 될 것인지에 대해 하마평이 있었으나 외국인주민 지원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시흥시가 극적으로 회장도시에 선출됐다.

이날 신규 회장도시로 선출된 임병택 시흥시장장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핵심 가치는 협력과 소통이 될 것”이라면서 “이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회원 도시 간, 또 중앙과 지방 간 소통과 협력 체계 구축의 모델로 자리매김해 외국인과 다문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임 시장은 또 “지난해 법무부와 체결한 협약에 이어,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 중앙정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회장도시로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흥시의 ‘인구 수 산정기준에 외국인주민 수 합산 건의’, 구로구의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시행 방안 개선’, 영등포구의 ‘학교 밖 중도입국청소년 적극 발굴 및 지원’, 천안시의 ‘코로나19 관련 외국인 통계자료 지자체 자료제공 절차 간소화’ 등 10건의 다문화 관련 정책 안건이 논의됐다.

임 시장은 안건 설명에서 “외국인주민 행정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행정기구 설치 인정기준의 인구산정에 외국인주민 수는 포함되지 않아 실제 대응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외국인주민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상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외국인주민 수를 합산한 실제 행정수요 기준에 맞는 행정기구 설치를 통해 내국민 및 외국인주민

모두를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흥시는 2020년 9월 30일 기준 인구 54만 8108명 중 외국인주민이 5만 5103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인구의 10.1%에 달하는 것으로 정왕본동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흥시는 지역사회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복리를 위해 시흥시건강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등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민선 7기 들어서도 다양한 다문화 이주민 정책으로 외국인주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지방자치법 152조를 근거로 외국인 주민이 1만명 이상인 27개 지방자치단체들이 함께 다문화정책을 공유하고 발전적인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 2012년 4월 협의회 발족과 함께 첫 발을 내딛었다.

송하성 기자



숙박과 여행 할인 지원 재개, 외국인주민도 내국인과 같이 이용해요

기본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며 이용해야 ... 크리스마스와 연말은 할인 기간 제외

정부가 지난 8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중단했던 숙박 및 여행 할인권 지원사업을 순차적으로 재개한다. 다만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경우 사업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방침이다.

우선 28일부터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다시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 및 근로자를 모집해 '근로자휴가사업 전용 홈페이지'에서 상품 예약을 받는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언제든 사업이 중단될 수 있음을 알리고,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비대면 관광지 100선'을 활용한 관광상품으로 휴가지역이 분산될 수 있도록 한다. 여행 할인권은 30일부터 예약이 시작됐다. 온라인 운영사 타이드스퀘어(투어비스)를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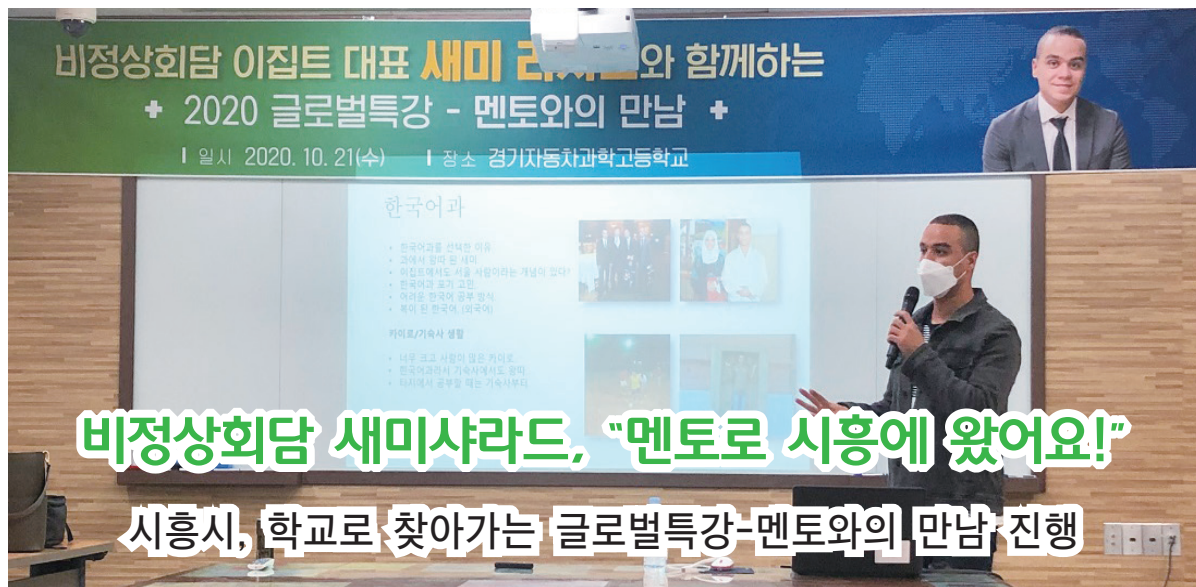
해 공모로 선정된 1000여 개 여행상품(337개 여행사)을 예약하면 약 30%, 최대 6만 원 규모로 할인을 제공한다. 여행상품은 철저히 지역을 분산해 선정했다. 여행 인솔자를 방역책임자로 지정해 단체이동 시 확산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숙박 할인권은 11월 4일부터 온라인 숙박예약 사이트 27곳을 통해 받을 수 있다. 7만원 이하 숙박 시 3만원, 7만원 초과시 4만원의 할인권을 제공하며 예약 즉시 사용할 수 있다. 방역을 위해 크리스마스와 연말(12월 24~31일)은 할인권 사용 기간에서 제외했다.

유원시설은 11월4일부터 인터파크 사이트를 통해

최대 60%를 할인받을 수 있다. 특정 시설로 이용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원시설 규모별로 할인을 배분했다. 수도권 이용인원 50% 제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시행할 예정이다.

최최근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산발적인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소비 할인권 재개에 우려가 있으나 관광업계가 더욱 철저히 방역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할인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유명관광지 보다 여행예보 서비스 등을 활용해 한적한 관광지 위주로 예약하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중국어 34면, 베트남어 48면, 러시아어 36면, 일본어 21면> 송하성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10월 21일 관내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진행되는 청소년국제교류사업 ‘글로벌특강-멘토와의 만남’ 강연에 방송인 새미샤라드를 초청했다. ‘글로벌특강-멘토와의 만남’은 2014년부터 시작한 시흥시 대표 청소년국제교류사업으로 해외봉사, 세계여행, 국제기구 등 다양한 주제의 국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꿈의 멘토’를 직접 학교로 초청하여 생생한 경험담을 공유하고 더 넓은 세계에서 진로탐색의 계기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초청된 새미샤라드(Samy Mohamed Rashad)는 이집트 만수라 출신이다. 한국어학과를 졸업하고 교육부 초청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2013년에 한국으로 유학 온 것을 계기로, 현재는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생활 8년 차 이집트 대표 민간외교관이다. 그는 특히 JTBC 비정상회담에서 이집트 대표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MBC every1 대한외국인에도 출연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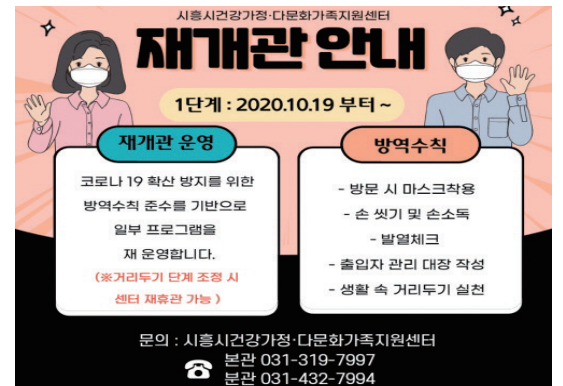
는 등 다양한 방송을 통해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렸다. 이날 특강에서는 새미는 “한국을 좋아해 한국이름을 ‘정새미’로 지을 만큼 한국을 사랑한다”며 유창한 한국어 실력을 뽐냈다.

특강에서는 ‘나를 넘어 내 곁에 있는 이웃사람, 이웃마을, 이웃나라’에 대해 글로벌 시대 세계문화와 다양성 이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시흥시 각 학교의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관점과 정보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글로벌특강은 올해 12월까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관내 11개교에서 실시간 라이브 영상 특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1년도 글로벌특강-멘토와의 만남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원클릭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고 기타 문의 사항은 시흥시청 청년청소년과(031-310-3613)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놀아줘! 홈즈-갤러리편 참가자 모집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1월에 진행되는 ‘놀아줘! 홈즈- 갤러리편’ 참가자를 모집한다.

시흥시 내 자녀와 거주하는 가족 100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자녀를 위한 미술놀이키트, 부모를 위한 LED 무드등, 조부모를 위한 수채화 그리기, 온 가족이 함께하는 스트링아트로 꾸러미를 구성해 진행하게 된다.

신청은 11월 5일 오후 12시까지 받으며 꾸러미는 11월 11일~1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오후 3시부터 5시, 오후 6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이뤄진다.

수령장소는 센터 1층이며 11월 18일까지 작품활동 사진 5장과 활동 영상을 메일(cogntion_13@shfc.kr)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센터(031-43207994, 070-7119-0462)로 하면 된다. 신청은 홈페이지(노차쇼.familynet.or.kr)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우리가 들어줄게요, 함께 나눠요.

"상담 프로그램 안내"

생활속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거나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한 대상자를 위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가족상담 개인 또는 가족이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전문상담 서비스	이동상담 학교, 유관기관 연계로 이동제한이 있는 이용자를 위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무료법률 상담 다양한 법률문제를 상의하고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는 1:1 서비스
--	--	--

운영방법

접수방법 **전화및내방접수** > **사전예약** > **상담실시**

지원대상 시흥시민 누구나

신청기간 상시접수

이용시간 프로그램별 진행시간이 상이하므로 사전 전화 접수 필수

상담비용 무료(단, 가족전문상담의 경우 무료회기 이후 유료상담가능) ✓

문의 ☎ 031)319-7997, 317-4516(내선 5번) 가족상담팀

※ 한국어 의사소통이 다소 어려운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의 경우 통역지원도 가능합니다.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오늘, 우리, 특별한하루

놀아줘! 홈즈-갤러리편

구성 꾸러미	미용놀이키트	LED 무드등	수채화 그리기	스트링아트
꾸러미 연령	자녀	부모	조부모	온가족함께

- 신청기간: 2020.10.26(월)~11.5(목) 오후 12시까지 *11.6(금) 최종 참여자 개별 문자발표
- 꾸러미배부일: 2020.11.11(수)~11.13(금) *직접수령 11:00~13:00, 15:00~17:00, 18:30~20:30
- 참여기준: 시흥시 내 자녀와 거주하는 가족 100가정 *다문화가족은 놀아줘!홈즈-갤러리편에 참여하세요. (중복참여불가)
- 수령장소: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본관 1층 (정왕동 1187)

미션

2020.11.18(수) 18시까지 메일 제출 (cogntion_13@shfc.kr)

필수미션: 작품활동 사진 5장 메일 제출

선택미션: 활동영상 메일 제출 (미션지를 확인해주세요.)

* 선택미션 참여가정에게는 **추가키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문의 031-432-7994, 070-7119-0462

신청방법 홈페이지 (shcity.familynet.or.kr) ,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Дети иностранцев, проживающие в Кёнгидо, так же получат поддержку на расходы по уходу за детьми и по лучению образования Нури.

22 числа были приняты `` Частичная поправка к Постановлению о поддержке иностранных жителей Кёнгидо " и `` Частичная поправка к Постановлению о продвижении и культур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управления образования Кёнгидо ", инициатором представителем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комитета по образованию Совета Кёнгидо Сонг Джун Мо (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Ансан 5). Окончательное решение было принято на 2-м пленарном заседании.

В результате , дети иностранных семей в возрасте от 3 до 5 лет, которые проходят дошколь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Нури, законно проживающих в Кёнгидо, будут получать поддержку на расходы по уходу за детьми и на образование, как и корейцы. Это первый случай среди 17 местных органов власти.

Ранее депутат Сон Джун Мо изложил причину предложения, заявив: «Дети из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и иностранцев, которые на законных основаниях находятся в Корее, должны иметь возможность расти без дискриминации, не подвергаясь исключениям в рамках универсальной системы образования».

«Страна, ратифицировавшая Конвенцию ООН о правах детей ООН, обязана гарантировать право на проживание, образование и защиту детей, независимо от статуса их родителей». Далее отметил: «Иностранцы облагаются налогом так же, как и корейцы, но исключены из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и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учебной программы Нури».

Два пересмотренных постановления распространяются на поддержку детей из семей иностранцев в поддержку программ для центров дневного ухода за детьми и детских садов в Кёнгидо. Для детей, обучающихся в текущем курсе Нури, в детских садах и яслях предо-

ставляется 240.000 вон в месяц, 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детских садах - 45.000 вон в месяц.

Кроме того, «Частичная поправка к Постановлениям о поощрении и мультикультур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Управления Кёнгидо» направлена на повышение восприимчивости и понимания мультикультурности людей, живущих в глобальную эпоху.

Депутат Сон Джун Мо сказал: « Проект по поддержке иностранных резидентов посредством внесения поправок в это постановление было долгожданным, это задача, которую необходимо решить как члену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го органа, осуществляющему законодатель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в Кёнгидо, регионе, где проживают наибольшее число иностранных жителей Кореи. Я надеюсь, что все горожане независимо от статуса "местный" или "иностранец", вырастут в зрелых членов общества, живущих вместе ». Интерес и усилия депутата Сон Джун Мо по поддержке образования для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и молодежи из иммиграционной среды возникли не вчера и не сегодня.

В прошлом году депутат Сон Джун Мо в своем 5-ти минутном выступлении на собрании в Управлении Кёнгидо: «Чтобы получить достой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в Кёнгидо, необходимо поделить философию и ценностями образования в Кёнгидо и с учащимися из разных культур. Он отметил, что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эффект может быть увеличен, если школьники из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будут обучаться и проводить время вместе с корейскими детьми ». <한글기사 1면>

Усилия депутата Сон Джун Мо проявляются каждый год, в итоге на 3-й Корейской премии за права мигрантов, состоявшейся в июне, он получил главный приз в области рег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다문화가족도 2021년까지 감면 받아요

경기도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감면키로 결정, 경기도민의 신청을 받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안 대책'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서민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했을 때 내는 세금인 취득세는 주택이 1채만 있는 경우 6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가격의 1%,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주택은 2%, 9억원 이상 주택은 3%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6억원 짜리 주택을 샀다면 600만원, 10억원 짜리 주택을 샀다면 3천만원의 취득세를 내야하므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혼인여부, 연령에 상관없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누구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는 신혼부부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취득세의 50%를 감면했습니다.

경기도민의 경우 주택가액에 따른 감면을 확대에 따라 주택 취득 당시 가액 1억5천만 원 이하의 취득세 면제, 1억5천만 원 초과 4억 원 이하는

취득세의 50%가 감면됩니다.

전용면적 60㎡ 이하였던 면적 제한도 사라져 주거면적에 대한 선택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또 신혼부부 감면의 경우 소득요건이 완화돼 외벌이 또는 맞벌이 여부에 관계없이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신청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주택 소재지 시군 세정부서에 취득세 신고·납부 시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아울러 정부의 부동산 정책발표일인 지난 7월 10일 이후 취득(잔금지급일 기준)했고,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도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기존에 신고·납부했던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가구 1주택으로서 3개월 이내에 거주를 시작해야 하며 3년간 상시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 다른 용도(임대 등)로 사용한 경우에는 감면받았던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중국어 35면, 베트남어 13면, 일본어 22면, 태국어 33면>

송하성 기자

외국인과 법인의 주거용 토지 시흥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10월 26일자로 시흥시 전체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지정 공고했다.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20년 10월 31일부터 2021년 4월 30일로 6개월이며,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외국인, 법인 등이 규제 대상이다.

이번 지정은 외국인 및 법인 등의 토지 투기를 차단하고 부동산(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경기도 방침에 따른 것이다.

시흥시는 올 7월 4일에도 기획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개발제한구

역 내 임야 및 호조별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지정으로 시흥시 토지거래허가지역은 기 지정된 54.74㎢(시흥시 면적대비 39%)과 외국인과 법인 등의 주거용이 시흥시 전역에 걸쳐 추가됐다. 시흥시 토지거래허가 문의는 시흥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031-310-3823)으로 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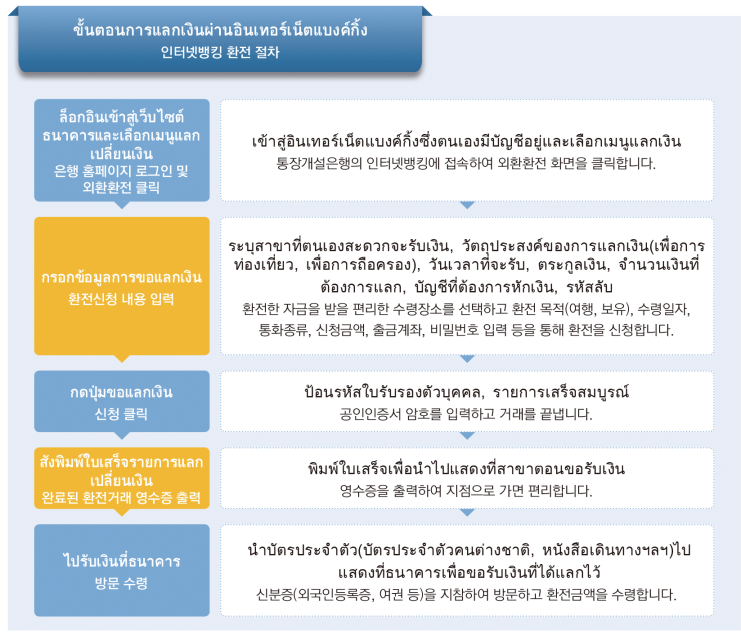
최근 한국사회에는 부동산 문제로 인해 여러가지 갈등이 크다. 외국인 주민도 이러한 변화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김영의 기자

(2) การแลกเปลี่ยนเงินผ่านอินเทอร์เน็ตแบงก์กิ้ง

เป็นการทำการแลกเปลี่ยนเงินผ่านอินเทอร์เน็ตแบงก์กิ้งและลูกค้าระบุสาขาที่ตนเองต้องการจะไปรับเงิน การแลกเปลี่ยนเงินผ่านอินเทอร์เน็ตแบงก์กิ้งนั้นลูกค้าจะแลกเงินในอัตราพิเศษกว่าเมื่อเทียบกับการแลกที่สาขาโดยตรง หลังจากที่ได้ทำการขอแลกเงินผ่านอินเทอร์เน็ตแบงก์กิ้งแล้วจะต้องไปรับเงินตราต่างประเทศที่แลกได้ภายในเวลาที่กำหนดไมเช่นนั้นเงินที่แลกได้จะถูกแลกเปลี่ยนเป็นเงินเกาหลีอีกครั้งและฝากกลับเข้าบัญชีเดิม ซึ่งในกรณีเช่นนี้ลูกค้าอาจเสียประโยชน์จากอัตราแลกเปลี่ยนที่เปลี่ยนไป นอกจากนี้ยังมีบางสาขาที่ไม่มีบริการแลกเปลี่ยนเงินผ่านอินเทอร์เน็ตแบงก์กิ้ง จึงควรตรวจสอบให้ดีก่อนใช้บริการ

(2) 인터넷뱅킹 환전

인터넷뱅킹을 통해 환전신청을 하고, 고객이 미리 지정한 지점에서 환전한 금액을 수령하는 서비스입니다. 인터넷뱅킹으로 환전하는 경우 은행창구보다 환율을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환전을 신청한 이후 일정기간 내에 지점을 방문하여 외화를 수령해야 하는데 만약 수령하지 않는 경우 환전 시 출금했던 계좌로 재환전 되어 입금처리 됩니다. 이 경우 환율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한편 일부 은행에서는 인터넷뱅킹 환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ภาพการแลกเปลี่ยนเงินผ่านอินเทอร์เน็ตแบงก์กิ้ง



2. การโอนเงินไปต่างประเทศ

การโอนเงินไปต่างประเทศคือการโอนเงินจากประเทศที่ตนพำนักไปยังอีกประเทศหนึ่ง มีกรณีที่ต้องผู้ที่เกี่ยวข้องเข้ามามีส่วนเกี่ยวข้องในการโอนเงินไปให้ครอบครัวผ่านโบรกเกอร์ที่ติดกฎหมายและตกเป็นเหยื่อการโกงหรือหลอกลวงอยู่บ่อยครั้งจะเป็นพิเศษ การเสียค่าธรรมเนียมเพื่อโอนเงินผ่านธนาคารหรือสถาบันการเงินเป็นวิธีโอนเงินไปต่างประเทศที่สะดวกและปลอดภัย การโอนเงินไปต่างประเทศสามารถทำได้โดยการเลือกธนาคารใดธนาคารหนึ่งที่จะดำเนินการและจะโอนเงินผ่านธนาคารที่เลือกเท่านั้น หากยอดเงินโอนมีจำนวนไม่เกิน 50,000 ดอลลาร์สหรัฐต่อปีจะสามารถโอนได้โดยไม่ต้องมีเอกสารเพิ่มเติม แต่หากยอดเงินโอนต่อปีเกิน 50,000 ดอลลาร์สหรัฐก็จำเป็นต้องแสดงหลักฐานเพิ่มเติม เช่น สลิปเงินเดือน, บันทึกรายการแลกเปลี่ยนเงินหรือเงินฝาก เป็นต้น

2. 해외송금

해외송금은 현재 거주하는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돈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에 처음 온 이주민 중에 사실 브로커를 통해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간에 돈을 가로채고 사라지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 돈을 주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내면 해외에 지정한 통장으로 돈을 빠르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해외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은행을 외국 환 거래은행으로 지정하고 지정은행을 통해서만 송금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간 미화 5만불까지는 급여명세서 등에 대한 증빙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간 미화 5만불을 초과하여 해외로 송금할 때에는 급여명세서나 과거 원화환전 금액 등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การโอนเงินไปต่างประเทศผ่านเคาน์เตอร์ธนาคาร

เป็นวิธีที่โอนเงินไปต่างประเทศโดยเดินทางไปที่ธนาคารที่ธนาคารภายในเวลาทำการ เนื่องจากธนาคารเกาหลีไม่มีได้มีสาขาที่บัญชีลูกค้าของตนหรือในต่างประเทศ ดังนั้นการโอนเงินจึงต้องดำเนินการผ่านธนาคารกลางที่อยู่ในต่างประเทศ เมื่อธนาคารในเกาหลีได้รับคำสั่งโอนเงินจากลูกค้าก็จะส่งคำสั่งไปยังธนาคารกลางในต่างประเทศซึ่งจะดำเนินการส่งเงินต่อไปยังบัญชีผู้รับเงินปลายทาง เนื่องจากการโอนเงินไปต่างประเทศต้องดำเนินการผ่านธนาคารอย่างน้อย 3 ธนาคารทำให้ต้องใช้เวลาในการโอนเงินประมาณ 1-3 วัน และเนื่องจากการโอนเงินมีการดำเนินการหลายขั้นตอนตั้งแต่ระดับต้นจนถึงระดับสุดท้าย

1 은행창구를 통한 해외송금

은행 영업시간에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국내은행이 해외은행의 모든 계좌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외 중개은행을 통하여 송금하게 됩니다. 국내은행이 송금신청을 접수하면 외국 중개은행을 통해 해외 현지은행이 최종적으로 돈을 받을 사람에게 전달해줍니다. 해외송금은 최소 3개 은행을 거치므로 송금까지 보통 1~3일 정도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돈이 전달되므로 각 단계별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ค่าธรรมเนียมทั้งหมด จะมี 4 อย่าง ได้แก่ ค่าธรรมเนียมที่ธนาคารต้นทาง, ค่าโบรกเกอร์ในการส่งข้อมูลการโอนเงินไปยังธนาคารที่จะรับเงิน, ค่าธรรมเนียมสำหรับธนาคารที่ทำหน้าที่เป็นตัวกลางเชื่อมโยงธนาคารต้นทางกับธนาคารปลายทาง และค่าธรรมเนียมที่เกิดขึ้นที่ธนาคารปลายทางปกติค่าธรรมเนียมการโอนเงินไปต่างประเทศผ่านเคาน์เตอร์ของแต่ละธนาคารจะแตกต่างกัน ตั้งแต่ประมาณ 5,000 วอน ถึง 30,000 วอน ต่อรายการ, ค่าโทรเลข 8,000 วอน/รายการ, อัตราค่าธรรมเนียมที่เกิดขึ้นที่ธนาคารกลางและธนาคารปลายทางก็จะแตกต่างกันซึ่งขึ้นอยู่กับที่ทางกรณีจะมีค่าธรรมเนียมสูงกว่าค่าธรรมเนียมที่ธนาคารต้นทาง

따라서 수수료의 종류는 송금업무를 해주는 데가로 국내은행에 지불하는 송금수수료, 송금내용을 수취은행에 전달해주는 전신문(전신으로 보내는 내용을 적은 글) 발송 대가인 전신료, 국내 송금은행과 해외 현지은행을 중개해주는 데가로 해외 중개은행에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와 해외 현지은행에 지불하는 수수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은행 창구에서 해외로 송금할 경우 송금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다르나 전신료는 전신료 약 8,000원 수준입니다. 해외중개 수수료와 해외 현지은행 수수료는 은행마다 다르나 국내은행 수수료보다 많은 금액을 수수료로 청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ตัวอย่างการโอนเงินไปยังต่างประเทศอย่างผิดกฎหมายผ่านโบรกเกอร์

'3พันวอน/100ดอลลาร์'...จับคู่สมรสหลากรัณธรรมผู้ทำธุรกิจโอนเงินผิดกฎหมายในนามธนวิซิก

(แทกู-ย็อนฮันนิค) วันที่ 10 นายคิม(อายุ 48ปี) และคู่สมรส ซึ่งเป็นที่รู้จักในนาม 'ธนวิซิก'(ดำเนินการแลกเปลี่ยนเงินโดยไม่จดทะเบียน)ถูกกองสืบสวนอาชญากรรมระหว่างประเทศสถานีตำรวจแทกูตั้งข้อหาดำเนินธุรกิจการโอนเงินอย่างผิดกฎหมาย(ฝ่าฝืนกฎหมายการซื้อขายเงินตราต่างประเทศ)ตั้งแต่เดือนเมษายนปีที่แล้วถึงเดือนกันยายนปีนี้นายคิมและภรรยาชาวเวียดนาม(อายุ 38ปี)ได้ดำเนินการโอนเงินให้กับแรงงานต่างด้าวจำนวนกว่า 500ราย รวมกว่า 1,400ครั้ง เป็นเงินทั้งสิ้นประมาณ3พัน6ร้อยล้านวอน ตำรวจคาดหมายหลังจากที่โอนเงินเข้าบัญชีปลอมแล้วได้แปลงเงินโอนไปให้พรรคพวกซึ่งอยู่ในเวียดนามบัญชีละ1หมื่นดอลลาร์โดยรับค่าธรรมเนียมการโอน 3,000วอนต่อ100ดอลลาร์ รวมเป็นเงินทั้งสิ้นกว่า108ล้านวอน

ศาลสรุปกรณีสืบสวนคดี

'100달러에 3천원'...환치기 다문화 부부 검거

(대구-연합뉴스)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0일 일명 '환치기'(무등록 외국환 업무)로 불리는 불법 송금을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김모(40)씨 부부를 불구속입건했다.

김씨는 베트남 출신의 아내(38)와 함께 지난해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베트남으로 송금을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 500여 명에게서 1천 400여 차례에 걸쳐 36억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뒤 베트남 현지에서 있는 일당에게 1만달러씩 나눠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00달러당 3천원 가량의 수수료를 받아 모두 1억 8000만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Family Connection
Life Cycle Empathy-UP

Multi-child Family Reduction Support

each department-in-charge

Business name	Eligible for Support	Reduction Details	Application period and method	Department-in-charge
Electricity Fee	· 2016.12.1. Generations with childrenless than one year after irth · Households with 3 or more children · Households with 5 or more children	30% reduction per month for one year starting from the month of application (within 16,000 won)	at any time and within a year after birth (Use phone and fax)	Korea Electric Power Corp. (Without Country Number 123)
City Gas Fee	·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households with three or more members	Amount used for cooking heating(During winter, 6,000 won/month, other 1,650 won/month)	Samcheon-ri City Gas and Local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Calls and Visits)	Samcheonri City Gas Co., Ltd. (1544-3002)
Car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tax	·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households with three or more members	exemption from acquisition tax on one car acquired by 2021(For vehicles based on capacity)	Vehicle registration business(Visit)	Collection and Vehicle Taxation Team (310-5152)
Community Health Center Medical expenses, fee, etc.	· children under the age of 15 households with three or more members	Exemption	at any time	Health policy (310-5817)
water and sewage fee	· children under the age of 15 households with three or more members	Of the current water bill, the corresponding rate is 10m3.	at any time	Water Supply Department (310-6113)
Public parking Fee	· children under the age of 15 households with three or more members	Free 2 hours of public parking lot, then 50% reduction in parking fee	Gyeonggi I-plus card a car in possession	Siheung City Construction Co., Ltd. Transportation Business Team(488-6877)
training, etc. Fees	· children under the age of 15 households with three or more members	fees, fees, etc. Exemption or 50% reduction(Ask each facility before proceeding)	· Each Resident Self-Governing Center · Women's Vision Center · Siheung-ABC Happiness Learning Town · Sports Facilities · Lifelong Learning Center	Lifetime (310-2513) Women (310-6003) ABC (310-2063) Physical Educator (310-2145)

Emergency Welfare Disposal Expenses Support

Customized Welfare Team at respective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 **Eligible for Support** : Where a member of a household receives emergency support (residential benefits) has given birth (including expected birth)

*** in case of a crisis**

- In case the main income earner dies or loses income for reasons such as leaving home, missing, imprisonment
- In case of serious illness or injury
- Where he/she has suffered domestic or sexual violence from a member of a household
- Where it is difficult to live in a house or building inhabited by fire, etc.;

*** Other cases determined and announc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 In case of divorce from the main income earner
- When the power is cut off
- Where it is difficult to make a living due to substantial business difficulties, such as holiday breaks, business closures, or fires at the main or secondary income earners.
- If it is difficult to earn a living due to unemployment of the main or secondary income earners
- Where it is impracticable to make a living by being released from prison
- If you are homeless due to neglect, abandonment, or difficulty in living.

· **Selection criteria**

- Income standard: less than 75% of median income (1.31 million won for 1 person and 3.56 million won for 4 persons).
- Property criteria

Region	metropolis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Rural villages
criteria amount	188 million won	118 million won	100 million won

· **Support details** : 700,000 won (1,000,000won for twins) for the cost of dissolution.

Family Connection
Life Cycle Empathy-UP

Psychological therapy support for foster children of adopted families

Foster Family Care support center(1577-1406)

· **Eligible for Support** :

- Children with a foster period of one month or more and adoption period (usually aged 2 to 18 years)
- Children who do not receive medical support from the public or the private sector (excluding redundant assistance)
- Children who have had past experience in psychotherapy but have not been able to solve problems
- Children who have been treated in the past but have other problems

· **Support details**

- Assist children who grow up on foster care to grow healthy
- Payment of necessary programs and treatment costs depending on the symptoms of the child to be treated.
- ※ (Program) Play therapy, art therapy, music therapy, group therapy, cognitive therapy, speech therapy, e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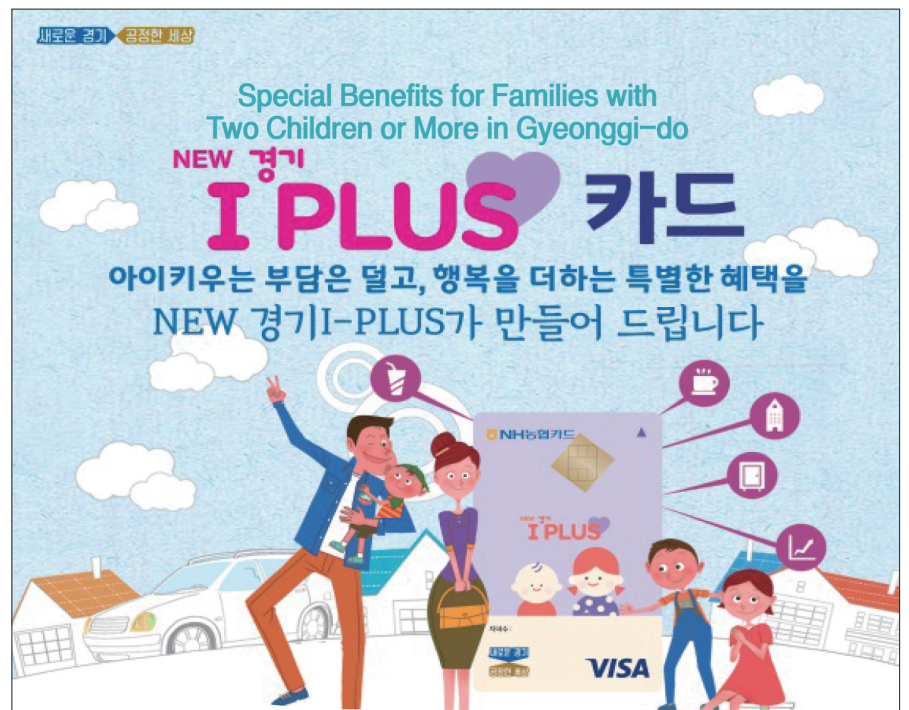
· **Application method** : Visit the local Foster Family care support center

· **Facilities nearby**

Name of Institution	Location
Gyeonggi Child Foundation and Foster Family Care Center	7F, Seorin Plaza, Yeongtong-ro 214beon-gil, Yeongtong-gu, Suwon-si, Gyeonggi-do
Northern Gyeonggi Foster Family Care Center	2nd floor, 30-11 Simin-ro 19beon-gil, Uijeongbu-si, Gyeonggi-do
Jung-Ang Foster Family Care Center	2F, 119, Baekbeom-ro, Mapo-gu, Seoul

Family Connection
Life Cycle Empathy-UP

English



NEW Gyeonggi IPLUS Card

Gyeongdo (031-310)/Nonghyup (1644-4000)/BC Card(1588-4000)

· **Issued To** : Living in Gyeonggi-do as of the date of application, the youngest child is one of the parent of two or more children under the age of 15. (Including currently pregnant women to their second child)

· **Application Method** :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NAC) Business Offices Application (bring Certificate of identity, resident registration, etc.)

· **Annual Fee** : 7,000 won for domestic/9000 won for domestic/abroad use

· **Card Benefits**

- Affiliate Cooperative Services * Field discounts
- Credit/Check Card Supplementary Service ** On-site or Billing Cash Discount

· **Terms of Service**

Credit Card Service	Check Card Service	Affiliate Cooperative Services
NEW Gyeonggi IPLUS a credit card holder	Gyeonggi IPLUSa check card holder	Gyeonggi IPLUSCard all those who have it(Credit/Check card)

For the past month, the lump sum/ installment plan will be provided if the amount of domestic use is over 300,000 won. (However, performance is not checked for one month from the date of card use registration.)

All discounts regardless of usage performance

시흥시보건소 컬러 밥상 체인지

다문화가족 밥상 고민, 온라인으로 해결해요



다문화가족을 비롯해 가족의 식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끼니때마다 고민하게 된다. 하지만 시흥시의 ‘우리 집 컬러 밥상 체인지’를 이용하면 고민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다.

우리 집 컬러 밥상 체인지는 11월 첫째 주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진행할 예정

이다. 총 6차시에 걸쳐 식품 고유에 빛깔인 6가지 컬러(빨강, 노랑, 초록, 보라, 검정, 흰색)를 주제로 진행된다.

컬러 밥상 체인지는 시흥시보건소 건강도시과 공식계정(@healthcity_sh)인 인스타그램과 시흥시 ‘집콕COOKING’ BAND(<https://band.us/band/48767089>)를 이용해 매 차시마다 컬러별 영양 정보와 레시피를 제공하고, 시민의 메뉴에 대한 고민을 해소하고자 1주일 식단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온라인 상담을 활용해 보건소 영양사와 1:1 맞춤 상담도 함께 진행하며, 채소와 과일을 싫어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편식 예방교육과 음식명상 등 다양한 영양서비스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宿泊と旅行割引支援再開、外国人住民も利用を基本防疫守則を順守して利用...クリスマスと年末は除外

8月コロナ19の流行拡大に伴い中断していた宿泊、旅行割引券支援事業を順次再開する。ただしコロナ19が再流行する場合、事業を取り消すか延期する方針だ。

まず28日からは勤労者休暇支援事業を行う。参加を望む企業、勤労者を募集し、勤労者休暇事業専用ホームページで商品予約を受け付ける。

コロナ19状況により、事業中断を念頭におきつつ、韓国観光公社が選定した‘非対面観光地100選’を活用した観光商品として、休暇地域が分散されるようにした。

旅行割引券は30日から予約が始まる。オンライン運営社タイドスケアー(ツアーバス)を通じて公募で選定された約1000の旅行商品(337旅行社)を予約すると、約30%、最大6万ウォン規模で割引される。旅行商品は徹底して地域を分散、選定した。旅行引率者を防疫責任者に指定、団体移動時、拡散事例が発生しないように、ソーシャルディスタンスとマスク着用など、基本防疫守則を順守する。

宿泊割引券は11月4日からオンライン宿泊予約サイト27ヶ所で申し込む。

7万ウォン以下の宿泊は 3万ウォン、7万ウォン超過は4万ウォンの割引券を提供し、予約時に使用可能。防疫のためにクリスマスと年末(12月24~31日)は割引券使用期間から除外される。

遊園施設は11月4日からインターネットサイトで最大60%の割引。特定施設の利用集中を防ぐために、遊園施設規模別に割引券を配分した。首都圏利用人員50%制限など、防疫守則を順守して施行する。

チェ・ボグン文体部観光政策局長は、“散発的なコロナ19集団感染が発生している状況で、消費 割引券再開には不安もあるが、観光業界が徹底した防疫を点検する機会となるよう、最善を尽くす”とし、“消費割引券を利用消費者も有名観光地より、旅行予報サービスなどを活用し、なるべく空いている観光地を予約されるようお願いする”とした。

<한글 기사 16면>

번역 아키오 객원 기자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한국어, 한국문화

95. 한의원과 침

대화-한의원에서



안진숙

은숙 : 많이 아파? 다리가 많이 불편해 보여.

메이 : 발목이 많이 아프지만 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뼈는 괜찮대요.

민정 : 아마 발목이 빠져서 아플 거야. 나도 작년에 넘어진 다리가 아직도 아파.

은숙 : 이 한의원 원장님이 아주 명의시니까 잘 진찰해 주실 거야.

메이 : 오늘 같이 와 주셔서 고마워요. 한의원은 처음이라 좀 무서웠거든요.

원장 : 어디가 불편하세요? 발목이랑 또 더 아픈 곳이 있나요?

메이 : 어제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어서 발목이 아파요. 어깨도 좀 아프고요.

원장 : 잠깐 맥을 짚어 볼 게요. 다리도 한번 쪽 껴 보세요. 발목이 좀 부어있어요. 오늘 침을 좀 맞고 한약을 먹으면 되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민정 : 발목이랑 또 더 아픈 곳이 있으면 지금 원장님께 말해.

메이 : 아기 낳고 나서부터 계속 손발이 차고 어지러워요.

원장 : 그건 기혈이 허약해지고 어혈이 정체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한약을 처방할 게요.

메이 : 감사합니다. 그동안 걱정만 했는데 열심히 치료를 받을 게요.

민정 : 원장님, 저도 작년에 치료받던 다리가 다시 아픈데 저도 물리치료를 좀 받고 싶어요.

원장 : 그러면 제가 침을 놓아 드릴 테니까 물리치료까지 받고 가세요.

은숙 : 저희 남편 금연을 위해 금연침을 맞고 싶은데 내일 같이 올게요.

원장 : 지난 번에 남편 분 오셨을 때 혈압이 높아서 술도 줄이라고 했는데 어떠세요?

은숙 : 술도 담배도 안 줄이고 있어요. 원장님이 따끔하게 혼 좀 내주세요.

메이 : 한의원에서 치료하는 분야가 상당히 많네요. 저도 상담하고 건강관리를 잘 해야겠어요.

해설

안녕하세요.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실입니다.

오늘 대화에 나온 ‘침’은 ‘아픈 곳에서 멀리 떨어진 부위에 침 자극을 함으로써 경락을 자극하여 치료 효과를 더 좋게 하거나, 실제 통증 부위와 다소 떨어져 있지만, 근육이나 신경 지배가 연결된 부위를 자극해 치료 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서양의학에 기초한 병원을 방문하지만 병의 종류에 따라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표현 - 침

아픈 곳에서 멀리 떨어진 부위에 침 자극을 함으로써 경락을 자극하여 치료 효과를 더 좋게 하거나, 실제 통증 부위와 다소 떨어져 있지만, 근육이나 신경 지배가 연결된 부위를 자극해 치료 효과를 높이는 방법

- 한의학에서는 침, 뜸, 부항, 한약 등의 다양한 치료방법이 있습니다.
- 어깨에 통증이 심했는데 침을 맞고 나서 다행히 많이 나아졌습니다.

한국문화 - 한방치료

한의학은 인체의 구조·기능을 탐구하여 보건의 증진, 질병의 치료·예방 등에 대한 방법과 기술을 연구하는 의학의 일종이다. 한방치료의 범주는 전통적으로 침, 한약, 부항요법, 뜸 등이었으나 최근에는 약침, 침도요법, 추나, 전침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한의원도 의료보험이 확대 적용되어 보다 저렴하게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부천 다문화가족의 즐거운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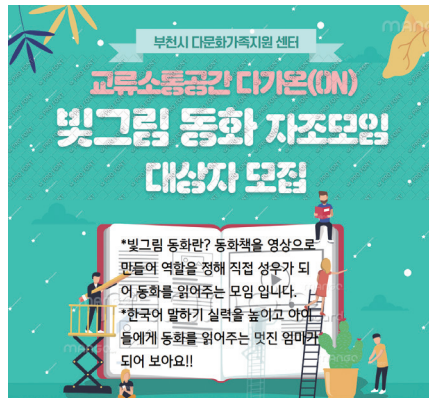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대상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만남이 어려워진 가운데 온라인으로 소통하며 서로의 일상을 다독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한다.

#다양한 공예활동으로 소통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다가온은 11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공예 자조모임'을 운영한다. 공예 자조모임은 라탄 공예, 마크라메 공예, 양말목 공예 등을 다양하게 진행



하며, 사전접수를 통해 모집한 결혼이민자 10명을 대상으로 무료 진행된다.

라탄 공예는 월요일, 마크라메 공예는 금요일, 양말목 공예는 화요일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센터(담당 정임선/070-4130-2148)로 하면 된다.

#'성우가 돼 동화책을 읽어요'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다가온은 '빛그림 동화 자

조모임'을 10월 28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빛그림 동화란 동화책을 영상으로 만들어 역할을 정해 직접 성우가 되어 동화책을 읽어주는 모임으로, 한국어 말하기 실력을 높이고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활동이다.

빛그림 동화를 배우고 공연하는 자조모임으로 사전접수를 통해 결혼이민자 10명을 선착순 모집했다. 무료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센터(담당 정임선/070-4130-2148)로 하면 된다.

#효과적인 자녀 독서지도 '다독다독'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자녀성장지원사업 '다독다독'(多讀) 1차, 2차 대상자를 모집한다.

'다독다독'은 자녀의 독서습관 향상과 자녀의 인성&사회성 발달 증진을 위한 놀이독서와 자녀에게 효과적인 독서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는 부모코칭, 엄마와 자녀가 함께하는 요리교실이

각각 진행된다.

자녀 대상 놀이독서는 10월 3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엄마 대상 부모코칭은 10월 31일과 11월 14일, 자녀&엄마 요리교실은 11월 7일 각각 진행된다.

초등학생 저학년용 둔 결혼이민자와 자녀 8가정을 사전 접수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된다.

#중도입국자녀반 온라인 교육 진행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중도입국자녀반을 지난 9월 7일부터 시작해 오는 12월 22일까지 진행한다.

한글 교육 등을 배우고자 하는 이주배경청소년은 센터를 꼭 방문해 보자.

교육은 월~목요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분반하여 기초반과 중급반이 진행되며, 웹엑스를 이용한 온라인 교육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센터(070-4457-6140)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初めて住宅を購入したら、取得税減免を申し込んで下さい"

住宅を購入した韓国籍取得多文化家族も2021年12月31日まで減免があります

京畿道が初めて住宅を購入した者を対象に、取得税を減免すると決定、京畿道民の申し込みを受け付けます。今措置は政府が発表した'住宅市場安定保安対策'の後続措置のうちの一つで、庶民 実需要者の税金負担緩和に目的をおいています。

住宅を購入する際に支払う税金の取得税は、住宅が1棟だけの場合は6億ウォン以下住宅は住宅価格の1%、6億ウォン以上9億ウォン以下の住宅は2%、9億ウォン以上の住宅は3%となっています。

6億の住宅を購入すると600万ウォン、10億ウォンの住宅は3千万ウォンの取得税となるので、決して小さな額ではありません。

改正案の主要内容を見ると、婚姻、年齢に関係なく、初めて住宅を

購入すると取得税減免を受けられます。以前は住宅を保有したことがない新婚夫婦が、婚姻した日から5年以内に4億ウォン以下の住宅を購入する際にのみ、取得税の50%が減免でした。

京畿道民の場合、住宅價額免率拡大によって住宅取得價額1億5千万ウォン以下は取得税免除、1億5千万ウォン超過4億ウォン以下は取得税の50%が減免されます。

専用面積60㎡以下であった面積制限もなくなり、住居面積に対する選択の幅も広がりました。また、新婚夫婦減免の場合は所得要件が緩和され、共働きなどに関係なく、夫婦収入の合計所得7千万ウォン以下ならば減額が受けられます。

減免申し込みは2021年12月31日ま

で、住宅所在地市郡稅政副署に取得税申告・納付時に申し込んでください。

あわせて政府の不動産政策発表日の7月10日以後に取得(残金支給日基準)し、減免要件を満す納税者も、減免申込所を提出すると既存に申告・納付していた取得税を返還されます。

ただし該当住宅を取得した日から1世帯1住宅で、3ヶ月以内に居住していなければならず、3年間常時居住を維持することが条件です。

もしこの要件を満していないか、常時居住期間が3年未満の状態であらば住宅を売却・贈与、他の用途(賃貸など)に使用した場合には、減免されていた取得税が追徴されることがあります。 <한글 기사 18면>

육아 아빠의 도전! 랜선 육아 골든벨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은숙)는 11월 21일 10시 30분부터 아빠의 도전! 랜선 육아 골든벨'을 개최한다. '아빠의 도전! 랜선 육아 골든벨'은 육아 정보, 상식, 관련 정책 및 육아종합지원사업 등을 재미있게 습득할 수 있는 온라인 퀴즈대회다.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부천시 관내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아빠 100명을 선착순 모집하고 있다. 고득점자 1명에게는 '최고의 아빠' 상이 수여된다. 최후의 10인은 최고의 아빠 1명을 포함한 고득점자 10명이다. 응원상도 준비되어 있다. 참가상은 참여자 모두에게 지급된다.

골든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032-322-868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 봄 행복한 우리 아이 사진 콘테스트를 진행한 바 있다.

이지은 기자

关于韩国生活,你想知道的都在这里 2020韩国生活指南上线

한국에 거주한지 얼마나 됐든 다양한 도움 받을 수 있는 2020한국생활안내서 개정판 안내



对于初来韩国的人来说,新的生活有太多未知,特别是因为结婚而跟随配偶来到异国他乡,新的生活总让人觉得茫然而不适应.由韩国女性家族部和韩国健康家庭振兴院一起为多文化家庭和外国人适应韩国生活而编写的韩国生活指南相信能够带来不少的帮助.这份生活指南每年都会更新,近日最新的2020年韩国生活指南上线了,将会印刷发放到韩国全国228个多文化支援中心.现在电子版已经发布到网站上了,有需要的话可以直接下载查看哦.

→ 点击进入多文化家庭支援中心网站DANULI / **다문화 가족지원 포털 다누리** www.liveinkorea.kr → 点击下载2020韩国生活指南

该指南主要涵盖了9个方面,分别为:

1,大韩民国简介

介绍了韩国的四季、节日、公休日等;

2,多元文化家庭及外国人支援服务

介绍了各个多元文化家庭和外国人支援机构(多元文化家庭支援中心、外国人人力支援中心、移民背景青少年支援中心等)以及他们能够提供的服务(包括韩语教育等等);

3,居留及国籍取得

包括永驻、国籍取得等的相关介绍和结婚移民者和亲戚的邀请等;

4,韩国文化与生活

介绍了韩国的家庭生活、饮食生活、居住生活、交通以及公共机构等;

5,怀孕与育婴

为孕妇提供的保健服务、疫苗接种、婴幼儿保育和幼儿教育;

6,子女教育

介绍了韩国的教育制度(小学、初中、高中、大学)以及青少年国际交流;

7,健康与医疗

包括健康保险、医疗补助制度、医疗机构、以及国家提供的健康体检介绍;

8,社会保障制度

国民基本生活保障、国民年金、紧急福利支援以及单亲家庭支援等;

9,就业与劳动

包括就业、职业培训、雇佣保险和产业灾害保险等的介绍。

小编在7、8年前刚来韩国时就好好看过一遍这份指南,当时印象最深刻的就是通过这份指南了解到了韩国有多元文化支援中心,在那里可以获得免费的韩语教育,并且为结婚移民者提供了许多丰富的活动和支援项目.现在在2020年再重新看这份更新的指南时,由于现在孩子在上幼儿园,并很快就要上小学了,因此以前没有仔细看的幼儿教育和韩国教育制度又好好地读了一遍,对孩子以后即将进入的教育体系也有一定的了解.相信许多在韩国生活了不少年的结婚移民者也会在生活中产生一些疑问,除了问其他人,也可以看看这本指南,如果还想知道更具体的答案,还可以拨打365日24小时接听的咨询电话1577-1366.小编觉得这份指南真的不错,但如果在每年更新时都能将更新的内容也另外罗列出来就更好了,也便于知道哪些内容不一样了。

한국에 처음 온 사람들에게는 새롭

게 부딪히는 삶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다. 특히 결혼 때문에 배우자를 따라 이국타향에 오게 되면 생활이 막연하게 느껴질 수 밖에 없다.

필자는 한국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족진흥원이 함께 펴낸 다문화가정과 외국인의 한국 적응을 위한 ‘한국생활지침서’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생활지침서는 매년 갱신되는 것으로 최근 2020년형 한국생활가이드북(지침서)가 새로 출간되어 전국 228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배포됐다. 현재 디지털 버전이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면 직접 다운로드하여 확인해 볼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클릭 (DANULI) 다문화 가족지원 포털 다누리 <http://www.liveinkorea.kr> → 2020 대한민국 라이프 가이드 다운로드 클릭

이 지침서는 총 9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다.

1, 대한민국 프로필

한국의 사계절을 소개하고, 명절, 공휴일 등을 알려 준다

2,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지원 서비스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지원기관(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인력지원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등)과 이들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한국어교육 등 포함)를 소개하고 있다.

3, 체류 및 국적취득

영주, 국적 취득 등 안내와 결혼이민자와 친척의 초청 방법 등을 알려준다.

4, 한국 문화와 생활

한국의 가정생활을 소개하고 식생활, 주거생활, 교통 및 공공기관 등을 알려준다.

5, 임신과 육아

임산부를 위한 복지서비스, 백신 접종, 영유아 보육 및 유아 교육 안내

6, 자녀교육

한국의 교육제도(초중고교 대학)와 청소년 국제교류를 소개하고 있다.

7, 건강 및 의료

건강보험, 의료 포함 치료급여제도, 의료기관, 국가가 제공하는 건강검진 소개

8, 사회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연금, 긴급복지지원, 한부모가족지원 등

9, 취업과 노동

취업과 직업훈련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소개.

필자는 7~8년 전 한국에 왔을 때 이 안내서를 봤다. 이 안내서를 통해 한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알아본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곳에서 무료로 한국어 교육을 받았다. 결혼이민자에게 다양한 활동과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제 2020년 이 갱신 매뉴얼을 다시 보았을 때,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니고 곧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때문에 그 동안 자세히 보지 않았던 유아교육과 한국 교육 제도를 다시 한 번 잘 읽어봤다.

앞으로 입학할 아이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 한국에서 여러 해 동안 생활해 온 결혼이민자들도 살면서 궁금한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 외에 꼭 이 안내 책자를 보길 바란다.

더 구체적인 답이 궁금하다면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다누리콜센터 전화 1577-1366으로 연락하면 된다.

현재도 매뉴얼이 정말 좋다고 생각하지만 매년 갱신할 때마다 업데이트된 내용을 따로 나열해 준다면 어떤 내용이 바뀌고 보완되었고 다른 점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다.

홍연연 경기외국인SNS기자단

다문화가족도 일자리재단 취·창업 활성화와 취업능력 향상 도전해요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경기도 여성들의 취·창업 활성화와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여성IT 포트폴리오 공모전’을 개최한다.

‘취·창업을 위해 준비한 IT분야 포트폴리오’를 주제로 하는 이번 공모전은 2개 분야로 웹·모바일, 출판, 3D, 일러스트, 이모티콘 등 디자인과 뮤직비디오, 단편 영화, CF광고, 패러디 등 영상 콘텐츠다. 응모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 중인 만

15세 이상 여성이거나 경기도에 있는 학교의 재학 또는 졸업한 여성, 도내 기업에 재직 중인 여성으로 개인 혹은 5인 이하의 팀을 구성해 응모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도 물론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1월 13일 오후 3시까지다.

온라인 웹하드에서 공모전 참가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 후 작품

과 작품설명서를 같이 올려놓으면 된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심사를 거쳐 대상 분야별 1명, 최우수상 분야별 1명, 우수상 6명, 장려상 20명 등 총 30명을 선정해 3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상금을 지급 예정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취창업을 위해 가장 먼저 한국어 실력을 쌓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더라도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면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www.gif.or.kr) 또는 온라인취업지원서비스 꿈날개(www.dream.go.kr)를 참고하거나, 일자리재단 여성새일팀(031-270-9772~3)으로 연락하면 된다.

<러시아어 11면>

송하성 기자

언택트 시대, 해외환자 '화상 진료' 시행해요

부천성모병원, 중증질환 수술환자로 확대 시행 예정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병원장 권순석)은 유방암 수술 후 귀국한 해외환자를 대상으로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수술 후 관리에 관한 화상 진료를 시작했다.

부천성모병원 여성센터, 유방암센터장인 송병주 교수와 국제진료센터 김주미 교수는 송병주 교수로부터 유방암 수술을 받은 러시아 환자 1명과 카자흐스탄 환자 1명에 대해 화상으로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수술 후 관리법에 관한 내용으로 지난 10월 14일 원격 진료를 진행했다.

이번 화상 진료는 2주간의 격리 기간 때문에 한국 방문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환자의 건강상태를 걱정한 국제진료센터와 여성센터, 유방암센터 의료진의 협력으로

이뤄졌다.

화상 진료를 한 환자 2명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송병주 교수가 수술한 유방암 환자로,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국제진료센터에서 전화와 이메일로 추적 관리를 해왔었는데 그 중 추적 검사가 불가피한 환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사전에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서 영상검사와 피검사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송병주 교수가 직접 확인하고 의료통역 코디네이터와 함께 그동안 걱정했던 문제나 어려움 등을 실시간 화상으로 묻고 답하는 시간으로 진행, 진료를 받은 환자들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연신 받았다.

부천성모병원 김상돈 국제진료센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원격 진료를 통해 안전하게 진료를 받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화상 진료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됐다”라며 “향후 암 환자를 비롯하여 중증질환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천성모병원 국제진료센터는 국내 거주 외국인과 해외에서 진료를 받고자 찾아오는 해외환자를 위해 영어, 러시아어 등 의사소통이 가능한 의료진과 코디네이터가 상주하여 진료, 입원, 검진, 수납 등 진료 전반을 지원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 가을산행도 하고 이벤트로 홍보물품도 챙기고



다문화가족도 가을산행으로 건강도 챙기고 이벤트에 참여하는 즐거움도 느껴보자.

부천시보건소는 지난 10월 15일부터 ‘다 함께 이겨내요! 코로나블루, 원미산·성주산 가을 산행 이벤트’를 개최한다.

부천시민이면 누구나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할 시민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단풍이 예쁘게 물든 원미산 정상과 성주산 전망의 숲에 걸린 ‘건강도시 부천 BI’ 현수막이나 안내문 앞에서 인증사진을 찍으면 된다.

인증사진을 찍은 후 부천시보건소 홈페이지 건강도시 가을산행 이벤트 창이나 개인 SNS에 사진을 게시하면, 부천시보건소에서 캐치볼, 줄안마기, 치약 치솔세트 등 건강생활 홍보물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보건소 홈페이지(pubhealth.bucheon.go.kr) 또는 부천시보건소 건강도시팀(032-625-4221~4222)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의 기자

Губернатор Кёнгидо Ли Чжэ Мён: «Кёнгидо - центр Кореи ... движение к справедливому миру» Проведение 3-й памятной церемонии дня гражданина Кёнгидо, 1000 лет истории Кёнгидо «Иностранцы так же заслуживают самоуверенность»

«Я надеюсь, что мы сможем создать новый Кёнгидо, справедливый мир с гордостью и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

17 октября в кампусе Gyeonggi Sangsang в городе Сувон прошла 3-я церемония «День гражданина Кёнгидо». На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сутствовало около 30 человек, в том числе губернатор Кёнги Ли Джэ Мён, член Национальной ассамблеи Пайк Хё Рён,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ета Кёнгидо Чан Хён Гук и вице-губернатор Ли Джэ Ган.

День гражданина Кёнгидо 18 октября связан с географическим расположением окраины Сеула, которую начали называть Кёнги в 1018 году во время династии Корё. Началось с того, что в 2018 году на 100-летие Кёнгидо, 18 октября был объявлен Днем гражданина Кёнгидо. В этом году из-за Corona 19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не проводились и проводились в небольшом масштабе.

Губернатор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Ли Чжэ Мён сказал в тот день в памятном обращении: «Владельцами Кёнгидо являются жители Кёнгидо. С момента вступления в должность мы гордимся тем, что сделали все возможное, чтобы бюджет и власть использовались исключительно для развития как граждан, так и Кёнгидо. В итоге были достигнуты успехи в разных

местах, так что жители теперь могут гордиться тем, что являются жителями Кёнгидо», - сказал он.

«В Кёнгидо проживает более четверти насел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нет необходимости говорить о важности Кёнгидо в таких областях, как экономическая мощь. Поскольку граничит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воссоединение, межкорейский обмен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также велика». Он подчеркнул: «Поскольку Кёнгидо теперь является твердым центр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а не окраина или окрестность, я надеюсь, что мы все чувствуем большую гордость и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чтобы соответствовать этому».

Кроме того, губернатор Ли сказал: «Девиз Кёнгидо - «новый Кёнгидо к справедливому миру», а справедливый мир - единственная мера, которая позволяет сообществу существовать без распада. Необходимо улучшить несправедливое положение слабых», - сказал он, призвав жителей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ета Кёнги сказал: «Сегодня День гражданина Кёнгидо приурочен к Фестивалю гражданской политики Кёнгидо. Сами граждане участвуют в решении социальных и политических вопросов, ищут решения. «Я думаю, что создание картины политики для будущего развития - это поистине авто

номия и демократия. Я сделаю все возможное для счастливой жизни граждан Кёнгидо».

В этот день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8 жителей были отобраны на премию «Житель Кёнгидо», которая вручается гражданам, внесшим сво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мест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он Джин Су, который активно участвует в продвижении музыкальной группы молодежи Кёнгидо, и Ким Вон Тхэ, который ухаживает за пациентами Corona 19 в больнице Сувон, как представители граждан Кёнгидо, вместе зачитали речь.

В этот раз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в честь Дня гражданина Кёнгидо, учитывая ситуацию с Corona 19 были отменены, такие как культурные представления и развлекатель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Не 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шло в небольшом масштабе с минимум приглашенных, не было недостатка чувства единства между жителями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Надеюсь что благодаря празднованию Дня гражданина Кёнгидо иностранные жители, также запомнят то что они являются гражданами Кёнги-до, и будут гордиться тем, что являются гражданами Кёнгидо.

<한글 기사 46면>

장울가 경기외국인SNS기자단

Những người ngoại quốc sống tại tỉnh Gyeong gi do cũng sẽ nhận được tiền hỗ trợ nuôi dạy và học tập của trẻ



Dự luật do Đại diện ủy ban tỉnh Gyeonggi ông Sung Joon Mo đề xuất, quyết định cuối cùng của Hội đồng tỉnh Gyeonggi

Ông Sung Joon Mo (Đảng Dân chủ, Ansan 5) của Ủy ban Hành chính Giáo dục tỉnh Gyeonggi-do đã đưa ra quyết định cuối cùng trong lần họp thứ 2 của hội đại biểu tỉnh Gyeonggi-do lần thứ 347 là "Dự thảo sửa đổi một phần luật hỗ trợ người nước ngoài tỉnh Gyeonggi-do" và "Dự thảo sửa đổi một phần luật thúc đẩy giáo dục đa văn hóa của Văn phòng Giáo dục tỉnh Gyeonggi-do"

Theo đó, trong số những đứa trẻ của các gia đình nước ngoài đang lưu trú hợp pháp tại tỉnh Gyeonggi thì những đứa trẻ từ 3 đến 5 tuổi đang trong khóa học Nuri trước khi đi học sẽ được hỗ trợ chi phí giáo dục và chăm sóc trẻ em giống như người Hàn Quốc. Đây là nơi đầu tiên trong số 17 thành phố trung ương tự trị

tiến hành dự án này.

Trước đó, Ông Sung Joon Mo cho biết thông qua đề xuất thẩm định của ủy ban thường trực và ủy ban thường vụ đã đưa ra lý do để đưa ra dự án đó là : "Không để hững đứa trẻ của gia đình đa văn hóa hoặc gia đình người ngoại quốc đang cư trú hợp pháp tại hàn quốc bị phân biệt trong vấn đề học tập và chúng ta phải làm sao để những đứa trẻ này có thể phát triển một cách bình thường , không có sự phân biệt đối xử".

Theo đó có chủ trương là "Hàn Quốc, nước đã phê chuẩn Hiệp ước về quyền trẻ em của Liên Hợp Quốc, có nghĩa vụ đảm bảo quyền cư trú, quyền giáo dục và quyền bảo vệ trẻ em bất kể quốc tịch của cha mẹ các em", và có nội dung liên quan đến : " Chúng ta đang áp dụng cùng một mức thuế đối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và người dân Hàn quốc tuy nhiên những người này đang không được hưởng tiền hỗ trợ quá trình giáo dục cộng đồng của quốc gia "

Hai điều lệ sửa đổi đã được mở rộng lên đối tượng các gia đình người nước ngoài trong dự án hỗ trợ chương trình Nuri cho nhà trẻ và nhà giữ trẻ ở tỉnh Gyeonggi-do. Đối với các trẻ em người Hàn đang trong quá trình nuôi dạy thì đối với những trẻ đi học nhà giữ trẻ và nhà trẻ tư thì hỗ trợ 240.000 won mỗi tháng và nhà trẻ công lập 450.000 won mỗi tháng.

Ngoài ra, trong 'Luật cải tổ giáo dục đa văn hóa tại phòng giáo dục Gyeonggi-do' thì chúng ta cũng phải

nâng cao sự hiểu biết và cảm tính liên quan đến vấn đề hòa nhập thời đại toàn cầu thông qua dự án hỗ trợ giáo dục học sinh của gia đình đa văn hóa và dự án đào tạo sự hiểu biết của gia đình đa văn hóa nhằm thúc đẩy đào tạo gia đình đa văn hóa"

Ông Sung Joon Mo nói rằng : Thông qua lần sửa đổi điều lệ này,dự án hỗ trợ người nước ngoài là bài tập mà tôi đã ấp ủ lâu nay, thông qua lần sửa đổi lần này và điều luật được thực hiện thì tất cả mọi người kể cả người nước ngoài và người trong nước đều được hưởng quyền lợi như nhau "

Sự quan tâm và nỗ lực của ông Sung Joon Mo để hỗ trợ giáo dục cho các thanh thiếu niên thuộc gia đình đa văn hóa và người di cư không phải là việc của một hai ngày.

Năm ngoái, trong lần phát ngôn 5 phút của Quốc hội tỉnh Gyeonggi, ông Sung nói: "Triết học và giá trị của giáo dục tỉnh Gyeonggi phải được chia sẻ với các học sinh đa văn hóa thì giáo dục kinh tế thực sự mới được phát huy .và "Hiệu quả giáo dục có thể tăng gấp đôi khi các học sinh đa văn hóa hòa hợp với trẻ em trong nước". <한글 기사 1면>

Những nỗ lực này của ông Sung Joon Mo mỗi năm đều đưa thêm luồng ánh sáng mới và tyrong đội Trao giải thưởng nhân quyền lần thứ 3 được tổ chức vào tháng 6 vừa qua ông đã được trao giải cho nỗ lực trong lĩnh vực đóng góp vào chính sách của khu vực.

京畿道知事李在明表示：“京畿道是大韩民国的中心……走向公正的世界。”

第3届京畿道居民日纪念仪式举行,1千年京畿道历史“外国居民也值为此得自豪”



希望大家带着自豪感和责任感,一起创造新的京畿,公正的世界。”

10月17日在水原市京畿想象校园举行了“第三届京畿道居民日”纪念仪式。京畿道知事李在明、国会议员白惠莲、京畿道议会议长张贤国、和平副知事李在江等30多人参加了当天的活动。

10月18日京畿道居民日源于高丽时代的1018年,高丽

史地理志记载称首尔的外围地区为“京畿”。2018年迎来京畿1000年,将10月18日指定为京畿道市民日。今年因为“科罗娜19”,省略了附带活动,只进行了小规模运营。

京畿道知事李在明在当天的纪念致辞中表示:“京畿道的主人是京畿道居民。就任后与公务员们团结一心,为道预算和权力全部用于道民和京畿道发展而竭尽全力而感到自豪”,“其结果是,在各种地方积累了成果,现在道民们好像都为自己是京畿道居民而自豪了。”

他还说:“京畿道居住着韩国四分之一以上的人口,在经济力等领域的京畿道重要性更是不言而喻。还强调了“京畿道与北韩接壤,因此,统一和南北交流合作的任重道远”,“京畿道不是某个边疆或周边地区,作为大韩民国坚定的中心,希望我们所有人都能为此感到自豪和责任感”

李知事还表示:“京畿道的道政座右铭是'新的京畿,公正世界',一个公正的世界是确保共同体不解体而存在的唯一对策。为了打造共同生活的大同世界,必须控制强者的单方面横行,改善多数弱者的冤屈状况”,并呼吁道民

共同参与。

京畿道议会议长张贤国表示:“今天京畿道居民节与京畿道居民政策庆典一起举行。我认为,道民自己参与社会、政治问题,寻找解决点,绘制未来发展的政策蓝图才是真正的居民自治和更大的民主主义”,“京畿道议会无论何时都会倾听道民的声音,为京畿道人民的幸福和生活尽最大的努力”。

当天,对为地区社会发展做出贡献的道民进行分领域颁奖的“京畿道道民奖”颁奖典礼上,共有8名道民当选,正在京畿道青年基本收入音乐剧宣传团活动的宋镇洙,和正在京畿道医疗院水原医院照顾科罗纳19患者的金元泰(音)作为京畿道道民代表朗读了道民宪章。

考虑到19日这一天的情况,除了取消文化演出、体验活动等附带活动外,此次京畿道居民日活动将邀请人数也最小化,规模较小,但在形成京畿道居民的一体感方面没有不足之处。希望以此次京畿道居民日纪念仪式为契机,作为京畿道居民一员的外国居民也能记住京畿道居民日,并作为京畿道居民感到自豪。 <한글 기사 46면>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꿈 응원해요

원종지구대 치안협력단체, 장학금 전달해



부천오정경찰서 원종지구대(지구대장 경감 오한택)는 '제75주년 경찰의 날'을 맞이하여 관내에 소재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모범청소년들을 발굴, 지난 10월 21일 부천오정경찰서 원종지구대에서 원종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회원(회장 김병수)들과 함께 장학금을 전달하고 다과를 베푸는 등 격려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모범청소년들은 다문화가정 학생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향해 정진하는 모범청소년 5명을 선정하여 20만원씩 총 1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그들의 꿈을 응원했다.

이어 원종지구대는 일회성에 그치는 행사가 되지 않기 위해, 학생 1명당 1명의 멘토 경찰관을 지정하여 진로 및 학업 관련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하는 등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원종지구대장(경감 오한택)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모범 청소년을 발굴하여 보호, 지원할 방침이며, 오늘 받은 장학금이 청소년 여러분의 꿈을 키우고 목표를 이루는데 작은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는 말을 전했다.

김영의 기자

京畿道外国人住民の児童もヌリ課程 保育料と教育費の支援が受けられる

〈ソン・ジュンモ京畿道議員代表が發議した条例案、京畿道議會本会の最終議決〉

京畿道議會教育行政委員會、ソン・ジュンモ(共に民主党・アンサン5)議員が代表發議した、‘京畿道外国人住民支援条例一部改定条例案’と、‘京畿道教育庁多文化教育振興条例一部改定条例案’が、22日に第347回京畿道議會臨時会の第2次本會議で最終議決された。

これで京畿道に合法的に滞在している外国人家庭の未就学児のうち、ヌリ課程にある満3~5歳の児童も、保育料と教育費の支援を受けられることになった。17の広域自治体のうちで初の試みだ。

これに先立ちソン・ジュンモ議員は、所管常任委の審査提案説明を通じて、“大韓民国に合法的に滞在している外国人家庭、多文化家族の子女も普遍的教育制度内では疎外、差別されることなく成長できるように心掛けた”と提案理由を明らかにした。続いて“国連の子どもの権利に関する協約に批准したわが国は両親の身分に関係なく、児童の滞在権と教育権、保護権などを保障する義務がある”とし、“外国人にも韓国人と同じ税金を付加しており、国家水準共通教育課程であるヌリ課程費用支援対象から除外されている”と主張した。ふたつの改定条例案は、京畿道内の保育所と幼稚園ヌリ課程支

援対象に、外国人家庭の子どもまで拡大した。現行ヌリ課程にある韓国人の児童の場合、保育所と私立幼稚園は月24万ウォンを、公立幼稚園は月4万5000ウォンを支援している。

その他に‘京畿道教育庁多文化教育振興条例一部改定条例案’には、多文化教育振興のための多文化理解教育事業、多文化家族学生教育支援事業を通じて、グローバル時代を生きる道民の多文化に対する感性と理解を高め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る。

ソン・ジュンモ議員は“この条例改定を通じた外国人住民支援事業は、国内最大外国人居住地域である京畿道で議政活動を遂行する議員として、必ず解決すべきことであり”、“本条例が施行されることで韓国人・外国人の分け隔てなく、すべての道民が共に歩む成熟した社会構成員として成長していくことを望む”とした。多文化家族と移住背景をもつ青少年の教育支援に努力するソン議員は、これまでも多大な関心を寄せてきた。昨年、ソン議員は京畿道議會5分発言において、“京畿教育の哲学と価値は多文化学生と共有されてこそ、真の京畿教育となる。多文化学生が韓国人学生とともにあるときこそ、教育的効果があると考え”と指摘した。ソン議員は努力の証として、6月に開催された第3回韓国韓国移住人権賞で地域政策分野賞を受賞された <한글 기사 1면>

재능강화사업

다독다독(多讀)

1차 · 2차 대상자 모집

놀이독서

재능의 독서습관 향상
재능의 인성 & 사회성 발달 증진

부모코칭

재능에게 효과적인
인독서 지도를 할 수 있는 방법 공유

요리교실

배배배로 만들기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대상	20. 10. 30. ~ 11. 20.	20. 10. 30. ~ 11. 20.	20. 10. 31. / 11. 14.	20. 10. 31. / 11. 14.	20. 11. 07.	20. 11. 07.
시간	화,금(7회기) 14시~16시	화,금(7회기) 16시~18시	토(2회기) 14시~16시	토(2회기) 16시~18시	토(1회기) 14시~16시	토(1회기) 16시~18시

※ 모든 강의 수료하시면 자동으로 "추억만들기 프로그램" 신청됩니다

대상 초등학생 저학년을 둔 결혼이민자, 자녀 (8가정)

방법 웹엑스를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교육

문의 가족지원1팀 양서영 / 070-4457-2279

※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생필품꾸러미"와 "신발"을 증정합니다

독자여러분께 알립니다

경기다문화뉴스는 경기도와 30개 시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다문화가족의 생활정보 및 정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주민 등 구독을 원하는 다문화가족 혹은 구독을 원치 않는 분 그 밖에 주소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기다문화뉴스 편집부로 연락해 주세요.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21번길 5
- 전화 031-8001-0211 ● 문자 010-2455-9331(변동사유, 이름, 주소 문자가능)

신문발간을 위해 애써주시는 30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원시, 부천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군포시, 광주시, 김포시, 이천시, 오산시, 하남시, 여주시, 양평군, 과천시, 의정부시, 파주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고양시, 남양주시, 성남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 의왕시, 가평군

경기다문화뉴스

온라인 가족 요가와 웃놀이를 코로나 상황에도 오산 가족은 웃음꽃!

오산건가다가, '우리가족 건강지킴이-온라인 가족요가, 건강지킴이 키트'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병희)는 지난 9~10월 비대면으로 다문화가족캠프 '우리가족 건강지킴이-온라인 가족요가, 건강지킴이 키트'를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가족 소통과 화합의 장을 조성하고 코로나19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 20

명이 참여한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지난 10월 17일 오전과 오후 2차례 걸쳐 진행된 프로그램은 센터와 대상자 가정에서 함께 진행됐다.

10월 주제는 '가족 건강지킴이'로 온라인 가족 요가 프로그램과 가정에서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건강 지킴 키트를 제공했다. 온라인(zoom)으로 가족요가 등을 실시간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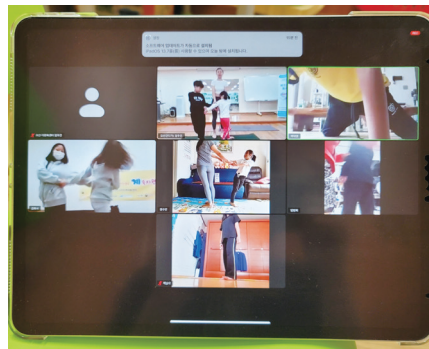
건강지킴이 비대면 키트가 함께 활용됐다. 건강지킴이 키트에는 손소독젤, 휴대용 미니비누, 천연 샴푸바, 립밤 만들기 등이 제공됐다.

앞서 9월에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온라인 가족 웃놀이가 진행됐다.

10월 온라인 가족 요가 등 2가지 활동은 가족 구성원간 서로 손잡기, 발 맞대기 등의 신체접촉을 통해 친밀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참가자들은 활동내용을 영상으로 게시하기도 했다.

센터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심리적, 정서적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시민들에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가족 단위 프로그램은 색다른 즐거움을 줄 수 있다"며 "방역 대응단계가 낮아졌으므로 대면과 비대면을 적절하게 조화해 안전한 가운데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야경 등 5가지 테마로 진행된 '2020 오산 문화재 야행'

외국인주민도 즐길 수 있는 플라마켓 등 다양한 체험행사 열려



오산시 (시장 광상욱)는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 '2020년 오산 문화재 야행'을 독산성 세마대지 일대에서 개최했다.

'2020 오산문화재 야행'은 오산시 지정 문화재와 향토 문화유적 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보존 및 계승 발전을 위한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오산에선 올해 처음으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체 방문객을 대상으로 3D 영상 시스템을 이용한 발열 체크와 명부 작성, 양방향 스텝 방역을 실시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독산성 분위기와 어울리는 장군복장, 병사복장, 유생복장을 하고 지속적으로 순찰하며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제 사용을 계도했다.

'2020 오산문화재 야행'은 오산의 지정 문화재인 독산성을 야간에 관람하도록 야경(夜景), 야설(夜設), 야로(夜路), 야시(夜市), 야식(夜食), 야숙(夜宿), 야화(夜畵) 등 6가지 테마로 펼쳐졌다.

관객들이 독산성의 성곽 위에서 오산시 야경을 볼 수 있도록 입구에서부터 청사초롱 조명등과 특색 있는 테마 한지등을 곳곳에 설치해 등산하는 길이 지루하지 않도록 조성했고 쉬어가는 곳마다 전국 산성 사진과 오산시 옛 사진 등을 조명과 함께 전시했다.

또 플라마켓, 임진왜란 전투식량 체험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열려 방문객들의 시선과 발걸음을 사로잡았다.

이 밖에 김석환 팀의 '뒤주에 갇힌 슬픔', 광상욱 시장의 '독산성이야기 구연' 등 야설(夜設)로 독산성의 역사성도 조명했다.

세마대지 정상에는 텐트 30여개를 설치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텐트 안에서 텐톡(텐트 안에서 즐기는 콘서트)과 텐톡(텐

트 안에서 다정한 대화)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했다.

여행스케치의 콘서트와 김백기팀의 '일어서는 독산성'이라는 주제로 펼쳐진 뮤지컬 공연, 김주원 작가의 장승 퍼포먼스는 가족단위로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독산성과 권율장군'이라는 주제로 야설을 담당한 광상욱 오산시장은 "독산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국보라고 생각한다"라며, "독산성을 포함한 정조문화권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참여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행사를 주관한 정진홍 오산문화원장은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와서 즐기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니 가슴 뿌듯하고 보람을 느낀다"라며, "올해의 경험을 축적하고 타 시군을 벤치마킹하여 더욱 알찬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지은 기자

오산시, 찾아가는 재활용 체험프로그램 '에코트릭'

오산시(시장 광상욱)는 10월 27일 오산삼미초등학교에서 올바른 쓰레기 배출과 자원 재활용을 위한 '에코트릭'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에코트릭'은 페트병과 캔 수거기기를 장착한 트레일러로,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주고 업사이클 제품을 제공해 재활용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에코트릭 운행 첫 번째 학교인 삼미초등학교에서는 5개 학급 100명의 학생들이 참여, 집에서 가져온 페트병을 뚜껑과 링, 라벨을 분리해 AI재활용 수거기기에 넣어 봄으로써 재활용 과정을 체험했다.

또 재활용품 처리로 적합한 포인트를 활용해 환경보호 캘리그래피, 업사이클 제품(재생원료 연필, 소프넛, 천연수세미, 테슬라키링제작 키트 등)으로 교환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학생들이 업사이클 체험 키트 등의 보상으로 재활용의 재미를 느끼고 재활용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Выдача виз H-2, F-1 зарубежным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 из Узбекистана, Казахстана, Киргизии, Узбекистан, Казхстан, Киргизия, Кыргызстана의 외국인 동포에게 H-2, F-1 비자 발급 시행



Сегодня, 19 октября, на сайте www.hikorea.kr было опубликовано официальное положение о выдаче виз H-2 зарубежным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 из стран Узбекистан, Казахстан, Киргизия, у которых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е дети учатся в корейских школах.

В связи с усилением карантинных мер во многих странах, в том числе и странах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была приостановлена выдача виз. То есть если держатели виз H-2 по истечении срока пребывания покидают территорию Кореи для получения визы, то захватить обратно нет возможности. В результате дети, которые учились в корейских школах и выехавшие с родителями по окончании срока визы, не имеют возможности вернуться и включиться в учебный процесс.

Поэтому держателям виз H-2 (рабочая поездка) и F-1(сопровождение) из стран Узбекистан, Казахстан, Киргизия, которые в период с 1 февраля по 31 августа 2020 года выехали из Кореи, и у которых есть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е дети, посещающие корейские школы, будут в срочном порядке выдаваться визы, как заявлено на сайте.

При этом требуется подтверждение обучения ребенка в корейской школе, а также документы, подтверждающие родственные связи с родителем.

Также обязательно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справки об отсутствии коронавируса, полученной за 48 часов до вылета, в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ях, имеющих специальное назначение от Посольства.

За подробной информацией обращаться в Посольства и Консульства Кореи в указанных странах.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в Корею проживает около 29 тыс. иностранцев по визам H-2 из Узбекистана,

Казахстана и Киргизии. Виза H-2 выдается зарубежным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 из Китая и стран бывшего СССР в возрасте от 18-60 лет, сроком на 3 года. Приехав в Корею по визе H-2, можно работать в наиболее широком спектре отраслей, по сравнению с другими рабочими визами. Период пребывания по данной визе составляет 3 года (максимальный срок - до 4 лет 10 мес в случае разрешения на продление рабоче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 от Министерства труд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сле которого необходимо покинуть Корею. До коронавируса, в случае зарубеж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олучить визу H-2 повторно не составляло большого труда, поэтому по истечении периода пребывания мног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возвращались на Родину, получали повторные визы H-2 и возвращались в Корею. Помимо этого, держатели визы H-2 могут приглашать членов своих семей по визе F-1: супругов и детей и находиться с ними вместе до окончания срока пребывания. Поэтому очень многие живут и работают в Корею с семьями, дети ходят в корейские детсады и школы.

Ситуация с коронавирусом, усиление мер в отношении стран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в частности временное прекращение выдачи виз, заставила переживать не только тех держателей виз H-2 и F-1, кто уже покинул территорию Кореи, но и тех, у кого период пребывания еще не истек.

Поэтому данное решение о выдаче виз действительно очень важный и насущный момент для многих семей зарубеж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Будьте в курсе последних новостей политики в отношении иностранцев с репортером иностранных соцсетей по Кёнгидо, Елена Ким.

지난 10월 19일부터 외국인 대상 전자정부 포털 www.hikorea.kr에는 미성년 자녀가 한국 학교에서 공부하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의 외국 동포들에게 H-2(방문취업) 비자 발급에 관한 공식 규정이 게시되었습니다.

중양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많은 국가의 검역 조치 강화로 인해 비자 발급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즉, 체류 기간 만료 후 H-2 비자 소지자가 비자를 받기 위해 대한민국 영토를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

다.

그 결과, 한국 학교에서 공부하고 비자 기간이 끝날 때 부모와 함께 떠난 아동은 돌아와 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2020년 2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국을 출국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출신의 H-2(방문취업) 및 F-1(방문동거) 비자 소지자로서 미성년 자녀가 한국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웹사이트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긴급하게 비자를 발급 받게 됩니다.

한국 학교 재학 사실과 부모와의 가족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사관 지정병원, 탐승 48시간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한국에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에서 H-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약 2만 9천명에 이릅니다.

H-2 비자는 18~60세의 중국과 구소련 국가에서 온 외국 동포들에게 발급되며 운영기간은 3년입니다. H-2 비자로 한국에 오면 다른 취업 비자에 비해 더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의 체류 기간은 3년(대한민국 노동부 활동 연장 허가를 받은 경우 최대 4년 10개월)이며 그 이후에는 출국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는 외국 동포의 경우 다시 H-2 비자를 받는 것이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체류 기간이 지나면 많은 동포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H-2 비자를 재발급 받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또한 H-2 비자 소지자는 F-1 가족(배우자 및 자녀)을 초대하여 체류가 끝날 때까지 함께 머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일하고, 아이들은 한국 유치원과 학교에 다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으로 중앙 아시아 국가에 대한 조치가 강화되어 비자 발급의 일시 중지 등으로 비자 만료로 이미 한국을 떠난 H-2 및 F-1 비자 소지자뿐만 아니라 아직 만료되지 않은 외국인도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비자 발급 결정은 실제로 많은 외국 동포 가족에게 매우 반갑고 중요한 소식입니다.

김엘레나 경기도외국인SNS기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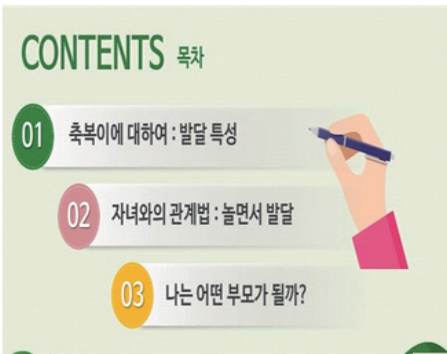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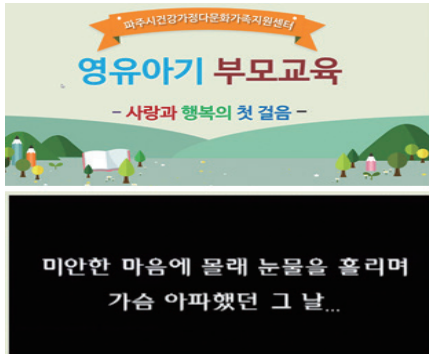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오산시청 031-8036-8036 오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372-1335 행복한이주민센터 031-374-5554 나눔과비움 070-8891-8638 화성오산교육지원청 031-371-0600 오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8024-9805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더 많이 웃어주는 엄마 아빠가 되어 주세요”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영유아기 부모교육 ‘사랑과 행복의 첫 걸음’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조순일)는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총 6시간에 걸쳐 ‘사랑과 행복의 첫 걸음’ 영유아기 부모교육을 진행했다.

영유아기 자녀를 키우는 54가정이 참여한 가운데 부모와 영유아기 자녀의 공통된 주제를 바탕으로 온라인 줌을 통한 쌍방향 강의 및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이 프로그램은 처음 부모가 된 부모들이 만난 자녀의 개별적인 발달 특성과 수준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적합한 양육 방법을 습득하여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가족 관계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지혜로운 엄마, 아빠가 될 수 있는 꿀팁을 전수받으며 나의 육아방식, 자녀의 기질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자녀에게 무표정으로 대했을 때와 웃음으로 대했을 때의 자녀의 행동에 큰 차이가 있음을 영상으로 확인했다.

이에 참가자들은 “더 많이 웃어주는 엄마가 되겠다”, “나의 행동을 반성하게 됐다” 등의 채팅 의견을 올리기도 했다. 강의 중간 퀴즈에 대한 호응도도 좋았다.

‘아이가 먹지 말아야 할 감은?’이라

는 퀴즈에 영감, 오감, 실망감, 대감, 꽃감, 비호감, 팽감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나, 정답은 ‘열등감’이었다. 질문과 의견을 주고 받으며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강의가 진행되는 시간 내내 지루할 틈이 없는 즐거운 강의였다.

참가자들은 강의 참여 후 제공된 사운드 북으로 자녀와 함께 놀이를 하며 아이를 더욱 이해하려 노력하게 되었고, 자녀와의 친밀감 형성과 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밝혔다.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1월에도 행복한 가족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연인 예비신혼기 교육, 중장년부부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더욱 유익하고 즐거운 가족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참여자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그 외 상담, 교육, 문화체험 등 기타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센터 (031-949-9164)로 문의하면 된다.

송하성 기자

더 좋은 알바 지금 파주시 시작합니다

파주시는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사업과 연계해 ‘파주, 더 좋은 알바’ 사업을 전격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0월 13일부터 23일까지 신청자 모집을 한 결과 사업계획 인원 200명 보다 많은 약 400명이 참여를 희망할 만큼 일자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이번에 진행하는 ‘파주, 더 좋은 알바’는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파주형 희망일자리 사업과는 별도로 운영하는 한시적 사업이다. 주요 하천변 환경정비와 마스크 계도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10월 27일부터 운영 약 150명, 금촌 80여명, 문산 60여명 약 300명의 참여자가 환경정비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 구간은 운정, 금촌, 문산 지역으로 인구가 밀집되고 상가가 형성돼 있는 곳이다. 또한 하천과 공원을 끼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대상지를 선정해 약 10명당 1개조를 편성, 총 26개 조가 구석구석 누비며 환경정비 중이다. 이지은 기자

다문화가족도 알아두면 도움 되는 파주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보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재개

‘정부24’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파주시는 29일부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시민은 ‘정부24’ 사이트에 로그인해 직접 여권사진을 올리고, 재발급 수수료를 납부하는 절차를 통해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여권재발급 시 재발급 신청 및 수령을 위해 2차례의 방문이 필요했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여권 수령 시 1회만 방문하면 된다. 이번에는 파주시청 여권민원업무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지난 7월에 개소한 여권운영출장소는 12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김진우 파주시 민원봉사과장은 “온라인 여권 발급 신청 시스템을 통해서 여권 민원 대기 시간이 줄어들어 빠르고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할 것”이라며 “시

민 편의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니만큼 많은 이용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외국인과 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파주시는 경기도가 도내 23개 시·군 5천249.11㎢를 외국인 및 법인·단체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올해 10월 3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며 외국인 및 법인·단체가 허가구역 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실사용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나나 파주시 토지정보과장은 “토지거래허가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파주시 내 법무사사무소와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에 홍보해 차질 없이 제도가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재개

파주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9월부터 잠정 중단됐던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11월부터 재개한다고 27일 밝혔다.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시민들의 고충해결 및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파주시의 최근 법률 자문 건수는 ▲2018년 492건 ▲2019년 543건으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매년 늘고 있으며 올해부터 상담횟수를 월 12회에서 월 14회로 확대하고 관련 법률

전문가 2명도 추가 배치·운영했다. 상담은 파주시청과 문산행복센터, 한울도서관(운정행복센터에서 변경)에서 받을 수 있다.

김진우 파주시 민원봉사과장은 “경제적 문제 등으로 선뜻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보다 쉽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료법률 상담서비스는 파주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파주시청 민원봉사과 종합민원팀(☎031-940-4181)으로 사전예약을 한 뒤 예약된 상담일시에 방문하면 된다.

상담가능 일정 및 장소는 파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방역지침에 따라 상담 시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지은 기자

DỊCH VỤ QUẢN LÝ CÁC VỤ VIỆC LIÊN QUAN ĐẾN GIA ĐÌNH ĐA VĂN HÓA

Tại trung tâm hỗ trợ sức khỏe gia đình·trung tâm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thành phố Paju chúng tôi có giải quyết các vấn đề phức tạp và đa dạng của gia đình đa văn hóa Những gia đình nào đang gặp khó khăn hãy cùng chúng tôi giải quyết vấn đề.

Đối Tượng

Gia đình đa văn hóa, gia đình người nước ngoài, gia đình đào thoát từ bắc triều tiên

Nội Dung

Loại Hình	Nội Dung
Tình huống khẩn cấp	Hướng Dẫn Các Dịch Vụ Phúc Lợi, Bạo Lực, Nghèo Khó
Tư Vấn	Tư Vấn Cá Nhân, Tư Vấn Gia Đình, Tư Vấn Vợ Chồng
Chương Trình Của Trung Tâm	Đào Tạo Tiếng Hàn, Hoạt Động Giúp Đỡ Tình Nguyên, Giáo Dục Tại Nhà, Hoạt Động Hội Nhóm
Kết Nối	Tư Vấn Luật, Hỗ Trợ Khẩn Cấp v.v Kết Nối Với Các Cơ Quan

Thời Gian Làm Việc

09:00~18:00 (thứ 2~thứ 6) giờ nghỉ trưa 12:00~13:00

Hình Thức Sử Dụng

đến trung tâm, đến tận nhà, gọi điện thoại

Liên Hệ

nhân viên quản lý các vụ việc liên quan đến gia đình đa văn hóa ☎ 031-949-9164

Trung Tâm Sức Khỏe Gia Đình·Trung Tâm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Thành Phố Paju

Multicultural Family Case Management Project Information

The Paju Healthy Families · Multicultural support Center is provide solutions to the complex and divers problem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ir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tability. We support stable settlement of life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we can solve the family struggling together,

Project Target

Multicultural Families, Foreign Family, Family of North Korean Defectors, etc

Project Content

Division	Content
Crisis Situation	Personalized welfare services information and support, violence, poverty, etc
Consultation	Individual and Family counseling, couple counseling, etc
Center program Participation	Korean Language Education, Supporters, Visiting Education, Self-help group, etc
External resources linkage	Legal counseling, emergency assistance, etc

Use time

09:00~18:00 (Mon~Fri) Lunch break 12:00~13:00

How to use

Center visit, Home visit, Telephone

Contact

Multicultural Family Case Management ☎ 031-949-9164

PAJU SI HEALTHY FAMILY ·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多文化家庭事例管理事业指南

坡州市健康家庭·多文化家庭支援中心、通过多文化家庭的复杂、多种的问题解决及心理·情绪稳定、支援多文化家庭稳定的韩国生活。将一起解决受困难的家庭问题。

事业对象

多文化家庭、外国人家庭、朝鲜脱离居民家庭等

事业内容

区分	内容
危机情况	每个人定做型福利服务指南及支援、暴力、贫困等
咨询	个人及家庭咨询、夫妻咨询等
参与中心活动	韩国语教育、支持者、访问教育、自助聚会等
联系外部资源	法律咨询、紧急支援等联系他机关

利用时间

09:00~18:00 (周一~五) 午休 12:00~13:00

利用方法

访问中心、家庭访问、电话

咨询

多文化家庭事例管理师 ☎ 031-949-9164

坡州市健康家庭·多文化家庭支援中心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다문화가족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 해결 및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가정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대상

다문화가족, 외국인가족, 북한이탈주민가족 등

사업내용

구분	내용
위기상황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안내 및 지원, 폭력, 빈곤 등
상담	개인 및 가족상담, 부부상담 등
센터프로그램 참여	한국어교육, 서포터즈, 방문교육, 자조모임 등
외부자원연계	법률상담, 긴급지원 등 타기관 연계

이용시간

09:00~18:00 (월~금)

점심시간 12:00~13:00

이용방법

센터내방, 가정방문, 전화

문의

다문화가족사례관리사

☎ 031-949-9164

• 찾아오시는 길



한진 앞 하차
9709, 919, 760, 33, 011, 100-10, 100-11, 100-31, 92, 065, 064
파주시청(도보5분) 13, 131, 30-1, 909, 32, 32-1, 15-1, 12, 14, 773, 9
전철 : 경의선 금촌역(도보 10분 거리)

파주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주여성 취미생활 스트레스 해소!

파주건가다가, 전통춤 등 다양한 동아리활동

파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을 환영합니다.

가족이 웃을 수 있는 세상, 파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함께 만듭니다.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조순일)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스트레스를 취미생활로 해소할 수 있도록 결혼이주여성 동아리 활동을 진행한다.

전통춤(한국전통춤, 다문화전통춤)은 지난 10월 29일(목)부터 12월 15일(화)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언택트 활동으로 진행된다.

한국전통춤 강사가 학습 영상을 업로드하면, 회원들이 확인 댓글과 학습을 통해 느낀점·배운점, 인증영상 및 사진을 공유하며 진행된다.

한국 전통춤을 통해 한국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며, 코로나19로 인한 집콕 동아리활동으로 자신들만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다.

다문화전통춤 동아리는 중국·베트남·필리핀 3개 국적별로 운영되며, 본국에 대한 향수를 해소하고 육아 및 한국생활을 공유하며 상호 교류하는 시간을 갖는다.

요가힐링 동아리는 10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최소인원(10명) 이내로 센터에서 진행된다. 요가자세와 명상을 통해 균형 있는 건강생활을 도모할 수 있다.

동아리에 참여하는 한 다문화가족은 “모이지 않더라도 이렇게 활동할 수 있어서 좋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집에서만 있어서 답답했는데 활동을 시작하니 스트레스도 풀리고 정말 좋다”라고 말했다.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코로나19 언택트 시대에 동아리활동도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의 취미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외 상담, 교육, 문화체험 등 기타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센터(031-949-9164)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 완화

6일까지 기간 신청, 소득감소 25%이하 신청 가능

파주시는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사업 중 하나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한을 당초 10월 30일에서 11월 6일까지 일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원 기준도 완화해 종전 소득 감소율인 25% 이상 가구뿐만 아니라 25% 이하의 위기가구도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이하(4인 기준 356만원), 재산기준은 3억 5천만 원 이하로 종전 기준과 동일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도 간소화됐다. 공적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증빙서류 외에 추가로 본인의 통장거래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다문화가족도 기준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며, 기존 복지제도 및 동일목적사업(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제도전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참여자, 구직급여 등) 중복 여부를 조사해 11월부터 12월 중 신청한 계좌로 현금 지급된다. 다만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가구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감소율 정도를 비교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되며 신청은 요일에 상관없이 복지포털(www.bokjiro.go.kr) 홈페이지 온라인신청(세대주만 신청)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방문 신청(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가능하다.

이미경 파주시 복지정책국장은 “코로나19 피해 주민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신청기한을 연장하고 기준이 완화된 만큼 지원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코로나19로 인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대한 내용은 129 보건복지부콜센터 및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1:1 온라인 취업컨설팅 교육 실시

파주시, 다문화가족도 슬기로운 취업준비

파주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취업을 준비하는데 있어 취업컨설팅이 필요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1:1 온라인 취업컨설팅 교육'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교육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상황을 감안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참여자가 희망(신청)하는 과정으로 맞춤형 1:1 교육이 진행된다. 신청은 컨설팅이 필요하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희망 교육일 4일전까지 신청서를 작성 후 ▲방문(파주시일자리센터/운영행정복지센터/문산행정복지센터) ▲팩스(031-943-0894) ▲이메일(paju1919@korea.kr) 중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11월 2일부터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운영기수는 총 30회로 선착순으로 운영된다.

황선구 파주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 발생으로 대부분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돼 운영하다 보니 참여자의 개별 요구사항을 해소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번 1:1 컨설팅 교육을 통해 취업에 필요한 노하우와 정보를 많이 가져갈 바란다”라고 말했다.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파주시청 홈페이지(www.paju.go.kr) 또는 파주시 일자리경제과(파주시일자리센터 ☎031-940-9781)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지은 기자

다문화도서관 www.bookhg.com 국내최대 매장확보

세계 각지의 다양한 서적을 만나보세요!

- 도서납품(외국도서, 국내도서)
- 교과서납품(전 세계국가, 국내)
- 다문화전자책 납품 국내유일
- 비도서(DVD, CD, 잡지) 납품(전세계)
- MARC DATA 구축, 장비, 태깅, 배가작업

한결문고

경기 부천시 평천로 655 부천테크노파크 402동 403호
 전화 : 032-325-4755 팩스 : 032-325-4772
 E-mail : hope6401@hanmail.net Website : www.bookhg.com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가정폭력 가정 지원'

군포건가다가,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감사장 받아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성희)는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

그동안 센터는 사회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가족들의 위기와 가족의 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앞장서 왔고, 특히 군포경찰서와 협약하여 가정폭력가정들의 부부관계 회복과 건강한 이혼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10월에는 군포경찰서와 공동으로 가정폭력가정들의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가정폭력에 노출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영화 속 문제해결기술 방법을 찾아 다양한 문제와 위기상황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은 박성희 센터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기도 하였으며, 김경진 군포경찰서장이 전달하였다.

박성희 센터장은 “사회환경의 빠른 변화에 따른 다양



한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과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가족 체계 내에서 가족 구성원들의 역량을 키우고, 가족 간의 유대감, 그리고 이웃과 지역에 강점 기반의 영향력을 파급시켜 나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센터장은 또 “가정폭력 가해자는 과거에 피해자였던 가능성이 크다”라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가정폭력 예방을 지원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집단상담에 참여한 한 이용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속마음을 표현하기 어려웠는데 집단상담에서 하고 나니 마음이 후련해졌고, 나의 문제에 대해 해결방법을 하나 더 찾은 것 같아서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전했다.

한편 센터는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삶의 가치를 느끼며 공존하도록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군포시를 만들고자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 군포건가다가 프로그램 수기공모 참여해요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슬기로운 가족생활- 우수이용자 수기공모전’을 개최한다.

수기공모전은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 프로그램 참여수기로 공모 기간은 11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다. 센터를 이용한 군포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가족 프로그램 최다 참여자 및 2020년 3월부터 11월까지 센터에서 진행된 프로그램 참여 회기 기준이다.

교육 분야, 상담 분야, 문화 분야, 이용수기, 가족 참여도를 심사기준으로 하며 참여횟수에 따라 점수를 준다. 단 동아리와 자조모임, 한국어교육, 취업교육은 제외된다.

수기공모전 참가자는 최우수상 1명 50만원 우수상 2명 30만원, 장려상 10만원 등의 상품권이 주어지며 참가자 모두에게 기념품이 주어진다. 결과는 12월 11일 발표될 예정이며 시상식은 12월 19일 온라인 진행될 예정이다.

공모전 작품은 이메일(gunpo@familynet.or.kr)로 접수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센터(031-392-181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한부모 가족, 재혼가족, 조손가족, 1인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삶의 가치를 느끼며 공존하도록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군포시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 ผู้ซื้อบ้านหลังแรกในชีวิต, การได้มาของการยื่นขอลดภาษี”

ครอบครัวทามนฮวาคาจองที่ได้รับสัญชาติและซื้อบ้านจะมีสิทธิได้รับการลดหย่อนหรือยกเว้นภายในวันที่ 31 ธันวาคม 2564

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ดัดสินใจลดภาษีการซื้อบ้านสำหรับผู้ซื้อบ้านครั้งแรก,รับใบสมัครจากประชาชนพลเมืองคยองกึโดมาตรการนี้เป็นหนึ่งในมาตรการติดตาม” มาตรการรักษาเสถียรภาพตลาดที่อยู่อาศัยและมาตรการรักษา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 ที่ประกาศโดยรัฐบาลและมี

เป้าหมายเพื่อลดภาระภาษีให้กับผู้ใช้ปลายทาง การยื่นขอลดภาษีการได้มาซึ่งบ้านที่จ่ายเมื่อซื้อบ้านจะต้องจ่าย 1% ของราคาที่อยู่อาศัยสำหรับบ้านที่ต่ำกว่า 600 ล้านวอน 2% สำหรับบ้านที่สูงกว่า 600 ล้านวอนและต่ำกว่า 900 ล้านวอนและ 3% สำหรับบ้านที่มีมูลค่ามากกว่า 900 ล้านวอน

6 ล้านวอนหากคุณซื้อบ้านราคา 600 ล้านวอนหากคุณซื้อบ้านราคา 1 พันล้านวอนไม่ใช่จำนวนเล็กน้อยเพราะคุณต้องจ่ายภาษีการซื้อกิจการ 30 ล้านวอน เมื่อพิจารณาจากเนื้อหาของของการแก้ไขแล้วใครก็ตามที่ซื้อบ้านเป็นครั้งแรกในชีวิตโดยไม่คำนึงถึงสถานภาพ

สมรสหรืออายุจะได้รับการลดภาษีการได้มา การลดภาษีการได้มา 50% จะใช้กับคู่บ่าวสาวที่ไม่เคยเป็นเจ้าของบ้านมาก่อนและซื้อบ้านที่มีมูลค่า 400 ล้านวอนหรือน้อยกว่าภายใน 5 ปีนับจากวันที่แต่งงานเท่านั้น ในกรณีของผู้อยู่อาศัยในคยองกึโดภาษีการได้มาจะได้รับยกเว้นสำหรับมูลค่า 150 ล้านวอนหรือน้อยกว่าในขณะที่ได้มาและ 50% ของภาษีการได้มาสำหรับผู้เกิน 150 ล้านวอนและน้อยกว่า 400 ล้านวอนเนื่องจากการเพิ่มอัตราการลดตามราคาที่อยู่อาศัย ข้อ จำกัด ด้านพื้นที่ซึ่งเป็นพื้นที่พิเศษน้อยกว่า60m²ก็หายไปเช่นกันทำให้ทางเลือกของพื้นที่อยู่อาศัยกว้างขึ้น นอกจากนี้ในกรณีของการลดหย่อนยกเว้นสำหรับคู่บ่าวสาวข้อกำหนดด้านรายได้จะถูกผ่อนคลายเป็นต้นไปไม่ว่าพวกเขาจะได้รับรายได้หรือรายได้สองเท่าพวกเขาจะได้รับผลประโยชน์หากมีรายได้รวม 70 ล้านวอนหรือน้อยกว่า คุณสามารถยื่นขอลดหย่อนหรือยกเว้นได้จนถึงวันที่ 31

ธันวาคม 2564 และคุณสามารถยื่นขอได้ในเวลาที่ยื่นหรือชำระภาษีการได้มาที่สำนักงานเทศบาลที่คุณอาศัยอยู่นอกจากนี้ผู้เสียภาษีที่ได้รับตั้งแต่วันที่ 10 กรกฎาคมซึ่งเป็นวันประกาศนโยบายอสังหาริมทรัพย์ของรัฐบาล (ตามวันที่ชำระยอดคงเหลือ) และผู้ที่มีคุณสมบัติตรงตามข้อกำหนดการลดหย่อนจะได้รับภาษีการได้มาซึ่งได้รับรายงานและชำระก่อนหน้านี้โดยการยื่นคำขอลดหย่อน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นับจากวันที่ได้รับบ้านหลังนั้นคุณจะต้องเริ่มอาศัยภายใน 3 เดือนเป็นบ้านเดี่ยวสำหรับ 1 ครอบครัวและมีที่อยู่อาศัยถาวรเป็นเวลา 3 ปี หากไม่เป็นไปตามข้อกำหนดนี้หรือขายที่อยู่อาศัยบริจาคหรือใช้เพื่อวัตถุประสงค์อื่น (เช่น ฯลฯ) ในขณะที่ระยะเวลาการพำนักถาวรน้อยกว่าสามปีการลดหย่อนหรือการยกเว้นอาจถูกเรียกเก็บ <한글 기사 18면>

이아리 기자

숙박과 여행 할인 지원 재개, 외국인주민도 내국인과 같이 이용

恢复住宿和旅游优惠支援, 外国居民与本国入一起娜19”扩散而中断的住宿及旅行优惠券支援事业。但是, 如果“新冠”再次扩散, 将取消或推迟项目。

首先, 从28日开始将重新开展劳动者休假支援事业。招募希望参与的企业及劳动者, 在“劳动者休假事业专用网站”接受商品预约。

旅行优惠券从30日开始预约。通过在线运营公司Tayed Square (Tourvis) 公开征集被选定的1000多个旅游商品(337个旅行社)预订的话, 可享受约30%的折扣, 最高可享受6万韩元的折扣。旅行商品是彻底地分散地区选定的。旅游领队将被指定为防疫负责人, 为避免在团体移动时发生扩散事例, 将严格遵守距离、戴口罩等基本防疫守则。

从11月4日开始, 可以通过27个在线住宿预约网站获得住宿折扣

权。7万韩元以下住宿时提供3万韩元、7万韩元以上时提供4万韩元的折扣券, 预约后可立即使用。为了防疫, 圣诞节和年末(12月24日~31日)被排除在打折券使用期限之外。

游园设施从11月4日开始通过interpark网站最多可以享受60%的折扣。为了防止集中使用特定设施, 按照游园设施规模分配了折扣权。计划遵守限制首都圈50%使用人员等防疫守则。

文化体育观光部观光政策局长崔宝根(音)表示:“在零星的冠状19集体感染发生的情况下, 虽然担心消费折扣权的重新开放, 但是旅游业界会为了成为更彻底检验防疫的机会而竭尽全力”, “希望使用消费折扣券的消费者们比起著名旅游景点, 更多地利用旅游预报服务等, 以幽静的观光地为主进行预约”。

<한글 기사 16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미래 설계~

군포건가다가, 미래설계 교육 및 댄스동아리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성희)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만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결혼이민자 ‘자립을 위한 미래설계’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한국거주 3~5년 이상, 한국어교육 3단계 이상 수준의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결혼이민자의 자립역량 강화교육으로 결혼이민자 스스로 정착과정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교육은 나를 중심으로 세운 비전설정이 라는 목표를 가지고 직업적성검사와 미래자원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 자신을 이해하고, 본인 소개 및 장점 발굴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며, 생애그래프와 10년 후 나에게 편지쓰기를 통해 미래를 설계했다. 또 이를 통해 능력과 가치 및 분야에 맞는 자신의 직업적성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파악한 직업에 맞게 스스로 비전을 설정하면서 적극적인 참여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했다.

박성희 센터장은 “이번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자립을 위한 미래찾기’를 시행함으로써 현재 ‘나’를 발견하고 분석하여 적성과 역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미래설계에 적용하여 비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센터는 결혼이민자 스스로 본인의 삶 속에서 주인공이 되어 요구하

는 미래와 개인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청소년 댄스동아리 ‘커넥션’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9월 22일부터 매주 화요일 ‘청소년 댄스동아리 커넥션’을 진행하고 있다.

‘커넥션’은 다문화 청소년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정보교류 및 유대관계 형성으로 사회성 향상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마련되었고, 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는 주체적인 동아리 모임이다.

센터는 11월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16시 30분~18시 30분에 운영할 예정이며, 다문화 청소년(초등학생~ 중학생) 6명을 대상으로 방송 댄스 배움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박성희 센터장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커넥션을 통해 춤을 배우며 또래 청소년들과 소통하여 사회성을 향상함으로써 자아정체성을 확립할 것으로 기대되며, 취미생활 속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내 한국 사회 적응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라며 다문화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커넥션의 일정은 센터 사정상 변동될 수 있으며, 장소는 레츠댄스학원 산본점을 대관하여 진행하고 있다. 신청은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 댄스 동아리 커넥션 담당자에게 전화 혹은 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김영의 기자



즐거로운 가족생활 우수이용자 수기공모전

- 공모주제: 본 센터 가족 프로그램 참여수기
- 공모기간: 2020.11.2~12.6.
- 참가대상: 본센터를 이용한 군포시민 누구나
- 공모내용: 가족프로그램 최다 참여자 및 이용수기 (2020. 3. ~ 2020.11. 본 센터에서 진행 된 프로그램 참여 회기 기준)

○ 심사기준

구분	기준	점수
교육분야 (부부교육, 부모교육, 다문화사회이해교육 등)	15회 이상 참여	20
	10회 이상 참여	15
	5회 이상 참여	10
	5회 미만 참여	5
상담분야	개인상담 참여	10
	집단상담 참여	10
문화분야	20회 이상 참여	20
	15회 이상 참여	15
	10회 이상 참여	10
	10회 미만 참여	5
이용수기	발표가능 자	20
가족참여도	가족 구성원 2인 이상 참여	20

※동아리, 자조모임, 한국어교육, 취업교육 제외.

○ 시상내역

구분	인원	상금
최우수상	1명	상품권(50만원)
우수상	2명	상품권(30만원)
장려상	3명	상품권(10만원)
참가자	모두	기념품

- 결과발표: 2020. 12. 11(금) 예정
- 시상식: 2020. 12. 19(토) 온라인 진행 예정
- 제출방법: 이메일접수(gunpo@familynet.or.kr)
- 작성서식: 우수이용자 신청서 1부(서식 1), 증빙자료 첨부(서식 2),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1부(서식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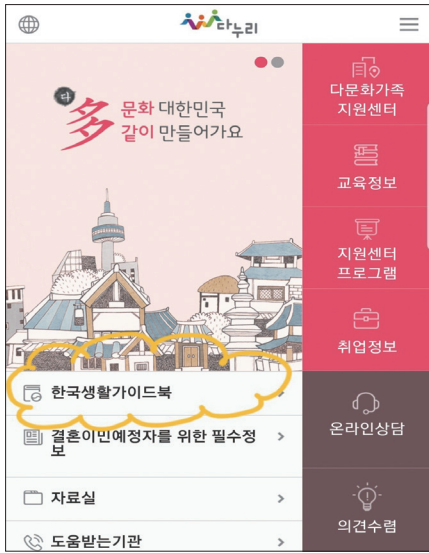
☎문의: 031) 392-1811

자세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http://gunpo.familynet.or.kr>

Путеводитель по жизни в Корее 2020 한국생활가이드북

체류, 임신, 육아, 교육 등 한국 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정보 제공 ‘한국생활가이드북’



После переезда на постоянное жительство в Южную Корею и, оказавшись вдали от семьи и близких друзей, первое время мне было трудно не только в моральном плане, но и в общей адаптации в 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 И скорее всего проблема стояла остро именно из-за незнания основ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случае возникновения какой-либо проблемы я не могла решить ее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а постоянно приходилось ждать мужа с работы, либо просить родственников. По этому именно в такие моменты возникали мысли о том, что хорошо было бы иметь некий справочник, который вмещал в себя всю необходимую информацию на родном языке о том ку

да и зачем нужно обратиться в определенной ситуации. И я его нашла!

Первое время мне очень помог “Путеводитель по жизни в Корее”, находящийся в свободном доступе на сайте Данури (www.liveinkorea.kr). Это справочник, созданный при поддержке Института здоровья семей и Министерства гендерного равенства и семьи, который содержит в себе полезную информацию не только для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но и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в Корее. В путеводителе можно найти исчерпывающую информацию для комфортной жизни: от повседневной информации, такой как транспорт, еда и жилье, до временного проживания и приобретения гражданства, беременности и воспитания детей, образования детей, медицинск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занятости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учения.

Самыми главными достоинствами данного справочника являются то, что информация обновляется каждый год, путеводитель можно скачать совершенно бесплатно на сайте Данури, либо через одноименное приложение, и вся информация дублируется на 13 языках (корейский, английский, китайский, вьетнамский, тагальский (филиппинский), кхмерский (камбоджи

йский), монгольский, русский, японский, тайский, лаосский, узбекский и непальский). То есть в любое и в любом месте вы легко сможете использовать данный справочник.

В случае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вопросов или же возникновения проблем необходимо обратиться в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центр Данури по телефону 1577 1366 круглосуточно 365 дней в году на 13 языках.

Я надеюсь, что данный справочник поможет иностранцу разрешить проблемы на ранних этапах проживания в Корее и быстро адаптироваться в 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

필자는 영구적으로 한국으로 이주하여 가족이나 친한 친구로부터 떨어진 후 처음에는 정서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아마도 한국어가 부족했기 때문에 문제가 심해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고 남편의 퇴근을 계속 기다리거나 친척들에게 물어봐야 했습니다. 따라서 특정 상황에서 어디로, 왜 가야하는지에 대한 필요한 모든 정보를 모국어로 된 일종의 참고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참고서가 바로 한국생활가이드북입니다.

한국 입국초기 필자는 다누리 홈페이지

지(www.liveinkorea.kr)에서 무료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한국 생활 가이드”를 보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여성가족부가 후원하는 이 가이드북은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북은 교통, 음식 및 주거와 같은 일상 정보부터 임시 거주 및 국적, 임신 및 육아, 아동 교육, 건강관리, 취업 및 직업 훈련까지 편안한 생활을 위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가이드북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정보가 매년 업데이트된다는 점이며, 가이드는 다누리 웹사이트 또는 동일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13개 언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필리핀), 크메르어, 캄보디아, 몽골어, 러시아어, 일본어, 태국어, 라오스 어, 우즈베크어, 네팔어)로 지원됩니다. 즉, 이 가이드북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가 질문이나 문제가 있는 경우, 13개 언어로 연중무휴 24시간 1577-1366번으로 전화하여 다누리 콜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외국인이 한국 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 사회에 빠르게 적응하는데 이 가이드북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율리아 경기외국인SNS기자

生平首次购房者,请申请减免所得税。

购买住宅取得国籍的多文化家庭也将在2021年12月31日之前享受减免政策

京畿道决定对首次购房者减免所得税,并接受京畿道居民的申请。此次措施是政府发表的《住宅市场稳定保安对策》的后续措施之一,目的在于减轻市民实际需要者的税金负担。

购买住宅时缴纳的所得税是,如果只有1套住宅,那么6亿韩元以下的住宅要交纳住宅价格的1%,6亿韩元以上9亿韩元以下的住宅要交纳2%,9亿韩元以上住宅要交纳3%。

如果买了价值6亿韩元的住宅,需要

缴纳600万韩元、10亿韩元的住宅,则需要缴纳3千万韩元的所得税,所以绝对不是少数。

从修正案的主要内容来看,无论婚姻与否、年龄如何,只要生平第一次购买住宅,任何人都可以享受所得税减免优惠。

之前没有拥有过住宅的新婚夫妇,从结婚之日起5年内购买4亿韩元以下的住宅时,才减免50%的所得税。

京畿道居民根据住宅价额的减免率扩大,购买住宅时价额在1亿5千万韩元以

下的可以免除所得税,超过1亿5千万韩元到4亿韩元以下的可以减免50%的购置税。

使用面积在60平方米以下的面积限制也消失了,居住面积的选择幅度也变大了。另外,新婚夫妇的减免可以放宽收入条件,不论是单职工还是双职工,只要夫妻合计收入在7千万韩元以下就可以享受优惠。

减免申请截止日期为2021年12月31日,向住宅所在地市郡税政部门申报、缴纳所得税时一并申请即可。

同时,政府发表房地产政策日7月10日以后取得(以剩余支付日为准),满足减免条件的纳税人只要提交减免申请书,就可以退还已申报缴纳的所得税。

但是,从取得该住宅之日起,作为1户1住宅必须在3个月内开始居住,并维持3年的常住。

如在不满足该条件或常住时间不足3年的状态下,将该住宅出售、赠与或用作其他用途(租赁等)时,可追缴减免的所得税。<한글 기사 18면> 왕그나 기자

Возобновление скидок на проживание и проезд во время путешествия, иностранные резиденты так же как и корейцы могу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Государство возобновило поддержку скидок на проживание и поездки во время путешествия, которые из-за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Corona 19 были приостановлены в августе.

Однако, в случа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Corona 19, проект будет отменен или отложен.

Во-первых, с 28 числа возобновится проект поддержки отпусков сотрудников. Рекрутинговые компании и работники, которые хотят участвовать, могут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а бронирование на «домашней странице проекта поддержки отпусков для труженников».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ситуации с Corona 19 проект может быть приостановлен в любое время. В таком случае будет предложено «100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ей без личного посещения», выбранные Корейской туристиче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Бронирование скидок началось 30-го числа. Если вы бронируете 1000 туристических продюктов (337 туристических агентств), выбранных через онлайн-оператора Tide Square (Tourvis),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скидка около 30% до 60.000 вон. Места для путешествий были отобраны путем тщательного рассредотачивания по регионам. Назначенные руководители поездки будут ответственным и за карантинные меры. Во избежани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случаев в случае путешествия группами необходимо тщательно соблюдать основные правила карантина, такие как дистанция и ношение масок.

Ваучеры со скидкой на проживание будут доступны с 4 ноября на 27 сайтах онлайн-бронирования жилья. Если сумма бронирования до 70.000вон, то скидка составит 30.000вон, а в случае превышения 40.000вон скидки могут быть использованы сразу после бронирования. В целях профилактики на Рождество и конец года (24-31 декабря) были исключены из периода действия купона на скидку.

С 4 ноября можно получить скидку до 60% на сайте Interpark. Ваучеры на скидку распределялись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размером зон развлечений, чтобы предотвратить концентрацию использования определенных объектов. Будет реализовано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карантинными правилами, такими как ограничение в 50% количество людей, на столичной территории.

Министерство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директор Бюро турист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и Бо Гын Чой отметил: «Есть опасения по поводу возобновления использования купонов на скидку в ситуации связанной с COVID-19, но мы сделаем все возможное, чтобы предоставить туристической индустрии возможность более тщательно проверять карантинные меры. Мы рекомендуем вам бронировать в основном тихие туристические направления, используя службы прогнозирования путешествий, а не известные туристические направления».

<한글 기사 16면>

장울가 경기외국인SNS기자단

다문화가족에 도움 되는 정보 광명시, 시민 위한 다양한 사업

광명시는 다문화가족 및 다양한 가족에게 도움이 될 사업 및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맵

‘광명시 스마트시티맵’은 광명시가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한 것으로, 시민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내 주변 안전시설 및 공공 편의시설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제공 정보로는 ▲교통CCTV 및 시가지 CCTV의 실시간 영상 ▲자동심장충격기(AED) ▲대피소 ▲공공 와이파이 ▲여성안심택배 등 8종으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통해 도시통합운영센터와 공공데이터 포털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연계하여 표출한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이동하는 청춘 심(心)다방

광명시는 코로나19로 지친 광명시 청년들의 우울 및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이동하는 청춘 심(心)다방’을 운영한다. 광명시에 거주하는 만19세~34세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매월 2, 4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광명시장에인종합복지관 내 보나카페에서 이용 가능하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장소 및 시간은 조정될 수 있다. 02-897-7786-7

#모바일 헬스케어 건강서비스

광명시보건소는 스마트폰 건강관리 앱을 통해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2020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고 참여자 40명을 선착순으로 추가 모집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6개월간 3회 보건소를 방문하여 건강검사(신체계측·혈액검사)를 받고, 모바일 앱과 연동된 스마트워치(활동량계)를 통해 식생활, 운동 지도 등 24주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는다. 문의 02-2680-0797 김영의 기자

맞벌이가족을 위한 (코로나19 심리적 방역Project)

2020 우리가족사랑만들기 **신나는 농촌체험**

가을 나들이

쌀찐방 만들기 | 표고버섯 장아찌 만들기 | 인절미 떡매치기

※ 본 프로그램은 방역수칙을 준수합니다 ※

일시 2020.11.07(토) 09:00~16:00 **장소** 이천 도니움마을 -센터에서 집결

대상 광명시 맞벌이가족 10가족(30~40명 이내) **참가비** 가족당 2,000원 -법정 취약계층 면제

①순위신청가족
②순위신청순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부 집단 심리극

소통이 필요한 부부를 위한 시간

당신과 나의 이야기

2020 11. 14 ~ 11.28
매주 토요일 (3회)
10:00 ~ 12:00

서로의 이해 시간이 필요한 부부 5쌍 (10명)
신청서 작성 후 센터 이메일 발송 (gmfc79@naver.com)
접수 및 문의 02-6265-1366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친구와 함께하는 즐거운 놀이

사회성향상 그룹놀이프로그램

기간 2020년 11월 ~ 12월(주 1회, 총 6회)
대상 다문화가정 자녀 및 취약계층 자녀 연령별 2~4명
내용 그룹놀이치료 100분 + 부모양육코칭 20분
기대효과 새 친구 사귀기가 자신 있어요!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게 재미있어요!
양보와 배려, 공감과 이해의 마음을 알아요!

미취학반(5~7세) 목 14:00-16:00 | 저학년반(8-10세) 목 16:00-18:00 | 고학년반(8-10세) 토 10:00-12:00

이용요금 회기 당 5,000원(취약계층 무료)
신청문의 02-6265-1366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 강사와 함께 집에서 세계요리 배워요"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집에서 만나는 세계요리, 집만세!' 운영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임무자)는 지난 9월 25일부터 주민 참여형 소통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집에서 만나는 세계요리, 집만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집에서 만나는 세계요리, 집만세!'는 지구촌 곳곳의 세계음식을 가정에서 함께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기획된 온택트 음식문화 체험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전문 요리교육을 수료한 결혼이민자 강사의 온라인 라이브 화상 강의를 통해 진행되며, 강의 전일 재료 꾸러미를 받은 뒤 참여할 수 있다. 코

나 19로 대면접촉이 조심스러워진 상황에서 다문화 및 비다문화 가족의 만남을 독려하고 지역사회 문화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기획된 본 프로그램은 온택트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용자 A씨는 "코로나로 인해 타인과의 대면이 힘든 시기에 온라인으로나마 함께 소통할 수 있어 무척 좋았다. 다른 나라의 이야기도 듣고,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세계여행을 한 듯한 기분이었다."라며 프로그램 참여 소감을 전했다.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다문화가정과 비다문화가정의 연결을 돕고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에서 만나는 세계요리, 집만세!' 프로그램은 광명시 거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매주 수요일 진행되며, 최대 2회기까지 참여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gmfc.familynet.or.kr>) 및 페이스북을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광명시 다양한 가족의 행복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든다는 믿음으로 광명시의 보편적 가정의 행복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다문화가정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통합지원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놀이치료 전문가 심리놀이 광명건가다가 마음 놀이터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임무자)는 놀이치료 전문가와 함께하는 자유로운 심리놀이활동인 '마음튼튼 놀이터'를 연중 수시로 진행한다.

놀이를 통해 표현되는 마음의 의미를 찾는 과정으로 아이에게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과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 및 아이의 마음을 읽고 잠재된 발달 가능성을 찾아줄 수 있다. 유. 아동부터 초등학생까지의 다문화가정 자녀 혹은 취약계층 자녀 대상이며 회기당 5000원씩의 이용요금을 내야 한다. 단 취약계층은 무료다. 주 1회 50분씩 진행되며 부모상담 10분 포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센터(02-6265-1366)로 하면 된다.

센터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은 아이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올바르게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건강한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이라며 "다문화가정 자녀와 취약계층 자녀 등 관심 있는 가족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마음튼튼 놀이터

놀이치료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하는 자유로운 심리놀이활동!
놀이를 통해 표현되는 마음의 의미를 찾으며 성장하는 곳 ☺

- ☑ 우리 아이에게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다면
- ☑ 우리 아이에게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다면
- ☑ 아이의 마음을 읽고 잠재되어 있는 발달 가능성을 찾아주고 싶다면

- 대상자** 다문화가정 자녀 혹은 취약계층 자녀
- 연령층** 유아동부터 초등학생까지
- 이용요금** 회기당 5,000원(취약계층 무료)
- 이용시간** 주 1회, 50분(부모상담10분포함)
- 모집기간** 연중수시(1월-12월)
- 문의사항** 02-6265-1366



한국어 교육 수강생 모집

..... 우리 같이 공부 하자

한국어 고급 말하기반

10월 6일 개강

"한국어 말하기 및 관용어 표현 배울 수 있는 기회!"

- 수업기간** 10월 6일 ~ 12월 10일
매주 화, 목 13-15시 (총 20회)
- 대상자** 한국어 4단계 이상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 수업신청** 전화 02-6265-1366
담당자 장원희
*센터방문시 사전전화 필수
- 수업비** 무료 (교재비 별도)
- 수업방식** 온라인 수업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센터수업으로 변동 가능



“연애할까? 결혼할까?” 미혼남녀교육 김포건강가다가, 2020 행복한 가족프로그램 진행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연화)는 지난 10월 16일부터 30일까지 총 3회기에 걸쳐 미혼남녀 5쌍을 대상으로 ‘미혼남녀교육’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해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과 발열체크 등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했다.

2020행복한가족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한 교육 1회기는 ‘모양은 다르지만 건강한 가족입니다’를 주제로 ‘에너지그램을 통한 나의 성격유형’ 및 다양한 가족이해교육으로 자기성격 및 예비배우자의 성격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 2회기에는 ‘미혼남녀 경제재무교육’ 에너지 통장이야기를 주제로 박상훈 지속가능한 가정경제연구소장이 강사로 나서 주택구입, 통장관리, 용돈사용, 저축과 제테크 등 다양한 경제재무교육이 진행됐다.

3회기는 ‘생활설계와 소통 및 여가교육’으로 미혼남녀

대상 효과적인 소통교육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생활양식을 찾아보고 선택,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건강한 이성교제 및 올바른 배우자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으며 ‘우리를 위한 브런치 접시만들기’ 여가문화교육 도자기체험이 실시됐다.

김연화 센터장은 총 3회기 교육에 참여한 미혼남녀에게는 ‘행복면허증’을 수여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커플은 “이번 교육에서 남녀 간 소통의 기술, 멋진 예비부모 되기, 경제재무교육, 예비가족 교육 등을 통해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에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0행복한가족프로그램’은 생애주기별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문화, 체험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풍무도서관, 연말 뮤지컬 진행 ‘빨간코 루돌프와 산타클로스’

김포시 풍무도서관은 오는 12월 5일 연말을 맞아 뮤지컬 공연 ‘빨간코 루돌프와 산타클로스’를 진행한다.

극단 ‘씨앗’과 함께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전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창작극으로,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어린 사슴 루돌프와 산타, 깔깔마녀 등 다양한 인물이 등장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이야기로 진행된다.

50분 동안 춤과 노래로 관객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교훈까지 얻을 수 있는 따뜻한 공연이 될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자 명부작성, 발열 및 의심 증상 체크, 다목적실 수용 인원의 절반 입장 및 좌석 간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된다.

12월 5일(토) 오후 2시부터 풍무도서관 3층 다목적실에서 진행되며, 11월 9일(월)부터 풍무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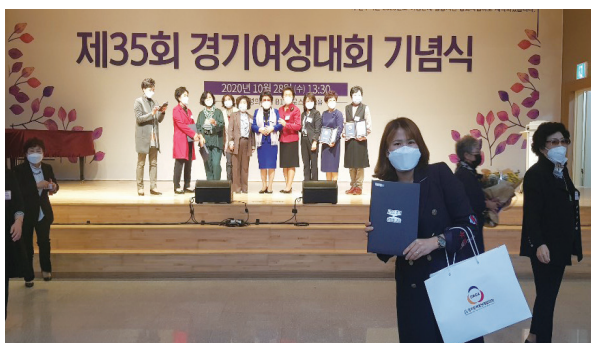
가족 단위로 접수를 받아 접수 인원 1명 당 최대 4명이 동반 입장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도 물론 참여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풍무도서관 홈페이지(<http://www.gimpo.go.kr/pungmu/index.do>) 또는 전화(☎ 5186-4867)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김태희 씨 경기여성기에경진대회 이주여성백일장 부문 최우수상 수상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제35회 경기여성대회 개최 ... 경진대회는 올해 비대면 진행



김포시에 거주하는 김태희 씨가 제35회 경기여성기에 경진대회에서 이주여성백일장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김포시 배지현 씨는 양성평등 유공표창을 받기도 했다.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금자)는 지난 10월 28일 오후 경기여성의전당 돌로스문화홀에서 ‘제35회 경기여성대회 기념식 및 경기여성기에경진대회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금자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경기여성대회는 지역에서 대가없이 열심히 봉사해온 여성들을 기리고 여성



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분들을 격려하고 축하하고 있다”며 “여성은 코로나 시대에서 사회 각 분야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경기여성들의 국가의 경쟁력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지역에서 더욱 사랑받는 단체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미리 전달된 격려사를 통해 “우리 사회는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유리천장에 가로 막혀 공정하게 부여받아야 할 기회를 박탈당한다”며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지

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올해 제35회 경기여성기에경진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처음으로 비대면 공모전으로 진행됐다. 이 대회는 1986년부터 매년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를 증대시키고 나아가 여성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자 개최되고 있다.

이를 통해 방과후교사, 취업, 작가 등단, 창업 등 사회에 활발히 참여하고 여성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해 왔다. 경진대회는 공모부문에 시, 수필, 이주여성 백일장, 회화, 사군자, 캘리그래피 그리고 경진대회 부문에 한지공예, 꽃꽂이 등으로 진행됐다.

심사 결과 해마다 다문화가족이 가장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이주여성백일장 부문은 김태희 씨가 최우수상, 염성연(수원시) 이경숙(김포시) 씨가 우수상, 도티향(동두천시) 콤포스(안성시) 디오베를린 바일라(하남시) 씨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김태희 씨는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통번역지원사로 근무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순남 경기도청 여성가족국장이 참석했다. 송하성 기자



김포 외국인 시민을 위한 가이드

Guide For Foreigners in Gimpo City



김 포 시

전입 체크리스트

- ✓ 체류지 변경신고 및 확정일자**
 - 체류지 변경신고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김포시청 민원실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www.hikorea.go.kr 인터넷 신고 가능
 - 확정일자 신분증, 계약서 원본 지참하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등기소 방문
- ✓ 도시가스 이전 및 전기 차단 / 각종 공과금 · 관리비 정산**
 - 전기 한국전력공사 ☎ 123
 - 도시가스 서울도시가스김포지점 ☎ 031-984-8008
 - 수도 김포시 수도과 ☎ 031-980-5113
 - 전기배달 중지 및 자동이체 해지
- ✓ 주거지 변경**
 - 인터넷, 집전화, 케이블TV 이전 설치 요청
 - 은행, 신용카드 회사 주소변경 주소변경 원클릭 서비스 | www.ktmoving.com
 - 우편물 주거이전 서비스 신청 인터넷 우체국 신청 | www.epost.go.kr
 - 각종 세금 및 자동차(이륜차포함) 등 자동변경 단, 외국인은 개별 신고
- ✓ 전학 문의**

김포교육지원청 ☎ 031-980-1125

공공기관

■ 행정복지센터

구분	주소	전화번호	구분	주소	전화번호
통진읍	김포대로2250번길 24-11	980-5303	장기본동	김포대로 1433	980-5235
고촌읍	장차로 14	980-5265	사우동	둘문로 51	980-5243
양촌읍	양곡1로68번길 37	980-5288	풍무동	풍무로 74	980-5384
대곶면	율생로 83-23	980-5328	장기동	김포한강2로 112	980-5971
월곶면	군하로 263	980-5348	구래동	김포한강9로115번길 25	980-5833
하성면	애기봉로 845	980-5367	마산동	김포한강3로 432	5186-3153
김포본동	북변1로 13	980-5202	운양동	모담공원로 32	980-5812

- 김포시보건소 사우동 사우중로 108 ☎ 031-980-5011
- 김포경찰서 장기동 태장로795번길 65 ☎ 031-950-2324
- 김포소방서 걸포동 감암로 111 ☎ 1666-1190
- 김포세무서 장기동 김포한강1로 22 ☎ 031-980-3200

생활정보 *Daily Life Information*

- 김포골드라인 (김포철도)** 양촌 - 구래 - 마산 - 장기 - 운양 - 걸포북변 - 사우(김포시청) - 풍무 - 고촌 - 김포공항
- 깨끗한 김포**
-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 평일, 일요일 20:00~24:00
※ 토요일은 배출하지 마세요. (일요일은 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 종량제 봉투 사용(가까운 마트에서 구입 가능)
※ 무단투기 처벌 조항
쓰레기를 불법으로 배출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대형폐기물 인터넷배출신고 또는 배출스티커구입 ▶ 수거업체에 전화 ▶ 스티커부착 후 지정장소 배출
- | 수거업체 | 연락처 | 수거지역 |
|----------|--------------|-------------------------------|
| (하)상인 | 031-989-9061 | 양촌읍, 장기동, 운양동, 장기본동, 구래동, 마산동 |
| (하)우림 | 031-989-9268 | 사우동 |
| 부일환경(주) | 031-982-2241 | 김포본동(북변동, 걸포동, 감정동) |
| (하)선경에코텍 | 031-987-6033 |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
| (하)세일환경 | 031-987-0543 | 고촌읍 |
| 제일환경(주) | 031-997-2771 | 풍무동 |
-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 1599-0903
- 지방세**
- 지방세 종류 ☎ 1644-8704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 외국인등록일로부터 주민세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1년 경과 시 11,000원의 주민세 납세의무 발생



- 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 031-986-7660
-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김포출장소 ☎ 1345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110번길 52
- 김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1-996-5920, 5923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564(구래동, LH한가람마을2단지 내)
- 김포시청 ☎ 031-980-2114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편의시설 *Convenient Facilities*

- 문화공간**
- 김포아트빌리지(김포한옥마을) 모담공원로 170 ☎ 031-996-6836
 - 김포아트홀, 김포시민회관, 통진드레문화센터, 월곶생활문화센터, 김포평화문화관 등
- 공원**
- 아라마리나 고촌읍 아라육로270번길 74
 - 걸포중앙공원 걸포동 1550-2
 - 태산패밀리파크 하성면 하성로 585
 - 김포국제조각공원 월곶면 용강로13번길 38
 - 야생조류생태공원 운양동 김포한강11로 455
 - 김포합상공원 대곶면 대명항1로 110-36
 - 한강중앙공원 장기동 초당로 40
 - 한강신도시호수공원 마산동 617-2
- 도서관**
- 장기도서관 장기동 김포한강2로 42 ☎ 031-5186-4680
 - 중봉도서관 북변동 봉화로130번길 26 ☎ 031-5186-4800
 - 양곡도서관 양촌읍 양곡4로197번길 40 ☎ 031-5186-4830
 - 고촌도서관 고촌읍 장차로 14 ☎ 031-5186-4850
 - 풍무도서관 풍무동 풍무로146번길 101 ☎ 031-5186-4870
 - 통진도서관 통진읍 조강로 132 ☎ 031-996-0750
 - 경기김포교육도서관 사우동 봉화로 68 ☎ 031-984-3536
 - 작은도서관 누리봄, 대곶, 구래, 운양, 스마트(구래역, 사우역)
- 다문화 도서 대출·열람 가능 (※ 작은도서관 제외)



- 지역응급의료센터**
- 김포우리병원(걸포동 감암로 11) ☎ 031-999-1000
 - 뉴고려병원(장기동 김포한강3로 283) ☎ 031-980-9114
- 시민과 협업하는 김포**
- 김포시청 홈페이지(www.gimpo.go.kr) 시민참여 게시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올려주세요
- 김포 SNS**
- @gimpomaru
 - http://blog.gimpo.go.kr
 - facebook.com/gimpocity.kr
 - e-gimpomaru.gimpo.go.kr

부부집단상담으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김포 부부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김포시 행복한 부부학교 진행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연화)는 매년 ‘김포시 행복한 부부학교, 부부집단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도 더 행복해지기 원하는 김포시의 부부 7쌍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7일 행복한 부부학교를 진행했다.

1회기에는 김연화 센터장이 ‘푸드아트’를 통한 부부는 최고의 놀이친구’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먼저 배우자를 위한 다과상 차리기를 통해 평소 배우자가 좋아하는 취향을 얼마나 아는지 점검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연습을 했다. 이어 다양한 재료로 푸드아트예술놀이를 하며 부부 각자가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고 소통하면서 부부소망 합동화를 만드는 과정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서로에 대한 애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2회기에는 조금량 강사가 ‘이그그

램&오케이그램’ 검사를 통해 부부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나와 다른 배우자를 어떻게 존중하며 대할 것인지에 대해 배웠다.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부 대화법도 연습했다.

3회기에는 임향란 도예전문가의 진행으로 ‘부부는 예술가!(브런치접시만들기)’를 진행했다. 도예를 활용해 서로 통하는 멋진 부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번 행복한 부부학교에 참여한 한 부부는 “쉬고 싶은 주말 오후에 긴 시간을 함께해준 배우자에게 고맙다”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었고, 부부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부는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어서 행복했다”며 “부부가 데이트하듯이 함께 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고 대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센터 관계자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부부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니 보람을 느꼈다”며 “힘든 일상에 서로를 바라볼 여유 없이 열심히 살던 부부들이 배우자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 큰 성과”라고 말했다. 센터는 11월에도 부모자녀집단상담을 통해 부모자녀가 서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전문이고 체계적인 가족통합사업을 통해 앞으로도 가족문제예방 및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가족상담, 교육, 문화체험 등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개인 및 가족상담 신청은 031-996-5921, 사례관리상담은 031-996-5920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지은 기자

김포·부천지역 온라인 면접경진대회 개최

부천김포청년고용협의회 주관으로 오는 11월 2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 면접 경진대회가 개최된다. 취업을 원하는 다문화가족도 적극 참여해 볼 만 하다.

청년일자리 지원 혁신사업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경진대회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을 통해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사전 직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서류 컨설팅 및 산업체에서 필요한 인재를 직접 채용하는 산업체-인재 매칭을 위해 마련됐다.

부천·김포지역 대학생 및 특성화고교생, 일반 청년을 대상으로 인사전문위원 등 면접 전문가 온라인 면접특강, 입사지원서 컨설팅 등을 거쳐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본선대상자 5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본선은 11월 12일부터 17일까지 김포대학교와 부천대학교에서 실시하며 23일 최종 우수자 8명을 선발해 10만원에서 30만 원 상당의 상품과 함께 구인 희망업체에 취업을 매칭한다.

온라인 면접 콘테스트는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이 주최하고 김포시 등 19개 기관이 주관한다. 이지은 기자



"5년 이상 근로소득세 내는 외국인도 '세대주·세대원' 포함해 세제혜택 줘야"

김주영 국회의원, "주택마련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인정" 등 외국인주민 권익 옹호

국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은 근로소득세를 똑 같이 납부하면서도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아 주택마련대출 이자상환액 세액공제에서 배제되어 왔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지난 10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시갑)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외국인이 국내에서 장기간 근무해 내국인과 동일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더라도, 법적 소득공제 주체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출이자 소득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이기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대주·세대원’은 주민등록법상 용어이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 대상이 아니라 출입국관리법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른 등록 대상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소득공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제도’를 의미한다. 내국인의 경우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2014년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3억 원 이하)라는 요건을 갖추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최근 국민신문고 및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실제 사례 또한 언급했다. 특히 5년 이상 외국인노동자로 일하며 주택마련대출까지 받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계속 거주할 의향을 갖고 영주 비자를 받아 체류 중이거나, 내국인과 결혼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한국인이고, 5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근로소득세 또한 원천징수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노동자라는 이유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내에서 5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방식·세율·일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대상이다.

김주영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공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노동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을

한 건수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만도 1만5988건에 이른다. 액수로 따지면 1조 9800억원 규모다. 특히 국제결혼과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는 추세의 영향을 받아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차입기관은 대부분 은행권이다. 대부분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집임을 고려하면 이해 당사자가 적지 않다.

나아가 김 의원은 이미 ‘외국인 근로 소득자에 대해 주택자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인정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2015서5413)가 존재하고, 또 실제로 과세연도별로 해당 공제를 받은 외국인노동자 또한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내에 거주하며 직장생활을 하는 외국인 다문화가정 등 그 가족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에 대표발의했다고 알렸다.

이 법안의 목표는 국내에서 5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이 주택마련대출을 받았을 때, 그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것이다.

송하성 기자

'어렵지만 새로운 도전' 통번역으로 취업문 연다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통번역 인재양성과정' 운영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통번역 인재양성과정'을 지난 6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 진행했다.

통번역인재양성과정은 ㈜아시아언어와 연계하여 의료통역, 역사 전통관광통역, 시사통역, 사법통역, 수사기관통역, 난민통역, 번역 등 다양한 통번역 분야를 커리큘럼으로 계획하여 강의가 이뤄졌다. 실제로 28회, 29회기에 test를 보아 자격증 제공이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강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수업이었다.

하지만 통번역인재양성과정 수업은 총 13명 학습자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참여해 강

의가 진행됐으며, 이중 1명은 취업에 성공하여 목적을 달성했다. 또 9명은 수료, 시험성적과 출석률이 좋은 7명은 자격증을 발급받았다. 아쉽게도 다른 학습자 3명은 개인 사정과 난이도 상 문제로 중도 포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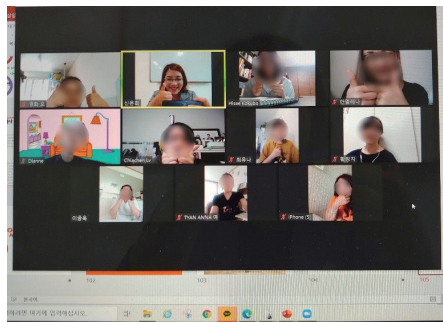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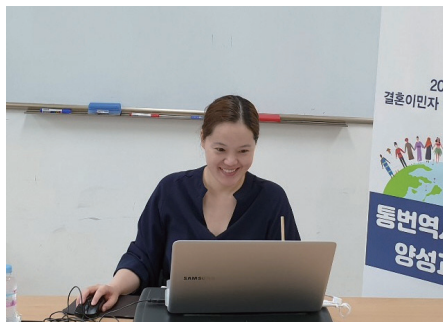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통번역인재양성과정'은 수료식까지 총 31회기 교육이 진행되었고 10월 22일까지 자격증 심사 및 배움이 이루어져 과정이 종료되었다.

과정을 마무리하면서 참여자들은 "어려웠지만 큰 의미가 있는 강의였다", "많은 것을 배운 프로그램이었다", "도전할 수 있어서 좋았다", "자격증을 취득해서 큰 성취감을 느꼈다"라고 전하는 등 참

여하는 것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센터는 코로나 19 상황으로 대면강의가 불가능함에 따라 이번 통번역인재양성과정도 비대면 줌(ZOOM)을 이용한 화상수업을 진행했다.

센터 관계자는 "대면강의에 비해 제한적인 교육 환경으로 30회를 마무리한 것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하지만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앞으로도 비대면 관련한 프로그램들과 사업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기획하여 현 상황에서도 여러 다문화가족들에 유익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과천간디다가, 청소년기 자녀 부모 대상 '생활 속 가족두기'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코로나19시대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인 '생활 속 가족두기'를 진행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이 증가한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 대상 집단상담으로 과천에 거주하거나 재직 중인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생활 속 가족두기'는 11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총 6회기 진행되며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신청과정에서 줌으로 참여하면 된다.

접수는 센터 홈페이지 및 전화(02-503-0077)로 받는다.

센터는 또한 2020년 관계향상지원사업 통합프로그램 '부부의 발견'을 11월 14일부터 28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줌으로 진행한다.

과천시 관내 거주하거나 재직 중인 부부 8가정 대상이며 다문화가정 부부 및 비다문화가정 부부 대상이다. 언어의 발견, 시간의 발견, 부부의 발견, 희망의 발견을 주제로 부부교육 및 부부 관계향상 활동 등이 진행된다. 김영의 기자

ZOOM **코로나19시대** **집단상담**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생활 속 가족두기

내용 코로나19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이 증가한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 대상 집단상담

모집대상 과천에 거주하거나 재직중인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

일정 11월 4일(수) ~ 12월 9일(수) 총6회기
10:00 ~ 12:00

장소 신청 가정에서 ZOOM으로 참여

접수 센터 홈페이지 및 전화

문의 02-503-0070 담당자 이심숙

2020년 관계향상지원사업 통합프로그램

달콤쌩쌩한 부부의 관계 만족도 높이기 프로젝트

부부의 발견

#교육으로 머리와 마음 충전
#그와그녀, 부부
#홈데이트 #홈리마인드 셀프웨딩 촬영

대상: 관내 거주하거나 재직중인 부부 8가정 (부부 모두 필수참여)

접수방법: 통합프로그램으로 다문화가정 부부, 전화접수
비다문화가정 부부, 홈페이지접수

문의: ☎02.503.0070(최은정 사회복지사)

신청
홈페이지
및 전화

10/26(월)~11/6(금)

활동
키트
수령

11/12(목)~11/13(금)

줌
(ZOOM)
설치

링크
놀러
자동
입장

화상
수업
참가

11/14(토), 11/28(토)

비대면
집콕
활동

11/21(토)

카카오채널
인증샷
발송

11/25(수)

일정	주 제	방 식
11월 14일(토) 10:00~12:00	언어의 발견 가족 내 흐르는 사랑의 법칙 이해	[부부교육1] Zoom앱 화상수업
11월 21일(토) 자유 시간	시간의 발견 홈 무알콜 칵테일 체험	[부부 관계향상 활동1] 비대면 집콕활동/ 홈 무알콜 칵테일 체험 키트 제공
11월 28일(토) 10:00~12:00	부부의 발견 홈 리마인드 셀프웨딩 촬영 체험	[부부 관계향상 활동2] 비대면 집콕활동/ 홈 리마인드 셀프웨딩 키트 제공
	희망의 발견 우리 부부의 갈등해결기술 습득 워크샵	[부부교육2] Zoom앱 화상수업



결혼이민자, 요리로 배우는 행복한 한국생활 안양건강가정·다문화한국요리교실 '행복한 밥상' 운영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오연주)는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2차에 걸쳐 다문화 한국요리교실 '행복한 밥상'을 운영한다.

'행복한 밥상'은 총 10회기에 걸쳐 34명의 입국 초기 결혼이주인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1차로 10월 16일~ 11월 13일까지 매주 금요일 17명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2차는 10월 23일~ 11월 20일까지 매주 금요일 17명 대상으로 진행된다. 수업은 1회 2시간씩 2~3개 메뉴 시연 및 실습으로 이뤄진다. 이번 한국요리교실은 대림대학교 평생교육원과 호텔조리과에서 협력하여 학습에 최적화된 대학교 내 조리실을 제공하며 한식 전문 박현자 교수가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

'행복한 밥상'은 베트남, 중국, 러시아 등 다양한 문화를 배경으로 한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안양시 차원에서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협력한 대림대학교 측 책임자인 호텔조리과 서민석 교수는 참여자들에게 참여 독려와 더불어 "향후 커리큘럼에 대한 안내와 원하는 한식

메뉴를 요청하면 이번 프로그램에도 반영하겠다"라고 전했다. 강의를 맡은 한식 전문 박현자 교수는 "결혼이주여성의 초기 정착에 음식문화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참여자들이 배워나가는 데 어려워하지 않도록 단계별로 실습하면서 진행하겠다"라고 했다.

또한, 당일 교육에 참여한 베트남 출신 후인터투이씨는 "한국요리교실을 통해서 한국문화를 더 이해할 수 있었고 가족들에게 한국 음식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했다.

지난 10월 16일에 진행한 한국요리교실의 메뉴는 '자반고등어찜'과 '월과채'로 참여자 모두 만족하며 앞으로 진행할 한국요리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오연주 센터장은 "결혼이주인 여성들에게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다문화 가족들에게 활력소를 줄 기회인 것 같아 기쁘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안양건강가정, 사업보고대회 11월 18일 온라인으로 만나요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20년 사업보고대회'를 11월 1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Zoom을 활용해 사업보고대회 생중계를 오후 2시부터 40분간 진행하며, 가족이 함께하는 이벤트는 유튜브를 이용해 오후 2시40분부터 5시까지 운영된다.

사업보고대회는 '함께하는 우리를 통해' 다우니와 함께 하는 음악, 칭찬 더하기가 진행되며 '나누는 우리'는 함께 했던 우리들 이야기와 함께 해준 고마운 이웃사촌을 만나본다. '전하는 우리'에서는 가족에게 전하는 사랑의 언어와 2021년에 전하는 희망의 언어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모두가 족보사단 5차 활동을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각 가정에서 활동을 진행하며 지역사회 나눔 활동으로 주방용 수세미 만들기 활동이 진행된다. 참여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이메일(health40@daelim.ac.kr)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센터(031-8045-6391)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
온라인으로 만나요!!

2020년 안양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보고대회

11월 18일(수) 14:00~17:00

Zoom 사업보고대회 생중계 14:00~14:40

YouTube 가족이 함께 하는 이벤트 14:40~17:00

함께 하는 우리

- 다우니와 함께 하는 음악
- 칭찬 더하기

나누는 우리

- 함께 했던 우리들 이야기
- 함께 해준 고마운 이웃사촌

전하는 우리


- 가족에게 전하는 사랑의 언어
- 2021년에 전하는 희망의 언어

Zoom 기법식 행사 진행(Zoom)

-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미리 영상의회의 프로그램(Zoom)을 설치해주세요.
- 행사 당일 홈페이지에 공지된 접속 주소를 통해 입장해주세요. (핸드폰, PC, 노트북, 태블릿 등)
- 행사 참석 시 본인(실명)으로 입력하신 후, 영상은 활성화, 음성은 비활성화(음소거)로 설정해주세요.

YouTube 이벤트(YouTube) 참여방법

- Youtube에서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검색
- 14:40부터 17:00까지 이벤트 영상 확인 후 가족에게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 댓글 남기기, 댓글에는 휴대폰 전화번호 끝 4자리 남기기
- 메시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우선 작성한 참여자로 선정
- 댓글 선착순 300명에게 3,000원 상당의 기프티콘 선물
- ※ 욕설, 비방, 혐오 표현은 금지하며 정치, 종교적 내용 배제



2020년 다문화가족예비초등부모및초등입학자녀적응프로그램

"두근두근 첫 등교"

초등학교 입학 전 학습과 생활습관 부분을 어디까지 준비해야 할까요?
입학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 일정

구분	일시	대상(인원)	주제 및 내용
온라인 교육	11월 7일 토요일 10:00~12:00(2시간)	부모 (20명)	초등학교 입학 전 준비 방법 '즐거움 학교 생활' - 부모 : 학교 적응 활동 및 생활 안내, 자녀 양육법
	11월 14일 토요일 10:00~12:00(2시간)	자녀 (20명)	동시배우기와 우리 가족 입학 복 만들기 '짜잔 나도 이제 1학년' - 자녀 : 책 속에 담긴 내용인지, 자기감정 및 생각 표현
	11월 21일 토요일 10:00~12:00(2시간)	간이 (40명)	나만의 입학 복 만들기와 즐거운 음악 놀이 '짜잔 나도 이제 1학년' - 부모/자녀 : 자기감정 표현 미술 활동 등 통한 성취감 경험

♥ 대상 : 안양시 거주 다문화 예비 초등 부모 및 자녀 20가족

※ 예비 1학년(7세) 우선지원, 인원 모집 미달 시 6세 신청 가능

♥ 신청 및 문의 : 문화특성화팀 언어발달지도사 길소민
☎ 031-8045-5709



센터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8, 별관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함께하는 기부, 행복한 안양

2020년 제7회 안양시 기부의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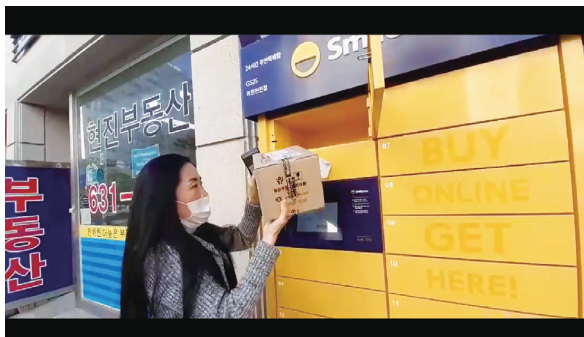
행사내용 : 기념식, 모금행사
장 소 : 시청 앞마당
일 시 : 11. 3(수) 10:30 ~ 11:40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
(유튜브에서 안양시를 검색하세요)



인터넷 쇼핑 в Корее и как не потерять посылку

다문화가족이 택배 잃어버릴 걱정하지 않고 한국의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기 '스마일 박스'



Здравствуйте меня зовут Марина и сегодня я хочу вам рассказать об интернет шопинге на корейских сайтах, а также вы узнаете что такое smile box и чем он удобен. Как вы знаете интернет шопинг это очень удобно

Во первых это большой выбор товара, можно сравнить цены и посмотреть отзывы покупателей

Во вторых покупая вещь через сайт, вы накапливаете бонусы и получаете скидки, при постоянном использовании вы можете стать випклиентом и вам дается больше скидок на товары

И в третьих заказанные товары вы можете переадресовать на smile box

Что же это такое ? наверное вы иногда видели около магазина GS25 желтый шкаф с дверцами, он есть во всех городах Кореи, для чего же он нужен? Если вы покупаете через сайты Auktion, Gmarket и G9, то вы можете забрать свой заказ в этом smile box. Но многие могут возразить, зачем мне идти за посылкой куда-то, не легче ли просто на дом что бы принесли?!

На фб часто бывают сообщения что у кого то постоянно крадут посылки, я думаю что если вы воспользуетесь этим сервисом, то вы впредь не будете переживать об этом тем более что забрать посылку вы можете в любое время в течении недели.

Если вы хотите чтобы ваша посылка пришла на smile box, то вам надо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одной из трех программ- Auktion, Gmarket или G9, но G9 я не пользуюсь, поэтому его у меня нет

Давайте попробуем заказать через Gmarket, открываем это приложение и в строке поиск вводим что мы хотим купить. Например я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ищу себе микрофон и в поисковике вышло много разных микрофонов и цены тоже разные. Например я хочу купить этот микрофон, надо смотреть какие здесь отзывы о товаре, быстрая ли доставка, может магазин бракованный товар отправил. Внизу есть строка и на ней вы можете выбрать хотите ли вы положить товар в корзину или сразу купить, вышло окно и надо выбрать сколько штук вы хотите его купить и если у вас есть бонусы или скидки вы можете ими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Нажимаем на купить и на новом окне вышел адрес мой и телефон, если вы хотите чтобы ваша посылка пришла на smile box, то надо нажать на эту желтую кнопку и на карте выбираем самую ближайшую к вашему дому smile box, Нажимаем на подтвердить и вниз надо прокрутить страничку, там выбираем кредитную карту для оплаты и нажимаем на оплатить, вышло новое окно, надо поставить везде галочки и нажимаем на далее. На новом окне надо ввести 6ти значный код карты после этого ваш заказ оплачен.

После оплаты заказа к вам придет сообщение что ваш товар отправлен и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дней снова на каком то придет сообщение о доставке заказа с кодом и до какого числа вы должны его забрать, в противном случае его отправят обратно в магазин

Вот мы пришли за своим заказом и на окне нажимаем на начать. На новом окне будет две кнопки обычный клиент и доставщик. Нажимаем на клиент. На новом окне опять две кнопки найти заказ и обменять /вернуть заказ. Нажимаем на найти заказ. Далее выводит окно куда надо ввести код который вы получили по какому то и нажать на ок. Открывается дверца где лежит ваш заказ, после получения необходимо закрыть дверь. Вот и все. Это очень удобно, ваша посылка не потеряется и вы ее можете

забрать в удобное вам время до того времени которое указано в последнем сообщении.

한국의 온라인 쇼핑은 잘 활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이번에는 한국 사이트에서 온라인 쇼핑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고, 스마일 박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편리한 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온라인 쇼핑은 매우 편리합니다. 첫째, 다양한 상품이 있고 가격을 비교하며 고객 리뷰를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사면서 포인트를 모으고 할인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VIP 고객이 될 수 있으며 상품에 더 많은 할인이 제공됩니다.

셋째, 주문한 상품을 스마일 박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일 박스는? GS25 매장 근처에서 문이 달린 노란색 보관장을 가끔 본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거의 모든 도시에 있습니다. 옥션 Auction, 지마켓 Gmarket, G9 사이트를 통해 구매하면 이 스마일 박스에서 주문한 제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왜 어딘가에 소포를 받으러 가야 하는지, 집으로 가져가는 것이 더 쉽지 않은지 궁금해 합니다.

페이스북에는 누군가 집 앞에 배달된 소포를 자주 훔치는 글들이 있습니다. 스마일박스 서비스를 사용하면 주중 언제든지 자신이 원할 때 소포를 수령할 수 있고 도난 우려도 없습니다.

스마일박스를 통해 소포를 받으려면 Auction, Gmarket 또는 G9의 세 가지 프로그램 중 하나를 사용하면 됩니다. G마켓을 통해 주문해 보고, 이 애플리케이션 검색 창에 구매하고 싶은 제품명을 입력해 봅시다. 예를 들어, 최근 필자는 마이크를 사려고 하는데 검색하면 다양한 마이크가 나오고 가격도 다릅니다. 사고 싶은 마이크를 결정하면 여기에서 제품에 대한 리뷰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송 빠르기나 매장에서 결함이 있는 제품을 보낸 적이 있는지 등입니다. 하단에 라인이 있고 그 위에 제품을 장바구니에 넣을지, 바로 구매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매를 클릭하면 주소와 전화번호가 새 창에 나옵니다. 렸습니다. <중략.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경기도 국민SNS기자단을 검색하세요>

유마리나 경기도국민SNS기자단

“外国工人,请免费领取冬季外套。京畿道公职人员捐赠280多套”冬季外套分享大庆典

京畿道公职人员参加了为居住在韩国的外国人邻居举行的“冬季外套分享大庆典”，收集了280多件冬季外套。“冬季外套分享大庆典”是民间主办的捐赠活动，将藏在衣柜里的大衣等收集起来，分发给东南亚等没有冬季的国家出身的劳动者和外国邻居。

京畿道厅和高阳市、城南市、金浦市、抱川市、坡州市等5个市的公职人员通过此次活动捐赠了收集的夹克、大衣等280多件冬季外套。特别是京畿道厅外国

人政策科和家族多文化科在北部大厦分馆4层和南部大厦行政图书馆洞1层分别设置了冬季外套捐赠箱，接受了捐赠。

京畿道捐赠的冬季外套经过洗涤和干洗后，由主办方在大衣分享网站(www.lovecoat.co.kr)上登记并张贴。外国居民在10月12日以后在网站上确认自己喜欢的外套后，最多可以申请2件外套。

大衣有夹克、大衣、羽绒服等，男、女、成人及儿童

用等多种款式。

京畿道厅劳动局长金圭植(音)表示“在科罗娜19遭遇困难的情况下，希望对外国邻居有所帮助”，“今后将积极参与为弱势群体的分享活动，为劳动者而努力”。

捐赠的大衣经过清洗后，将通过分享大衣网站(www.lovecoat.co.kr)向外国人每人赠送2件。

<한글 기사 지난호 2면> 왕그나 기자

다문화가정 언어발달, 센터의 지원 가능인력 모두 참여~

화성다가, 소그룹 부모교육 통해 언어발달 지원 확고한 의지 심어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현주)는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5회기에 걸쳐 언어발달지원사업 ‘소그룹 부모교육’을 실시한다.

비대면 온라인강의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대구사이버대학교 언어치료학과 박상희 교수가 강사로 나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한다.

A과정은 자녀 언어연령 36개월 이전(36개월 전후도 교육신청 가능)의 다문화가정 엄마를 대상으로 10월 28일과 30일 2회기 동안 ‘엄마와 함께하는 언어이전기 발달 촉진 활동’과 ‘말을 못하는 아이에게 동화책 활용 방법 우리 아기 책읽기

에는 너무 어리지 않을까?’를 진행했다.

11월 2일과 4일, 6일에 각각 진행되는 B과정은 자녀 언어연령 36개월 이후 다문화가족 엄마를 대상으로 ▲아이의 언어를 발달시킬 수 있는 자극 방법 ▲동화를 활용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지도 방법 ▲6세 이상 아동의 한글 교육 방법을 각각 교육했다.

이번 언어발달 교육은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통역서포터즈 그리고 번역서비스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한국어 이해 표현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모국어로 번역한 수업자료를 제공하고 통역사 동행 등의 방법으로 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언어발달지원사업에 센터에 지원가능한 모든 인력을 동원해 중국어, 베트남어 번역자료를 제공하고 중국과 캄보디아 출신 통역사를 동행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다.

11월 5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전화접수는 031-267-8756~8790으로 하면 된다.

한편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1:1 맞춤 교육을 6개월 동안(주1-2회, 회당 40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정 자녀가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엄마의 불안한 한국어 실력 때문에 언어발달이 늦는 건 아닌지, 부정확한 발음을 배워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화성시 6일까지 연장접수

화성시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내달 6일까지로 1주일 연장했다. 소득기준도 완화했다. 당초 소득 감소 비율이 25% 이상이었던 기준을 코로나19로 조금이라도 소득이 감소했다면 지원하기로 했다.

단, 소득이 줄어든 정도를 비교해 예산 범위 내에서 순위에 따라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일용직과 영세자영업자 등 소득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는 신청자가 작성한 소득감소신고서를 통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할 방침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 인원별로 4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급하며, 12월 중 계좌이체로 지급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은 내달 6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이지은 기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안내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관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일시 1월~12월(매주 월~금) 9:00~18: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장소 유엔아이센터 4층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상 화성시 관내 다문화가족

비용 무료

이용방법 전화 문의 후 방문 및 예약

지원내용 “**의사소통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에 대한 통번역서비스 제공**”

- ▶ 입국초기 상담, 정보제공, 교육 및 프로그램 안내
- ▶ 가족 간 의사소통 지원 및 위기 대응을 위한 통번역
- ▶ 보육 및 교육기관 관련 통번역
- ▶ 행정·사법기관, 병원진료 등에 필요한 통역 파견 등
- ▶ 친정 부모 초청 필요 서류 안내
- ▶ 행정·사법기관 번역
- ▶ 센터 내 교육 및 프로그램 진행 시 업무와 관련된 통·번역

* 모든 서류는 공증 되지 않습니다

☎ 031-267-8769 Fax. 031-267-8791

경기도 화성시 태안로 145, 유엔아이센터 4층

여성가족부 지원 경기도 화성시 위탁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Hwaseongsi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소그룹부모교육

○ 일시 : 10월 28일(수), 30일(금) / 11월 2일(월), 4일(수), 6일(금) 10-12시
* 과정별 상이! 세부일정 참고

○ 장소 : 비대면 온라인강의(사이트 및 링크 추후 공지)

○ 주관 :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언어발달지원사업

○ 교수 : 대구사이버대학교 언어치료학과 박상희교수

○ 세부일정(아래 일정 중 희망 과정(A or B) 선택 (A,B **총복신청 가능**))

○ A 과정 : 자녀 언어연령 36개월 이전 (36개월 전후도 교육신청 가능)

과정	일시	주제	인원	
A	10/28(수)	10-12시	엄마와 함께하는 언어이전기 발달 촉진 활동	7명
	10/30(금)			말을 못하는 아이에게 동화책 활용 방법 -우리아기 책읽기에는 너무 어리지 않을까?-

○ B 과정 : 자녀 언어연령 36개월 이후 (36개월 전후도 교육신청 가능)

과정	일시	주제	인원		
B	11/2(월)	10-12시	아이의 언어를 발달시킬 수 있는 자극 방법	7명	
	11/4(수)			동화를 활용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지도 방법	7명
	11/6(금)			6세 이상 아동의 한글 교육 방법	7명

○ 신청방법 : 우선 전화접수 031-267-8756~8790

○ 접수기간 : 11월 5일(목) 까지

여성가족부 지원 경기도 화성시 위탁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Hwaseongsi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Иностранцы, со статусом пребывания, имеющего право на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

외국인주민 직업과 연간 소득액 제출 및 학령기 자녀 재학증명서 제출 의무화



Иностранцы, со статусом пребывания, имеющего право на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 должны предоставлять информацию о работе и годовом доходе. Иностранцы в возрасте от 6 до 18 лет должны предоставить справку о зачислении в учебное заведение.

Иностранцы, со статусом пребывания, имеющего право на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 должны предоставлять информацию о работе и годовом доходе.

В законе об иммиграционном контроле внесены изменения.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статьи 47 и 49-2 сообщается о том, иностранцы со статусом временного пребывания, которые могут работать, должны сообщать о своей работе и годовом доходе.

Иностранцы со статусом виз D-7 (нахождение в командировке), D-8 (инвестиции), D-9 (управление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ей), E-1 (профессор), E-10 (работник морского судна), F-2 (проживание), F-4 (этнические корейцы), F-6 (брачные иммигранты), H-2 (посещение с целью работы).

※ Однако виды виз F-2 (проживание): F-2-9 и F-2-11 исключены.

◆ Иностранец, с визой H2, F4, D7, D8, D9, E1, E10, F2 и F6, сменивший место работы, обязан в течение 14 дней оповестить об этом иммиграционный офис, предварительно встав в очередь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 Содержание заявления: род занятий, годовой доход

□ Заявительный период: при регистрации иностранца.

※ Порядок уведомления уж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

нных иностранцев будет объявлен отдельно.

□ Документы, которые необходимо предоставить: Документы, в которых указывается род занятий и годовой доход, такие как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е,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бизнеса, трудовой договор, справка о доходах.

□ Дата вступления в силу: `20. 9. 25 (пт)

Источник:

<https://www.hikorea.go.kr/board/>

◆ Иностранцы в возрасте от 6 до 18 лет обязаны предоставить справку о зачислении в учебное заведение.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татьями 47 и 49-2 Закона о б иммиграционном контрол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е иностранцы в возрасте от 6 до 18 лет должны сообщать о о зачислении в учебное заведение.

□ Участники: все иностранцы в возрасте от 6 до 18 лет.

□ Содержание : Зачисление в начальную, среднюю, или старшую школу.

□ Период заявления :

○ Регистрация иностранца и различные виды ВНЖ

○ Изменения в зачислении

*Например, когда дошкольник учится в школе или переходит из начальной школы в среднюю школу.

□ Предоставляемые документы: документы, подтверждающие, что вы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учитесь в школе, например,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зачислении в учебное заведение.

□ Дата вступления в силу: `20. 9. 25 (пт)

<https://www.hikorea.go.kr>

В случае игнорирования налагается условный штраф от 80.000 вон, аналогичный штрафу за неоповещение о смене нового паспорта.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새로운 출입국 관련 변경사항이 지난 9월 25일 발표됐습니다.

◆외국인의 직업 및 연간 소득액 신고 의무화

앞으로 취업 할 수 있는 체류 자격(비자)을 가진 외국인주민은 근로 및 연간 소득에 대한 정보를 정부

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관련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데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선원취업(E-10)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등의 비자를 가진 외국인주민은 직장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할 내용은 직업과 연간 소득금액 등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을 알 수 있는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기 전에는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에서 예약을 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처음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주민은 외국인등록을 할 때 신고해야 하며 기존에 등록된 외국인인 별도로 절차가 공지되면 그 절차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주민의 국내 체류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주민의 소득을 파악해 세금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조치로 인해 중국동포 사이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서에서 소득금액 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면 취업 제한이 있는 업종에서 근무한 것이 들통 나기 쉽다. 또 신고를 하지 않고 취업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쉬워서 사법처리 대상이 될까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학령기 체류외국인의 재학증명서 제출 의무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변경에 따라,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 등록외국인은 앞으로 학교 재학여부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모든 체류자격 외국인이며 신고내용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어느 학교에 재학 중인 지 여부입니다.

신고를 하는 시기는 외국인등록 및 각종 체류허가 시와 재학사항 변경 시 등입니다. 예를 들어, 미취학자가 취학을 할 경우, 또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할 경우 등입니다.

이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재학증명서 등 재학 증임을 알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므로 외국인주민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경기외국인SNS기자단을 검색하세요〉

장울가 경기외국인SNS기자단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화성시청 1577-4200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267-8786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031-8059-1261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 031-267-1526
다모임한사랑복지 031-357-0888 까리따사이주민화성센터 031-354-5222 화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290-080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중심 ... 다 함께 공정한 세상 향해 나아가자"

제3회 경기도민의날 기념식, 1천년 경기도의 역사 "외국인주민도 자부심 가질 만해"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다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수원시 소재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제3회 경기도민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백혜련 국회의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강 평화부지사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10월 18일 경기도민의 날은 고려 시대인 1018년 서울의 외곽지역을 경기(京畿)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고려사 지리지 기록에서 유래한다. 지난 2018년 경기 1,000년을 맞아 10월 18일을 경기도민의 날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부대행사를 생략

하고 소규모로 운영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기념사에서 “경기도의 주인은 경기도민이다. 취임 이후 공직자들과 똘똘 뭉쳐서 도의 예산과 권력이 오로지 도민과 경기도 발전에 쓰이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며 “그 결과로 다양한 곳에서 성과들이 쌓이다 보니 도민들께서 이제는 경기도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에는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거주하고 있고 경제력 등 분야에서 경기도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북한과 접경하고 있어 통일과 남북 교류협력 책임 또한 막중하다”며 “경기도는 이제 어딘가의 변방이나 주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확고한 중심이므로 이에 걸맞게 우리 모두가 큰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지사는 “경기도의 도정 모토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으로, 공정한 세상은 공동체가 해체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대책”이라며 “함께 사는 대동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강자들의 일방적 횡포를 제어하고 다수 약자의 억울한 상황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도민의 동참을 당부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오늘 경기도민의 날은 경

기도민 정책추진과 함께 하고있다. 도민 스스로 사회, 정치적 문제에 참여해 해결점을 찾고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주민자치이고 더 큰 민주주의라 생각한다”며 “경기도의회도 언제나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경기도민의 행복과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도민들을 분야별로 시상하는 ‘경기도민상’ 시상에서는 총 8명의 도민이 선정됐으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뮤지컬 홍보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진수 씨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김원태 씨가 경기도민 대표로 도민 헌장을 낭독했다.

이번 경기도민의 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문화공연, 체험행사 등 부대행사를 제외하고 초청 인원도 최소화해 소규모로 개최되었지만, 경기도민의 일체감을 형성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이번 경기도민의 날 기념식을 계기로 경기도민의 일원인 외국인주민도 경기도민의 날을 기억하고, 경기도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

〈중국어 25면, 베트남어 하단, 러시아어 24면〉

송하성 기자

Thị trường Lee Jae Myeong " Trọng tâm của Hàn quốc là tỉnh Gyeong gi do... Tiến tới một thế giới công bằng và đi lên "

Lễ kỷ niệm ngày nhân dân tỉnh Gyeong gi do mở ra, Lịch sử 1000 năm trước của tỉnh Gyeong gi do " Người nước ngoài cũng mang trong mình lòng tự hào "

" Tỉnh Gyeong gi do mới mang trong mình lòng tự hào và tinh thần trách nhiệm , Chúng ta hãy cùng nhau tạo nên một thế giới công bằng "

Tại chiến dịch tỉnh Gyeong gi do trong tưởng tượng được tổ chức tại tỉnh Suwon vào ngày 17 tháng 10 vừa qua, lễ kỷ niệm " ngày công dân tỉnh Gyeong gi do lần thứ 3 " đã được mở ra. Trong sự kiện này đã có hơn 30 người đã tham dự sự kiện, bao gồm thị trường tỉnh Gyeonggi do Lee Jae-myung, Đại biểu Quốc hội Paik Hye-ryeon, Chủ tịch Hội đồng Gyeonggi-do Jang Hyun-guk và Phó Thống đốc Hòa bình Lee Jae-gang.

Ngày công dân tỉnh Gyeng gi do ngày 18 tháng 10 có nguồn gốc từ ghi chép về địa lý thời Goro bắt đầu gọi vùng ngoại ô của Seoul những năm 1018 là Gyeong gi. Vào năm 2018 nhân dịp kỷ niệm 1000 năm tỉnh Gyeong gi do thì vào ngày 18 tháng 10 đã được chỉ định là ngày công dân tỉnh Gyeong gi do. Năm nay do Corona 19 nên các sự kiện bên lề đã được bỏ qua và chỉ hoạt động ở quy mô nhỏ. Thị trường tỉnh Gyeong gi do Lee Jae Myeong vào ngày kỷ niệm này đã phát biểu rằng " Chủ nhân của tỉnh Gyeong gi do là nhân dân tỉnh Gyeong gi do.Kể từ khi nhậm chức, chúng tôi tự hào rằng chúng tôi đã làm hết sức mình để đảm bảo rằng ngân sách và quyền lực của tỉnh được sử dụng riêng cho sự phát triển của cả người

dân và tỉnh Gyeonggi bằng cách làm việc cùng với các quan chức nhà nước" và " Và kết quả của các việc làm đó chúng ta có thể thấy bằng thành quả ở nhiều nơi và bây giờ tên gọi công dân tỉnh Gyeong gi do giống với việc mang trong mình lòng tự hào "

Theo đó " trong tỉnh Gyeong gi do có hơn 1/4 lượng dân số của cả Hàn quốc đang cư trú và tầm quan trọng của Gyeong gi do như kinh tế ..vv.. thì không thể diễn tả bằng lời.

Do giáp với Triều Tiên nên trách nhiệm thống nhất và trao đổi và hợp tác liên Triều cũng rất lớn." Ông nhấn mạnh," Vì tỉnh Gyeonggi-do hiện là trung tâm vững chắc của Hàn Quốc chứ không phải là vùng ngoại ô hay vùng phụ cận của bất cứ nơi nào nên , tôi hy vọng rằng tất cả chúng ta đều cảm thấy tự hào và có trách nhiệm lớn lao "

Ngoài ra ông Lee cũng nói rằng " Phương châm của tỉnh Gyeonggi-do là 'tỉnh Gyeong goi do mới với một thế giới công bằng',và thế giới công bằng là một chính sách duy nhân mà có thể tồn tại và không bao giờ bị giải thể " và ông nhấn mạnh sự cùng tham gia của nhân dân " Để tạo ra một thế giới cộng đồng chúng thì phải kiểm chế sự kiểm soát của kẻ mạnh và nhất định phải cải thiện tình hình uất ức của kẻ yếu "

Chủ tịch Hội đồng tỉnh Gyeonggi-do ông Jang Hyun-guk cho biết, "Hôm nay ngày Công dân tỉnh Gyeonggi-do được tổ chức cùng với Lễ hội Chính sách của Công dân tỉnh Gyeonggi-do. xã hội của nhân dân tự chủ, tham

gia vào những vấn đề chính trị để tìm ra phương án giải quyết, vẽ ra những chính sách giúp phát triển tương lai, tôi nghĩ đây chính là chủ nghĩa dân chủ và là xã hội tự trị chân chính" và ông nói thêm rằng " Hội đồng tỉnh Gyeong gi do luôn luôn lắng tai nghe những lời nói của người dân tỉnh Gyeong gi do và chúng tôi sẽ làm hết sức vì hạnh phúc và cuộc sống của người dân tỉnh Gyeong gi do "

Trong sự kiện lần này đã có tổng cộng 8 công dân đã được trao " giải thưởng công dân tỉnh Gyeong gi do" cho sự đóng góp và sự phát triển của cộng đồng địa phương và Song Jin-soo, người đang hoạt động trong Nhóm quảng bá xúc tiến âm nhạc thu nhập cơ bản cho thanh thiếu niên tỉnh Gyeonggi-do, và Kim Won-tae, người đang chăm sóc cho bệnh nhân Corona 19 tại Bệnh viện Suwon thuộc Trung tâm Y tế tỉnh Gyeonggi do , là hai công dân tiêu biểu của tỉnh Gyeong gi do đã đọc bản điều lệ của công dân tỉnh Gyeonggi do . <한글 기사 상단>

Sự kiện ngày công dân tỉnh Gyeong gi do lần này mặc dù được tổ chức theo quy mô nhỏ, tối thiểu hóa tối đa người tham dự, bỏ qua hết các sự kiện bên lề như sự kiện văn hóa, biểu diễn âm nhạc ..vv.. do tình hình corona tuy nhiên không vì thế mà chúng tôi cảm thấy thiếu tinh thần trách nhiệm của nhân dân tỉnh Gyeong gi do. Tôi hy vọng rằng lễ kỷ niệm Ngày Công dân Gyeonggi-do này sẽ cho phép người dân nước ngoài, một thành viên của công dân Gyeonggi-do, nhớ đến Ngày Công dân Gyeonggi và có niềm tự hào là công dân Gyeonggi-do.

Проект "Общий холодильник" в г.Хвасон 지역사회 '공유 냉장고'

오늘 나의 삶을 돕는 '알 수 없는 친구'가 있다면, 내일 나도 그런 친구가 될 수 있다



В век информатизации и технологий все тайное становится явным, и хорошие примеры находят своих героев. Так, во многих странах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где очень развито гостеприимство, люди поддерживают друг друга в трудную минуту не только словами, но и делами. Немало неизвестных для жителей Узбекистана, Казахстана и др. стран факты, когда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и неравнодушные люди создают специальный прилавок для продуктов питания, чтобы поддержать пенсионеров и нуждающихся. Каждый желающий может купить и оставить на этом прилавке буханку хлеба, пакетик крупы или макарон, а нуждающиеся - забрать.

Конечно, я не очень сильно удивилась, когда я узнала о подоб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 в Корее. Ведь взаимопомощь и поддержка друг друга очень развиты и в 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 Называется это по-разному в каждом районе, но смысл схожий - кто может, оставляет продукты питания, кто нуждается - может забрать.

Так, в Кёнгидо г.Хвасон в центре по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м делам граждан района Чинан (진안동행정복지센터) открыт проект "Друг, приносящий счастье". У входа в здание установлены 2 больших холодильника. Каждый желающий может остав

лять там овощи, фрукты, консервы, напитки и другие продукты питания, которыми хочет поделиться с соседями. Естественно, при этом продукты не должны быть просроченными и срок годности должен оставаться не менее 3 дней.

Нельзя оставлять спиртные напитки, бракованные продукты, приготовленную еду, просроченные продукты. Тем, кто забирает продукты, желательно проверять срок годности и перед употреблением, и брать 1 продукт на 1 человека. Таким образом, помогая нуждающемуся соседу, можно стать неизвестным другом, который приносит счастье.

Похожий проект под названием "Душевный сосед" открылся еще в одном месте г.Хвасон: Мульти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взаимовзаимообщения Асия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 Около кафе "Асак" установлен холодильник, где находятся продукты питания, которые может взять нуждающийся. Те, кто желает поделиться с близкими, может оставлять фрукты, овощи, салаты, крупы, консервы, хлеб и другие продукты питания. При этом следует указывать дату изготовления и срок хранения.

Просроченные или испорченные продукты, лекарства (в том числе и традиционной медицины и витамины), продукты для длительного хран

ения или для хранения в морозильной камере, оставлять нельзя.

В основном, данный центр посещают иностранцы из Кёнгидо, которые изучают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а также участвуют в культурных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программах центра. Поэтому открытие этого проекта именно в таком месте носит большое значение в понимании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и взаимовзаимообщения: иностранцы могут лично узнать особенность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поддержки и взаимопомощи, а также сами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ней как в качестве нуждающегося, так и в качестве помогающего.

Я верю, что не оскудеет рука дающего, и что в жизни работает принцип бумеранга. Не стесняйтесь принимать добро и не бойтесь делиться добром. Все хорошее возвращается сторицей. Если в Вашей жизни сегодня есть "неизвестный друг" который Вам помогает, то завтра таким другом можете быть Вы.

Будьте всегда открыты добру вместе с репортёром иностранных соц.сетей Ким Еленой.

Информация и технологии в современном мире делают все возможное, чтобы хорошие дела были известны. Это особенно важно в странах, где взаимовзаимообщение является традицией. В Азии, где очень развито гостеприимство, люди поддерживают друг друга в трудную минуту не только словами, но и делами. Немало неизвестных для жителей Узбекистана, Казахстана и др. стран факты, когда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и неравнодушные люди создают специальный прилавок для продуктов питания, чтобы поддержать пенсионеров и нуждающихся. Каждый желающий может купить и оставить на этом прилавке буханку хлеба, пакетик крупы или макарон, а нуждающиеся - забрать.

Конечно, я не очень сильно удивилась, когда я узнала о подоб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 в Корее. Ведь взаимопомощь и поддержка друг друга очень развиты и в 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 Называется это по-разному в каждом районе, но смысл схожий - кто может, оставляет продукты питания, кто нуждается - может забрать.

Так, в Кёнгидо г.Хвасон в центре по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м делам граждан района Чинан (진안동행정복지센터) открыт проект "Друг, приносящий счастье". У входа в здание установлены 2 больших холодильника. Каждый желающий может остав

лять там овощи, фрукты, консервы, напитки и другие продукты питания, которыми хочет поделиться с соседями. Естественно, при этом продукты не должны быть просроченными и срок годности должен оставаться не менее 3 дней.

Нельзя оставлять спиртные напитки, бракованные продукты, приготовленную еду, просроченные продукты. Тем, кто забирает продукты, желательно проверять срок годности и перед употреблением, и брать 1 продукт на 1 человека. Таким образом, помогая нуждающемуся соседу, можно стать неизвестным другом, который приносит счастье.

Похожий проект под названием "Душевный сосед" открылся еще в одном месте г.Хвасон: Мульти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взаимовзаимообщения Асия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 Около кафе "Асак" установлен холодильник, где находятся продукты питания, которые может взять нуждающийся. Те, кто желает поделиться с близкими, может оставлять фрукты, овощи, салаты, крупы, консервы, хлеб и другие продукты питания. При этом следует указывать дату изготовления и срок хранения.

Просроченные или испорченные продукты, лекарства (в том числе и традиционной медицины и витамины), продукты для длительного хранения или для хранения в морозильной камере, оставлять нельзя.

В основном, данный центр посещают иностранцы из Кёнгидо, которые изучают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а также участвуют в культурных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программах центра. Поэтому открытие этого проекта именно в таком месте носит большое значение в понимании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и взаимовзаимообщения: иностранцы могут лично узнать особенность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поддержки и взаимопомощи, а также сами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ней как в качестве нуждающегося, так и в качестве помогающего.

Я верю, что не оскудеет рука дающего, и что в жизни работает принцип бумеранга. Не стесняйтесь принимать добро и не бойтесь делиться добром. Все хорошее возвращается сторицей. Если в Вашей жизни сегодня есть "неизвестный друг" который Вам помогает, то завтра таким другом можете быть Вы.

Будьте всегда открыты добру вместе с репортёром иностранных соц.сетей Ким Еленой.

Информация и технологии в современном мире делают все возможное, чтобы хорошие дела были известны. Это особенно важно в странах, где взаимовзаимообщение является традицией. В Азии, где очень развито гостеприимство, люди поддерживают друг друга в трудную минуту не только словами, но и делами. Немало неизвестных для жителей Узбекистана, Казахстана и др. стран факты, когда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и неравнодушные люди создают специальный прилавок для продуктов питания, чтобы поддержать пенсионеров и нуждающихся. Каждый желающий может купить и оставить на этом прилавке буханку хлеба, пакетик крупы или макарон, а нуждающиеся - забрать.

김엘레나 경기외국인SNS기자단

집에서 즐기는 세계의 음식,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커져요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0년 세계명절축제 ‘무엇이든 먹어보살’ 진행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현주)는 지난 10월 12~28일 2020년 세계명절축제 ‘무엇이든 먹어보살’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이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다문화인식개선 및 고향의 향수를 달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해마다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장기화로 비대

면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먼저 세계 여러 나라 중 중국(따라상귀), 베트남(분짜), 태국(팟타이), 한국(불고기) 등에서 맛볼 수 있는 명절 음식을 사전 온라인 신청을 통해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등 200가족을 선정해 음식키트를 배송했다.

참가자들은 요린이(음식 초보자)라 하더라도 이 음식키트를 갖고 가정에서 가족들과 손쉽게 요리를 하며 세계의 음식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다.

음식키트에 동반된 탁상달력은 각 나라의 문화 소개, 음식 레시피 및 2021년 달력을 포함하여 제작됐다.

참가자들은 요리활동 후 사진과 동영상 SNS에 게시하고 요리후기와 만족도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요리후기를 멋지게 작성한 50가정에게는 상품교환권이 발송된다.

이현주 센터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해 세계 공통의 명절인 지난 추석에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이 함

께 즐기며 고향의 향수를 달랠 수 있는 축제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음식키트로 가족들과 색다른 체험을 함으로써 가족 화합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또한 화성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자주 이용하자. 송하성 기자



호텔 지원 giảm giá nhà nghỉ và du lịch, người nước ngoài cũng giống người trong nước đều có thể sử dụng. Ngoại trừ mùa giáng sinh và cuối năm, tuân thủ một cách triệt để quy tắc phòng dịch cơ bản khi sử dụng 외국인주민도 숙박과 여행 할인 혜택 받아요

Dự án hỗ trợ giảm giá du lịch và khách sạn được mở lại sau khi bị ngừng do tình hình dịch bệnh Corona-19 phát tán mạnh vào tháng 8 vừa qua. Tuy nhiên nếu tình hình corona-19 tái phát thì có thể sẽ bị hủy hoặc dời lại.

Trước tiên bắt đầu từ ngày 28 thì sẽ cho tiến hành lại dự án hỗ trợ kì nghỉ cho người lao động. Tiếp nhận đơn đăng ký của những cá nhân hoặc doanh nghiệp có nguyện vọng tham gia và sẽ đặt gói sản phẩm hỗ trợ trên “trang web chuyên dụng dành cho dự án kì nghỉ cho người lao động”

Tùy thuộc vào tình hình Corona-19 mà dự án có thể bị dừng lại bất cứ lúc nào, dự kiến sẽ phân chia các khu vực nghỉ dưỡng theo gói sản phẩm du lịch được chọn trong 100 điểm đến du lịch không tiếp xúc do tổ chức du lịch Hàn Quốc tuyển chọn.

Bắt đầu từ ngày 30 thì có thể đặt được phiếu giảm giá du lịch. Nếu bạn đặt 1.000 sản phẩm du lịch (337

công ty du lịch) được chọn thông qua công ty điều hành trực tuyến Tide Square (Tourvis), bạn sẽ được giảm giá khoảng 30% tương đương tối đa 60.000 won. Hàng hóa du lịch được lựa chọn phân tán khu vực một cách triệt để. Người hướng dẫn du lịch sẽ được chỉ định là người chịu trách nhiệm phòng dịch và sẽ tuân thủ triệt để các quy tắc phòng dịch cơ bản như giữ khoảng cách và đeo khẩu trang để ngăn chặn sự lây lan khi di chuyển theo đoàn.

Từ ngày 4 tháng 11, phiếu giảm giá có thể được nhận thông qua 27 trang web đặt phòng trực tuyến. Nếu sử dụng nhà nghỉ dưới 70,000 won thì sẽ được nhận 30,000won, nhà nghỉ trên 70,000won thì bạn có thể sử dụng ngay lập tức phiếu giảm giá 40,000won. Để phòng dịch, Giáng sinh và cuối năm (24~31/12) đã bị loại khỏi thời gian sử dụng phiếu giảm giá.

Các cơ sở giải trí có thể được giảm giá tối đa 60%

thông qua trang web Interpark kể từ ngày 4 tháng 11. Để ngăn chặn việc tập trung sử dụng vào các cơ sở đặc biệt, phiếu giảm giá đã được phân bổ theo quy mô của các cơ sở giải trí. Dự kiến sẽ thực hiện và tuân thủ các quy tắc phòng dịch như giới hạn 50% số người sử dụng tại khu vực đô thị.

Ông Choi Bo Geun, giám đốc chính sách du lịch của Bộ Văn hóa-Thể thao, chính sách du lịch cho biết: "Tuy có lo ngại về việc mở lại chương trình phiếu giảm giá tiêu dùng trong tình trạng lây nhiễm tập thể Corona 19, nhưng chúng tôi sẽ cố gắng hết sức để có cơ hội kiểm tra chặt chẽ hơn nữa khu vực dịch vụ và “Khuyến cáo người tiêu dùng sử dụng các phiếu giảm giá vào các điểm du lịch có không gian thoáng đãng hơn là các điểm du lịch nổi tiếng thông qua loại hình dịch vụ dự báo du lịch..vv..

〈한글 기사 16면〉

강혜나 경기외국인SNS기자단